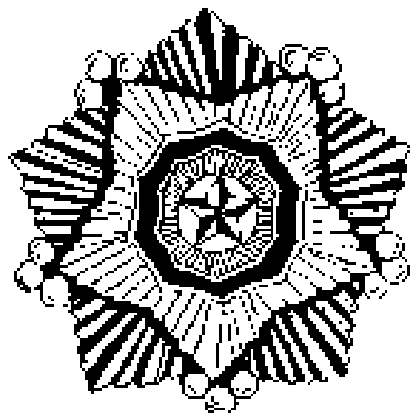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10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10호

(루계 제 744 호)

차 례

우리 당의 붓대앞에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호수의 《비밀》을 알아내신 사연	4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송가	5
따르고싶어... ..	6
6 월의 아침	7
주체문학의 대강	16
바라보는 눈빛	16
선군시대 병사의 값높은 삶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준 감명깊은 형상	17
명소에 비긴 숭고한 조국애	19
당이어 그대만을 따르리	19
신평휴계소	20
딸자랑	20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	21
어머님의 혁명력사가 빛나는 땅에서	22
너 고이 품어다오	24
상단산마루에서	25
몸소 조직하신 뜻깊은 당소조	26

낫익은 고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	26
난알의 향기	28
당창건기념탑	29
영원한 교향곡	30
사랑은 아름답다	40
수수께끼	40
이 땅의 사계절	41
특색있는 인물설정을 통하여 본 위인의 형상	42
평범한 날에	44
경구, 격언	51
내가 가꿀 땅	52
상식.....	53
선군시대 인간들의 철학적형상.....	54
어머니-이 부름앞에 외 1 편	57
나의 대답.....	58
조선속담	58
《은하수》 외 1 편	59
무엄한 독자와 대범한 작가.....	60
나래를 퍼덕이라	61
촉우기	70
어머니는 병사와 한전호에 산다.....	71
상식.....	75
우리 나라 중세풍자소설유산에 대하여	76
산산조각난 벽계수의 허세.....	77
《자기를 알라!》	78
세계유모아.....	78
로신과의 언쟁	79
상식.....	79
조우의 《소매치기》	80

우리 당의 붓대앞에

문 동 식

당창건기념탑
내 여기서 선뜻 떠나지 못함은
마치와 낫과 함께 솟아있는 저 붓을
한생토록 내 손에 굳게 쥐어주신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그 믿음 고마워
그 사랑 뜨거워

동해의 어촌마을 나지막한 소학교
로동자의 아들 한 어린 소년이
지면에 발표한 미숙한 첫 동요
그 작은 싹을
오랜 세월 애지중지 가꾸고 키워서
나를 시인으로 내세워준 당이여

대바르게 살며
정의와 진리를 노래하라고
뿌일지언정 굶힐줄 모르는
강철같은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원췌에겐 증오의 불을 뿜으라고
어머니당은 나에게
저 곧은 붓대를 맡겨주었거니

당의 사상진지에
초병으로 억세게 서있는 이 몸에
붓대여 너는
나의 둘도 없는 운명의 보검
사랑과 분노를 무겁게 안고
언제나 뜨겁게 달아있는 나의 총대

가식과 허세를 모르는 진심이 없이
배신과 변절을 타매하는 의분이 없이
내 감히 너를 잡고 저 낫과 마치에
어찌 불붙는 열정과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우렁차고 정쟁한 시를
끓는 쇠물처럼 쏟아낼수 있으랴

번쩍이는 재물에도
그 어떤 고립압살에도 끄떡하지 않고
붓대를 굳게 잡고 생각을 고를 때면
내 마음은 청청 푸른 하늘

시대의 폭풍우를 당과 함께 헤쳐가는
그보다 더 큰 행복 나는 모르나니

붓대여
너는 나의 뉘, 나의 량심
우리 당을 받들어
천리 가시숲을 맨발로 헤친다 해도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한치 또 한치 드림없이 걸어갈
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내 설사 절해고도에 홀로 있다 해도
가슴속에 불타는 심장이 있고
저 붓대 내 손에 쥐어져있는 한
노래의 분수는 용용히 솟구치리
솟구쳐 나의 노래 당의 위업 받들어
산악도 넘어가리 격랑도 헤쳐가리

그래서 평범한 날에도
내 의례히 찾아와
거울처럼 자신을 비쳐보는 랍이여
나의 온몸에
젊은 날의 그 열정 그 용맹 부어주어
백발나이에도 새 인간의 첫걸음 떼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영원한 랍이여

그대의 붓대를 우리러 바라보며
내 심장 이리도 높이 고동침은
그대와 함께 박동을 맞추며
투쟁의 불길속을 변심없이 걸어가는
당원 시인의
존엄과 영예 희열이 있기때문

그때문에 그대앞에선 내 마음 언제나
행군길의 출발선에 서있거니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도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저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고
내 심장 그대의 승리위해 불태워가리라
선군혁명대오의 돌격의 나팔수로!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10월 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주일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무었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뭇 조직을 라도제국주의동맹으로, 락칭으로는 <ㄷ. ㄷ> 라고 할 것을 제의하였다.》

《<ㄷ. ㄷ> 는 어느 과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으로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었다. 문자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ㄷ. ㄷ> 의 과에는 잡것이 섞여있지 않았다.》

혁명전설

호수의 《비밀》을 알아내신 사연

인민을 선생으로, 하늘로 존중하고 내세우신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의 갈피마다에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주체48(1959)년 3월 아버지수령님께서 농어촌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최북변에 자리잡은 선봉군(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의 길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남긴 위훈의 자욱이 어린 만향고개를 넘으시며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쓸대무성한 들판과 드넓은 호수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서포항마을에 이르시여 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잠시 호수를 바라보시었다.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설레이는 무성한 물풀들과 못새들이 지저귀는 호수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군의 일군들에게 이 호수를 어떻게 리용할 계획이며 호수에 어떤 고기들이 살고 호수의 바닥은 어떻게 생겼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마을에 들어가서 로인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었다.

때마침 서포항마을사람들이 아버지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려고 큰길에 나와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은 로인들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호수로 황급히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백발을 날리는 로인도 있었고 손자의 손을 잡고온 할머니도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마주 걸어가시며 그들을 따듯이 맞아주신 수령님께서서는 한 로인에게 여기에서 산지 얼마나 되는가, 지난날 이 고장 인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차근차근 물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윽고 호수를 가리키시며 이 호수에 무슨 물고기가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뜻밖의 물음을 받게 된 로인과 마을사람들은 성수가 나서 높이 생긴 래력과 호수에 살고있는 물고기종류를 알고있는대로 말씀올렸다.

로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번포늪에도 송어, 황어, 붕어, 매효 같은 물고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양어를 하면 아주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호수가로 걸음을 옮기시며 잔잔한 물면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로인들 쪽으로 돌아서시며 호수가 얼마나 깊은가, 물이 어째서 흐린가고 물으시었다.

한 로인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호수에서 미역도 감고 고기잡이도 해서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동번포, 서번포의 물깊이와 함께 바닥에 모래와 감탕이 깔려있다는것과 호수에 두만강물이 흘러들면서 흐려졌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번포늪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군들은 모르지만 이 고장에서 오래 산 로인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일군들은 모를것이 있으면 인민들속에 들어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것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모든것을 알수 있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일군들도 모르는 호수의 《비밀》을 잠간사이에 알아내신 비결이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 지론이 생동하게 비친 이 이야기는 조국의 북변땅과 더불어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최 승 필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송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한 작품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에 대한 신뢰와 경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커다란 고무와 격려를 받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당의 현명한 평도와 고마운 은덕을 받아안고 살며 일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정녕 그 이름 불러만 봐도 가슴이 저절로 뭉클해진다.

위대한 우리 당을 노래한 가요의 가사 《어머니당이어》는 시인의 깊은 사색이 낳은 명가사이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삼천리강산에 빛을 뿌리고
인민들 가슴에 희망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어

그대의 사랑은 파사로울고
그대의 기발은 찬란하여라
우리의 투쟁에 승리를 주고
우리의 앞길에 영광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어

...

가요의 가사를 읊어보면 다시금 또 읊어보고싶다. 그러면서 우리 당—조선로동당에 대하여, 그 고마움에 대하여 저절로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남녀로소 누구나 다 즐겨부르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었다.

주체68(1979)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수대에술단창립 10돐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아주시면서 노래 《어머니당이어》의 가사를 누가 썼는가고 물어주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시인 김재화가 썼다고 말씀 올리자 그이께서는 펍 오래전에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아직 서지 않았을 때 그 노래가 나왔는데 가사를 아주 잘 썼다고, 노래 《어머니당이어》의 가사를 쓴 김재화동무를 영웅이라고 평가할수 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해주시였다. 실로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최대의 평가였다.

시인이 《어머니당이어》와 같은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명가사를 창작하기까지는 작가의 우리 당에 대한 남다른 신뢰심과 고마움이 생활의 계기마다 뜨겁게 축적된데 있다고 본다.

사실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표상은 하루이틀사이에 생겨난것이 아니였다.

시인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었다.

어느해 가을 강원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송도원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그때 아이들은 《아버지!》, 《원수님!》, 《만세!》 하며 저저마다 환성을 울리며 달려나왔다.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 좋은 송도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것을 보니 온갖 시름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야영소의 방들과 식당을 다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다심하게 보살피시였다.

이날 아이들의 침실에 들리시여 야영생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삐걱소리가 나는 한 침대를 보시자 우리가 어린이들을 이런 침대에서 재워 키운다면 그들이 커서 침대를 만들때에도 이렇게 삐걱거리는 침대를 만들게 된다고 하시면서 좋은 침대로 바꾸어주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경치좋은 바다가에서 오롱조롱 매달린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야영소에서 현실체험하다 목격자의 한사람으로 된 시인은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그 미소를 목메이는 충격속에 새겨안았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해 걸으신 험난한 길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보다 알려지지 않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

병사들이 있는 높은 산정에도 오르시여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우리 수령님, 평범한 농민에게 담배도 권하시며 허물없이 농사일을 토론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또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합숙에 들리시여 국맛까지 보아주시던 수령님의 한없이 다심하고 소탈한 인품에 군대와 인민들은 언제나 가슴뜨거움에 젖어있었다.

하기에 시인은 후날 자기의 가사들에서 뜨겁게 노래한바와 같이 어제는 두메산골, 오늘은 동해천

리... 눈비속에 젖은 옷 마를새없이 사랑에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면서 위대한 자욱자욱을 소중히 새겨안은 나날에 수령님은 곧 우리 당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의 품이라는 진리를 자기의 생활체험으로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 58 (1969)년 10월 어느날 어느 한 예술단의 종합련습실에서 기악중주곡의 형상을 지도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새해경축공연준비를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겠는가를 토론해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러시고는 노래 《어머니당이며》와 같은 품위있는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경축공연 시연회를 지도해주시는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번

공연에서는 녀성중창으로 《어머니당이며》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는 노래라고 몸소 공연종목에 넣도록 선정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정속에 형상완성된 가요 《어머니당이며》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하늘에 비기랴 그대의 사랑
바다에 비기랴 그대의 은혜
우리는 행복한 당의 아들딸
광활한 미래로 달음쳐가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며

김 학 주

따르고싶어...

장 명 길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결같이 품고사는 소원이 있어라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당원이 되는것

그 길
특전을 누리는 길이 아니어서
남들보다 힘든 일 도맡아하고
목숨도 아낌없이 가야 하건만
누구나 걷고싶어하는 길

이 나라 어머니들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는 자식에게
꼭 당원이 되라는 그 당부 먼저 하더라
돌격대로 떠나는 청춘들
당마크를 수놓은 붉은 천 한폭
배낭속에 정히 간수하고 가더라

돌격전의 앞장에서
사품치는 강물에도
웃으며 뛰어들게 하고
불발된 발파심지앞에도
선참 달려가게 하는 그 소원
한생 량심을 고이고 심장을 고여
우리 당을 받들어가게 하더라

그 소원이 나에게도 있어

한편의 노래를 지으려
몇밤을 새도 지칠줄 모르는
나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라
오직 당의 숨결로만 뉘뒹고싶은
내 삶의 하루하루가 있어라

조국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온갖 어려움과 유혹앞에서
나의 인생을 다잡아주었고
오늘도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라고
나를 부단히 채찍질하거니
성스러운 우리 당 대렬의 한자리를 차지하고싶은
내 한생의 소원은 버리지 못하리

나는 왜 당원이 되려고 하는지
여기엔 다른 대답이 필요치 않노라
천만인민 소원이 왜 하나같은지
여기에도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노라
엄마품에 안겨드는 아기
그 진정을 물어볼 필요가 없듯이

받들고싶어 받드는 당
따르고싶어 따르는 당
아, 이것이 우리 당이다
이 세상 오직 하나 어머니란 이름으로 빛나는 당
김정일 동지를 총비서로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다!



6월의 다침

박 두 일

1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지도도를 마치고 새벽녘에 돌아오시였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평양시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실태보고와 대책안이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문건을 펼쳐드시며 그이께서는 언뜻 형범을 그려보시였다.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밝혔을 진지하고 고집스러운 얼굴...

최형범은 평양시안의 당사업을 담당한 일꾼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며칠전 현지도도를 떠나시면서 형범에게 배아링공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 부문 사업들을 로해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단 일에 손을 붙이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가 이번에도 제기된 문제들을 옳게 포착하고 정확한 일가견을 세웠으리라는 기대를 가지시였다.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여러 부문들에서 긴박하게 요구하는 배아링들을 최단기간에 생산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지금 배아링공장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전투를 진행하고있다.

《언제나 당사업의 중심고리를 제때에 포착하여야 합니다. 무슨 사업에서든지 목표를 높이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어떤 문제부터 선차적으로 풀어야겠는가 하는 사색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과업을 받을 때 명령을 받는 군인처럼 차렷 자세로 서있던 형범의 진중한 모습이 안겨왔다.

그이의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그는 침예하게 제기되는 배아링생산문제와 일꾼들과 로동자들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객관적으로, 때로는 자기의 주석을 달아가며 구체적으로 썼다. 어떤 대목에서는 어쩌나 방불하게 현실을 반영

하였던지 마치 소설의 한 대목을 보시는듯 했다.

새로 개조한 선반기의 시운전이 실패하자 일꾼들과 기대공들의 협의회에서 했다는 가공직장장의 말도 방불하게 안겨왔다.

《방도는 천가지를 찾을수 있지만 결과는 한가지도 달성하기 어렵소. 그런데 이 바쁜 속에서 고지를 지키는 기관총과도 같은 선반기가 못쓰게 되어 직장의 이달 배아링생산계획이 왔다갔다하는 판인데 또 다른 기대를 못쓰게 하겠단 말이요? 정기술개조시험을 해야 한다면 긴급한 이달 배아링생산과제나 수행하고 봅시다.》

형범은 기술개조시험을 다시 하자는 기대공들의 주장에 공감했지만 생산을 책임진 직장장의 고집에도 리해가 간다고 했다.

한달동안 계속되는 배아링생산전투에서 직장장은 몹시 수척해졌다. 전쟁때 입은 상처로 하여 허리병이 도져 고생하면서도 약을 먹어가며 주야전투를 지휘한다고 한다. 기대공들도 역시 다를바 없다. 가공직장의 한 선반기공은 종업원총회에서 깎기 혈한 배아링만 생산할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마광기의 대형배아링도 자체로 생산할것을 호소하며 대담한 설비개조방안을 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단조직장의 어느 소둔공은 퇴근하면 늘 대동강가에 나가 밤을 새워가며 낚시질하던 질군인데 배아링생산전투가 시작되어서부터 낚시대를 로결에 안테나처럼 세워놓고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땀으로 목욕하면서도 불길기 이글거리는 로속에서 잘 익은 소재를 물고기를 낚아내듯이 집게로 집어들고는 《또 한마리 잡았다. 이번에는 15키로짜리 잉어요!》 하고 우스개소리를 해가면서 잠시도 로결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편향적인 문제로 어느 한 녀성이 점심시간에 부식물을 사러 잠깐 상점에 뛰어나갔다가 온다는것이 오후작업에 5분 늦어 비판받은 내용도 들어있었다.

더우기 관심을 끈것은 형범이 공장구내식당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생산전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애로로 제기되는 바이트며 내화벽돌, 중유 같은 자재는 해결해달라고 하였지만 자기가 보고 느낀 사람들의 생활상 문제 같은것은 일언반구도 반영하지 않은것이 마음에 걸리시였다.

(하긴 무엇이든 제 손으로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성미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건을 덮으시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였다.

대동강 건너편 하늘에서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어둠이 밀려간 후에도 여기저기 널려 마지막잔광을 뿌리던 별들이 삼시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대동강 물위에 서리어있던 설핀 안개를 가시며 퍼지기 시작한 아침해빛이 고층아파트의 지붕이며 창유리들을 백옥을 다듬어놓은것처럼 눈부시게 만들었다.

아침은 언제나 상쾌하고 새로운 사업의욕을 돋군다.

김정일 동지께서 가볍게 팔운동을 하시는데 형범이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안광에 밝은 미소를 담고 반겨맞아주시였다.

《도착하자마자 보고싶었지만 밤이 깊어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찍 나왔습니까? 그동안 배아링공장일로 몹시 바빠 지냈다는데 건강을 돌보면서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 아무 일 없습니다. 오히려 먼길에 피로하시겠는데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이께서는 형범의 손을 이끌어 의자에 앉혀주시였다.

《나야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새벽사색을 즐깁니다. 새벽의 사색은 하루사색의 절반이라지 않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건철을 가지고 형범의 옆에 나란히 앉으시였다.

그이의 활달한 음성과 따뜻한 눈길에 형범은 긴장되었던 몸가짐이 어지간히 풀려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 보면 확실히 새벽에 공부하는것이 머리속에 제일 잘 들어갑니다.》

말해놓고나니 실패한 배아링공장의 설비개조시험이 생각나 얼굴이 뜨끈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심중을 못 느끼신듯 문건철에서 접어놓은 부분을 펼치시고 제기한 문제들이 적힌 종이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다독이시며 의미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건 풀어주겠습니다. 더 요구되는것은 없습니까?》

형범은 선뜻 말을 꺼내기 주저되는지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잠시 머뭇거렸다.

《저, 선반기를 다문 몇대라도 보충해주셨으면 합니다.》

《선반기라...》

김정일 동지께서는 느슨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난날 1211고지에서 싸운 중대장을 배아링공장에 보내면서 콩나물 키울 콩을 달라고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했더랬는데 <땅크>를 달라고 하는구만.》

순간 형범은 그이의 의미심장한 말씀에 다소 당황해지는것을 감추지 못하였다.

《저, 곳곳에서 앞을 다투며 손내미는것이 공장기체다나니...》

《좋습니다.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겠습니다. 참, 공장에 나가 노동자들과 함께 지냈다는데 그들의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뭘 별루 들으실만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하기 주저하는 형범에게 의자를 당겨 앉히시였다.

《왜 없겠습니까. 군대때도 병사들과 잠자리를 같이하고 한가마밥을 먹으며 산발도 함께 탄 형범 동문데 노동자들과 마주앉아 기술문제만 논했겠습니까?》

너무도 허물없이 하시는 말씀에 끌리어 형범의 입은 저도 모르게 벌글서해졌다.

그의 머리속에는 공장에서 있었던 단편적인 생활의 한토막이 피뚝 떠올랐다.

...

배아링공장에서 새로 개조한 선반기의 시운전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받고 급히 공장에 나갔을 때였다.

그는 손에 기름칠을 해가며 타버린 전동기를 분해하는 기대공들과 함께 가공직장에서 오전시간을 보내고 점심때가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범은 지배인이 손목을 끌었으나 선반공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겠다며 공장안에 있는 종업원식당으로 갔다.

식당에서는 땀흘린 노동자들의 구미에 맞게 시원한 국수를 차렸다. 비록 국수꾸미로 염장무우를 올려놓았지만 형범은 언제 그런데 관심을 돌릴 경향이 못되어 식사를 끝내고는 송구스러워하는 식당책임자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한마디 했다.

《염장무우맛이 별맛이요. 그런데 6월까지 염장무우가 있는것을 보면 식당책임자가 대단합니다.》

식당책임자는 형범의 말을 잘못 이해하였는지 푸쩍쭉게 뚱뚱한 몸을 흔들며 《가을철까지 넉넉하게 쓸수 있게 장만했습니다.》 하고 은근한 자부심을 내비치였다.

형범은 아무래도 충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어 노동자들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여담삼아 이야기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생선국을 끓일 때마다 자식을 생각해서 자기는 고기보다 대가리가 더 맛이 있다며 고기토막은 늘 아들의 국그릇에 놓아주었다는거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든 다음 며느리가 어머니 국그릇에 고기토막을 놓아주려고 하자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대가리를 더 좋아하니 입쓰리하는 당신이 고기토막을 많이 먹으라고 하였다질 않소.》

식탁에 빙 둘러앉은 노동자들속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식당책임자는 그때까지도 말뜻을 깨닫지 못했는지 허리가 부러지게 웃기만 했다.

...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참, 걸작입니다. 염장무우가 그렇게 많다면야 한바께쪼끔 달라고 해볼걸 그랬습니다.》

그이께서는 웃음을 거두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며 입속말로 외우시었다.

《베어링공장... 염장무우라...》

조용한 어조였으나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시었다.

(괜히 내가 실없는 말씀을 드려가지구...)

형범은 때늦은 후회가 슬며시 갈마들었다.

형범은 사업과 다르게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일은 바쁜 고비나 넘긴 다음에도 능히 바로잡을수 있는것이였기에 자세히 반영조차 하지 않았는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기가 소홀히 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계시었다.

고개를 숙이고있는 형범의 마음속을 헤아리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머리도 철검 소풍이나 함께 합시다.》

그이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형범의 팔을 가볍게 이끄시며 문가로 향하시었다.

2

봄날에 날리는 버들솜처럼 점점이 널려져있는 실안개속을 헤치며 승용차는 쾌속으로 달렸다.

강안도로에는 이른아침이어서인지 인적이 드물고 오고가는 차들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김정일** 동지의 깊은 사색을 말해주는듯 고르롭게 울리는 발동기소리와 가로수들에서 못새들의 지저귂소리만이 새벽정서를 한껏 돋구고있었다.

밀물때가 되어서인지 대동강상공에서는 서해의 흰갈매기들이 강을 따라 거슬러오르며 한가로이 날아예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첫날부

터 언제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었다.

미제는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한데 이어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남조선피괴도당을 사촉하여 군사분계선상에서 무장도발사건을 끊임없이 일으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4월에는 자강도, 5월에는 황해남북도, 6월에는 평안남도안의 여러 부문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불철주야로 사업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미제를 때려부신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기상을 보면서 더없이 기쁘시였으나 일부 일군들의 잘못된 군중관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수 없으시었다.

이번 현지지도길에서 보고받으셨지만 어느 발전소건설장의 젊은 돌격대장은 손탁이 세고 내밀성도 있었으나 준공을 앞당긴다며 인민들이 아이들의 학교건설을 위해 마련한 건설목재를 발대목으로 써서 해임처벌까지 받았다.

형범도 일을 시작하면 모든 정열을 사업에 쏟아붓는 돌격형의 일군이였으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돌리는것이 마음에 걸리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비록 성격상 부족점은 있지만 언제나 대바르고 청렴결백한 형범을 늘 곁에 두고 그의 사업과 생활에 대해 마음써오시었다.

키 높이 자란 가로수에서 새벽까지 **김정일** 동지의 사색을 흔들어놓았다.

《윤희동무의 일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김정일 동지의 물으심이다.

베어링생산실적을 종합해보던 형범은 급히 생각을 정돈하며 정중히 말씀드렸다.

《저... 베어링검사에서 어찌나 요구성이 높은지 직장장들도 혀를 찬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후사정에 비친 형범을 바라보시었다.

《허, 인젠 딸의 이름까지 잊은게 아닙니까?》

형범은 순간 당황함을 감출수 없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베어링공장 검사원처녀에 대해 물으신것이 아니라 자기 딸에 대해 물으셨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윤희는 형범의 외동딸이다.

올해 26살이 되는 윤희는 평천지구에 있는 남새상점에서 일하고있다.

중학시절부터 예술에 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지금 구역안에서 손꼽히는 예술소조원으로 활약하고있다.

윤희에게 지난해부터 눈이 맞는 총각이 생겼다. 사랑을 정식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딸의 눈

치를 보면 보통사이가 아닌것 같았다.

그런데 올해 봄에 그들의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났다.

어느날 윤희가 청년이 감기에 걸려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고 퇴근길에 첫물오이를 사가지고 찾아갔는데 총각의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처녀가 자기네 구역안의 남새상점에서 일한다는것을 알고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아무래도 성실한것 같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그 이후부터 윤희의 태도는 돌변했다.

총각이 아무리 리해시키려고 해도 듣지 않을뿐 아니라 그가 집현판까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날 형범은 현판앞에 있는 나무밑에서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서있는 청년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우산을 씌워주며 처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윤희가 출퇴근때마다 리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였다.

군대에서 땅크병으로 복무하던 그는 지난해에 제대되어 시내 려객운수사업소에 배치되었는데 갑자기 휘발유기관을 다루다보니 드문히 빠스고장을 내어 손님들속에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는것이다.

어느날인가 윤희네가 시외로 남새를 인수하러 가려고 일찍 출근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 빠스가 중도에서 고장이 생겨 멈춰서게 되었다.

그날 윤희는 남새상점에서 자동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와하다가 《고물차》라고 눈총을 쏘아주고는 중주먹을 쥐고 달려갔으나 그만 지각하여 남새밭에도 나가지 못하고 온종일 상점안에서 얼굴을 싸쥐고 울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청년은 또다시 바쁜 출근시간에 변속기가 말을 듣지 않아 로상에서 빠스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손님들속에서 《운전사가 기술이 없다》고 하는 불만과 함께 《27호차는 타지 말아야 한다》는 얼굴뜨거운 말까지 퍼져나왔지만 청년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 차밑에서 고장을 퇴치하느라 땀을 흘렸다. 하지만 차는 인차 수리되지 못하였다.

봄비던 손님들이 더는 기다릴수 없다며 같은 로선을 달리는 다른 빠스들을 타고간 다음 총각은 손맥이 풀려 차밑에 그냥 누워있었다. 그런데 누군지 스파나들이 들어있는 공기함을 차밑으로 밀어넣어주는것이였다.

청년은 그래도 리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고마움에 용기를 내서 고장을 퇴치하고 나왔는데 자기를 도와준 손님이 다름아닌 윤희였다는것이다. 청년은 미안하고 웅색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 몸둘바를 몰라하였는데 윤희가 먼저 말하더라는것이다.

《나는 남새밭에 나가지 못한 날 너무 분해서 려객사업소에 찾아갔댔어요. 그곳에서 동무

가 자진하여 오래동안 버려두었던 낡은 차를 맡아 고생하면서도 군말없이 사람들의 통근을 보장하기 위해 애타게 노력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그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모욕까지 한 자신을 밤늦게까지 원망했어요.

경호동무, 우리 같은 봉사일군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해주자요.》

그때부터 그들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졌다. 경호는 출퇴근시간마다 윤희를 기다렸고 윤희는 그대로 운전사자리에 곱게 수놓은 방석도 깔아주고 빠스시창에 레스장식도 해주며 경호를 고무해주었다.

이들의 이런 관계를 모르는 청년의 어머니는 남새상점에서 일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나름의 속단으로 머리를 기웃거렸다.

다른 구역 남새상점들에는 철파라 남새들이 흔하지만 청년이 살고있는 주택지구의 남새상점에는 늘 남새가 모자라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고있었다.

온 나라에 당이 제시한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때에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곳 남새상점일군들에 대한 청년의 어머니 말을 그르다고 할수 없었다.

윤희네 남새상점이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하고있었으니 주민들의 웅당한 비판을 받은셈이였다.

형범은 일이 바빠다며 자식교양을 바로하지 못한 자책감과 함께 처음으로 딸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들었다.

청년은 형범의 이런 생각을 모르고 가방안에서 마분지팩에 포장한 물건을 꺼내들었다. 처녀들속에서 한창 인기있는 《모란표》 크림이였다.

《저녁때마다 얼굴이 타고 거칠어진 윤희동무가 빠스정류소에 서있는것을 볼 때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젠 우리 어머니가 윤희동무에게 보내는것인데 전해주십시오.》

청년은 머리를 수그린채 돌아서서 비속을 걸어갔다.

(저런 청년을 마다하다니...)

자제력이 있고 침착한 일군으로 알려진 형범으로서도 참을수 없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니 윤희가 창가에 서서 비내리는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며 눈물이 글썽해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서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저 애도 청년이 비속에 서있다는것을 알고있었구나.)

형범은 딸의 마음이 풀린 다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하여 따끔하게 이야기해주리라 생각하였는데 일에 몰리다나니 깜박 그 생각을 잊고있었던것이다.

...

《아무런 대답이 없는것을 보니 그들사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것이 아닙니까?》

어쩐지 형범은 자기가 마치 그이께 죄를 지은 심정이였다.

형범은 한동안 말을 갑자르다가 궁여지책의 말씀을 드렸다.

《저... 아무래도 그들의 사랑싸움이 인차 해결 될것 같지 않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 하는 형범을 후사경으로 얼핏 살펴보고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였다.

《나는 의협심이 많은 윤희동무가 부질없이 사랑싸움이나 할 처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관이 선 그도 자기나름의 생각이 있어 그럴겁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한갓 애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내의 남새공급정형에 대해 료해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형범은 처녀, 총각들의 싱갱이질로 별치 않게 보았던 문제가 그저 스쳐지나버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길거리에는 아침달리기하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하나, 둘... 하나, 둘.》

남녀애들의 키가 크게 차이나는것으로 보아 이 근처의 어느 살림집 애들인것 같았다. 대렬뒤에는 키가 큰 사람의 모습도 보였는데 가까이 스치며 눈여겨보니 나이많은 할아버지였다.

김정일동지의 안광에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그이께서는 차속도를 늦추며 대렬을 따라서 느라고 작은 발을 부지런히 놀리는 유치원나이포래의 아이모습을 정찬 눈길로 보시였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어린아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제법 할아버지걱정을 한다.

형범도 무겁던 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김정일동지께서 차창밖으로 손저어주시자 어린아이는 썩긋 웃으며 작은 손을 마주 흔들고는 장한듯이 앞으로 씩씩 달려간다.

이른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어데선가 딸랑, 딸랑 하는 유별나게 청아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아파트가까이에 있는 주차장에 조용히 차를 세우시고 방울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깨끗한 위생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여인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커다란 냄물통을 실은 손수레를 옆에 세워놓고 방울을 울리고있었다.

잠시후 아파트현관마다에서 여인들이 웃고떠들며 제각기 그릇들을 들고나오더니 무엇인가를 받아 들고 들어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이른새벽 수수한 옷차림으로 다가오신 그이를 아무도 알아봐지 못하였다.

《무엇을 팝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위생복차림의 그 여인은 국을 판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때마침 손자의 손목을 잡고 국을 받으려 나온 할머니가 그이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매일과 같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국을 끓여가지고 나와 아침저녁으로 팔아주니 부부가 다 직장에 다니는 세대는 물론 모든 가정들에서 얼마나 고마와들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지미가 짧지만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복방울어머니〉라고 정답게 부른답니다.》

젊은 판매원은 그만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아이참, 할머니 별말씀 다 하시네. 국이나 팔아주는걸 가지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는 그를 다정히 바라보시였다.

《국과는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동무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빨리 높이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남먼저 실현하기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이의 치하의 말씀에 할머니가 더 성수나하였다.

《옛날부터 부지런한 아낙네가 하나 있으면 동네 여인들이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우리 아파트 가정들에서는 복방울소리에 화답이나 하듯이 집집마다에서 가마뚜껑 여닫는 소리가 요란하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할머니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국과는 일을 언제부터 합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판매원은 잠시 말을 고르듯 주뚝거리다가 말씀드렸다.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베아링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답니다. 이곳 지구에는 베아링공장에 다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앉아 지금 베아링공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우리 밥공장에서 도와나서자고 의논하고 국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의깊으신 눈길로 판매원의 얼굴을 보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판매원은 자기 자랑을 하는것 같아서인지 몹시 부끄럼을 타며 얼굴을 숙이고 앞치마자락을 매만지였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시는 우리 수령님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말끝을 흐리는 젊은 여인의 눈가에는 물기가 번뜩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른새벽에 만난 평범한 너인의 진정이 담겨진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셨다. 그이께서는 지내볼수록 리 한점없이 순결한 판매원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려는듯 한동안 지켜보시었다.

《동무들이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성스런 마음이 귀중한것입니다. 국만 팔지 말고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부식물가공품도 만들어 아침저녁 이렇게 팔아주면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할머니는 경탄에 찬 눈으로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젊은분이 어떻게 사람들의 가정생활 형편에 대하여 어머니들처럼 속속들이 헤아리는가고 연방 감탄하였다.

그이께서는 잔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의 손을 살뜰하게 쓸어주시며 마디마디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봉사일군들이 모두 이 동무처럼 일하면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 많던 할머니도 락을 보시고 우리 녀성들의 부엌일부담도 덜어줄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끝내 저고리고름끝을 눈가에 가져갔다.

아직도 김정일동지를 알아뵈지 못하였지만 판매원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그이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미처 부식물생각까지 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었다.

할머니를 따라나온 아이도 어른들의 말새에 끼여들었다.

《야, 좋네. 복방울아지미, 그럼 풋강냉이도 팔아주나요?》

《너는 풋강냉이가 제일 먹고싶은게로구나.》

《예, 영남이넌 촌에 있는 할머니가 풋강냉이를 보내준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집은 촌에 친척이 없거던요.》

《그래, 그럼 아지미가 풋강냉이를 사다주지.》

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할머니, 나 아침달리기 할래.》

《그래, 그래!》

할머니는 공뿔겨나듯이 달음쳐가는 손자애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판매원은 일행에게 다소곳이 머리숙여 인사하고는 방울소리를 울리며 손수레를 밀고 다음아 빠트쪽으로 향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판매원의 뒤모습을 자애로우신 눈길로 보시며 형범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비록 이 거리에서 방울소리를 울리는 봉사일군이 저 동무 하나이지만 래일은 열, 모레

는 백으로 늘어나는 방울소리를 듣게 될것입니다.》

크나큰 감동을 안고 천천히 김정일동지의 걸음에 맞추어 발을 옮기는 형범의 뒤에서는 팔랑팔랑 사 람들을 부르는 방울소리가 정답게 들려오고있었다.

3

시내의 남새공급정형을 알아보니 편향이 적지 않았다.

시 채과도매소에서는 계절에 따르는 남새공급사업을 구역별로 주민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짜고든다고 하지만 방직공장이나 베아링공장과 같이 큰 공장, 기업소들이 집중되어있는 지역들에서는 공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공장주변 남새상점들을 리용하다나니 늘 남새가 모자라고 반면에 남새생산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터밭에서 남새를 조금씩이라도 심어먹을수 있는 지역들에는 상점의 남새가 잘 팔리지 않아 적지 않게 쌓여있었다.

형범은 여름철에도 염장무우자랑을 하던 베아링공장 식당책임자의 등그런 얼굴을 생각하며 김정일동지께서 왜 자기에게 소풍을 함께 하자고 하셨는지 뒤늦게야 깨달았다.

결국 딸에게서 생긴 문제도 자기에게 결함이 있었던것이다.

《윤희동무는 나에게 주민들속에서 성실한 처녀라는 평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희동무는 매일과 같이 멀리있는 농장에까지 나가 손수레로 남새를 날라오느라 얼굴이 트는것도 모르고있습니다.》

형범은 경호라는 청년이 살고있는 베아링공장 주변마을을 돌아볼 때 그가 하던 말이 다시금 심장속에 파고들며 제자식의 사랑마저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얼마나 책망하였는지 모른다.

형범은 시안의 당사업을 맡아보는 일군으로서의 사업보고라기보다 자식을 거느린 부모로서 비판준비를 해가지고 김정일동지께로 가고있었다. 그는 지난 시기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쫓버리고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것에 관심을 덜 돌리는 식으로 사업해온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고있었다.

집무실에 이르니 김정일동지께서 창문가에 서시여 시내의 밤거리를 부감하시며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 계몽기가요들을 듣고계시었다.

그이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에서 나오려는데 친근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이 노래들을 들을적마다 지난날 나라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더 잘살게 하겠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형범은 가슴이 무거워져 머리를 들수 없었다.

《저... 제가 일을 바로하지 못하였습니다.》

형범은 시내의 남새공급실태를 료해한 정형을 자기비판과 결부하여 보고드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때없이 심각해진 형범의 얼굴을 다심한 눈빛으로 보시며 시내중심지역 남새상점들의 형편은 어떤가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형범은 그래도 중심지역 남새상점들에서는 배추와 시금치는 물론 고사리, 도라지 등 여러가지 남새들과 산나물들도 떨구지 않는데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형범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때때로 수첩에 자료들을 적어넣으시고나서 상점들에 부루와 쑥갓 같은것도 있던가고 물으시었다.

《저...》

형범은 그이의 갑작스러운 물으심에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아무런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부루나 쑥갓 같은 기호남새는 생산량이 적을뿐 아니라 배추나 시금치처럼 꼭 없어서는 안될 남새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알아보지 않았던것이다.

지어 일부 일군들은 색다른 남새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전 풀뿌리를 먹던 일을 잊지 않으면 무엇이냐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었으나 형범은 그에 대해 심중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있는 형범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책상에 다가서시어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그를 곁으로 부르시었다.

《남새공급사업을 개선해야겠습니다.

알곡생산면적을 조절하여 가정세대들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의 식당들에도 남새를 넉넉하게 공급할수 있게 생산량을 늘일뿐아니라 부루나 쑥갓같은 기호남새도 심게 하고 인민들에게 풋강냉이도 공급하는 체계를 세워야겠습니다.》

형범은 봄철영농시기 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개인터밭들에도 강냉이를 심게 하자고 제기해온 문제에 동의했던 일이 생각나 걱정스레 말씀을 드렸다.

《저... 그러면 7개년계획말에 예견되어있는 알곡생산량에 지장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호남새를 생산하는데는 땅이나 로력이 얼마 들지 않기때문에 알곡생산을 늘이면서도 남새생산을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어제 밤 위대한 수령님께 남새문제와 풋강냉이문제를 보고드렸는데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남새와 과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알곡작물로 심은것이라도 강냉이를 풋것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앞으로는 협동농장들에 〈남

새용풋강냉이〉 생산지표를 따로 주어 해마다 시민들에게 풋강냉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다시 밤을 지새우신듯 눈가에 피로가 력력히 실려있었으나 정열에 넘치신 모습으로 사동구역과 락랑구역, 력포구역 등 시 주변농장들의 지형도를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남새면적을 늘일데 대해서와 강냉이밭들을 대담하게 뚝 떼내어 인민들에게 풋강냉이를 공급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놀라움에 잠겨있는 형범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일깨워주는 어조로 조용조용 말씀을 이으시었다.

《당일군은 수자를 보기 전에 사람들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이 생산만 중시하다나니 배아령공장 같은데서는 로동자들이 일요일에 휴식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미루고있다는데 그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배아령을 생산하자는것도,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자는것도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더 잘살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7개년계획은 수자상의 고지가 아니라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는 우리 인민들의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세워진 정신력의 고지입니다.》

그러시고는 창문가에 다가서시어 불밝은 시내거리를 내다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여름철이면 부루에 고추장을 발라 씹을 싸먹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풋고추나 쑥갓, 총각김치도 무척 좋아하고 아이들은 풋강냉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새상점들에 그런 남새가 없으니 도시주민들이 부루쌈이나 쑥갓맛을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풋강냉이문제도 알곡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걱정할수 있지만 당일군은 무엇보다 인민들의 요구를 먼저 알고 그들의 마음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저절 보십시오. 어머니가 떼질하며 걷던 아이에게 도마도를 쥐여주니 토끼뽕걸음을 합니다. 이제 풋강냉이까지 받아들고 좋아할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어찌 그들이 먹고싶어하는것도 안 먹이고 쌓아놓은 량곡창고의 로적가리를 쳐다보는 기쁨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인민을 위하여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입니다.》

형범의 가슴은 불덩이를 받아안은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형언할수 없게 높뛰었다.

그의 눈앞에는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기뻐할

사람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이 주마등처럼 비졌다. 그것은 **김정일** 동지께서 이른아침. 방울소리를 듣고 나온 평범한 마을녀인들과 미처 눈곱도 떼지 못한채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나온 쪼무래기 총각애와 하신 약속이었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그이의 헌신이었고 사랑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껏 믿음어린 시선으로 형범에게 다가오시여 두손을 꼭 잡아주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지나날 우리 어머니들은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어머니들과 같이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지도앞에 다가서시여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곳에 아침저녁때와 철야식당을 내오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업부문에서는 이동봉사와 주문봉사를 조직하고...》

형범은 코마루가 쨍해오고 눈시울이 화끈 달아올랐다.

불쑥 점심시간에 찬거리를 사러 거리에 나갔다가 비판받은 녀성노동자며 고기잡이를 그토록 즐기면서도 밤낮이 따로없이 일하는 《천렵군》, 염장무우자랑으로 어깨를 들썩이던 식당책임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정일** 동지, 제 언제면 하늘같은 그 뜻을 다 받들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깊은 사색속에 잠겨있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형범동무, 우리는 대오에서 구령을 치는 지휘관만이 아니라 돌격전에 아들딸들을 내세운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납니까? 지난해 전국국영농목장일군협의회에서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것이 한스럽다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그 념원을 꽃피우는 어머니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당!)

형범은 뜨거운 용암처럼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힘있는 대답을 울리려 하였으나 목이 짝매여 입술만 오무리며 두주먹을 움켜쥐었다.

밤하늘에서는 은모래를 뿌려놓은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깜박이고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아파트살림집창가의 전등불이 하나, 둘 꺼지고 분주하게 길거리를 달리던 차들도 뜸해졌다.

형범은 깊어지는 생각에 잠겨 당중앙위원회 정

원안을 거닐며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 불밝은 창가를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4

날이 밝았다.

거리와 마을들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났다.

이른아침부터 팔랑, 팔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수많은 손수레며 밀차들이 살림집구역들을 돌고있다.

《어제 주문했던 총각김치를 받으러 왔습니다.》

《국맛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고마와요.》

형범은 설비들을 기술개진한 베아링공장에서 생산능률이 1.5배 장성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아침일찍 베아링공장으로 나가면서 아파트현관마다에서 들려오는 녀인들의 웃음소리를 흐뭇한 감정에 휩싸여 들었다.

공장은 얼마전에 나와보았을 때보다 생산실적이 놀랄 정도로 높아졌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간다면 연말까지 계획된 베아링생산은 문제가 없었다.

형범은 생산과에 들려 이달 생산실적을 알아보고 흐뭇한 심정에 휩싸여 가공직장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포도냉쿨을 울려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는 가공직장마당에서는 이른아침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작업모를 움켜쥔 젊은 선반공이 받으려는 소처럼 불만이 가득한 기색으로 직장장과 마주서있었다.

《모두가 돌격하는 때에 휴가받고 잔치까지 하라니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어데 있습니까? 직장장동지! 이거 사정 좀 봐주십시오.》

직장장은 사업수첩에 무엇인가 써넣으면서 고개도 들지 않았다.

《임자,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은적이 있나?》

《그건 왜 묻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구... 난 못된 장난을 하다가 매까지 맞아보았습니다.》

《그래, 매맞은 날 어머니심정이 어떠했나?》

《참, 직장장동지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모릅니까? 그날밤 나는 매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 쉴게 울다가 제풀에 잠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밤깊도록 내곁에 앉아 매맞은 자리를 살펴보며 눈물짓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어머니사랑이 뜨거워 매맞은 아픔대신 어머니를 괴롭힌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엄마품에 와락 안겨 다시는 못된짓을 하지 않겠다고 울면서 맹세까지 다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 어머니가 임자에게 무엇을 바라다면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고 뭐고 있습니까? 난 어머니가 바라다면 당장이라도 쉼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겠습니다.》

니다.》

직장장은 젊은 기대공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가늘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그 어머니이 임자의 결혼식을 잘 차려주라고 하셨네. 공장 가까운 곳에 새집도 지어주고…》

갑자기 직장장은 목마른 사람처럼 말을 더듬거렸다.

《그리고…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이 깊은 직장장의 두눈에는 맑은 눈물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그는 눈만 깜빡거리려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아서인지 머리를 높이 쳐들고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만 문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정치좋은 바다가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보름동안이나 휴양을 하고오라고 하시고…》

《예?》

기대공은 의문이 가득 실린 얼굴로 직장장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당에서 베어링생산전투가 긴장할수록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더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셨다네.》

젊은 기대공은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고 잠시 발끝으로 땅에 금을 긋다가 떠엄떠엄 말하였다.

《쉬겠습니다, 직장장동지! 당에서 걱정하지 않게 푹 쉬고나와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직장장은 한동안 말없이 젊은이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모두 더 힘껏 일하자구.》

형범도 가슴이 뜨거움에 찌릿하여 그들에게서 황황히 얼굴을 돌리고 방향없이 걸음을 내짚었다.

공장정문밖에서는 파란 머리수건을 쓴 윤희가 이동봉사를 하고있었다.

아이 손목을 잡고 출근하던 녀인들이 이동매대 앞에 이르러서는 좋아서 떠들썩한다.

《윤희동무라지?》

《아이, 어떻게 저의 이름을…》

《부지런한 처녀라고 공장에 소문이 자자한데 남새까지 주문받아가는 자기 판매원의 이름도 모를가… 공장속보판에 〈판매원도 한몫!〉이라는 표제 밑에 윤희동무의 이름이 대문짝같이 났어요.》

《어마나.》

윤희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호호…》

바쁜 출근시간이라는것도 잊고 많은 사람들이 남새이동매대앞을 지나며 윤희에게 정답게 인사를 보낸다. 젊은 총각들은 손까지 저어주고… 형범은 사람들속에 묻혀사는 윤희의 더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생각이 깊어졌다.

(그렇다. 사랑과 믿음이 뜨거울수록 보답의 마음은 진실하며 더욱 불타오르는것이다.)

이때 경적소리를 울리며 가두배추며 오이 등 남새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공장정문에 들어서고있었다.

운전칸에서 낮익은 식당책임자가 차창밖으로 어깨까지 내밀고 손을 저어가며 청높은 소리로 말하였다.

《당에서 아이들에게 풋강냉이를 먹이자고 시주변 강냉이밭을 모두 남새상점들에 맡겼다고. 이제부터 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철 신선한 남새만 식탁가득 올려놓을테니 베어링만 짹짹 생산해주세요.》

웃고 떠들며 손저어 반기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밝은 미소가 한껏 어렸다.

공장구내방송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흔들며 울려퍼지고있었다.

…

하늘에 비기랴 그대의 사랑
바다에 비기랴 그대의 은혜
우리는 행복한 당의 아들딸
광활한 미래로 달음쳐가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어

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당들이 많지만 우리 당처럼 어머니라고 부르며 천만이 따르는 당은 없다.

형범은 10년간가이 당사업을 해왔지만 당일 군된 공지를 지금처럼 가슴뿌듯이 느껴본적은 없었다.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새 력사가 사람들의 생활속에 깊이깊이 새겨지고있었다.

공장밖으로 각종 베어링이 들어있는 상자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행렬이 꼬리를 물고 나가고있다.

단조직장쪽에서 북소리마냥 쿵쿵 지심을 울리며 들려오는 프레스의 박동에 걸음을 맞추며 형범은 공장구내길을 걸었다.

열처리로와 소둔로들에서 화광이 충천하고 여러 직장들에서 울려나오는 각종 기계들의 힘찬 동음소리로 공장안이 들끓었다.

형범은 목적없이 흥분된 격정을 안고 끝없이 공장길을 걸고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매혹이 가득차오르고 산악같은 힘으로 용솟음치는 강철기둥과 같은 신념이 천연바위처럼 자리잡고있었다.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 앞길을 비쳐주고있다.

방울소리가 울린다. 행복에 겨운 인민의 노래가 이 나라 강산에 울려퍼지고있었다.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에 대하여서도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송가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바라보는 눈빛

신 문 경

당원증을 품어안고 돌아온 이 저녁
생각에 잠겨 내 말이 없으니
안해는 이윽히 바라만 보고
아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가까이 내가까이 다가와앉고

하건만 내 마음 부여잡고 놓지를 앓는구나
엄숙히 손을 들어 나를 보증하던
세포당원들의 그 눈빛이
마디마디 입당선서를 새겨외울 때
내 마음 붉게 물들이던
성스런 우리 당의 그 기발이

나를 바라보는구나
젊었던 시절의 나의 아버지가
소중히 당원증을 감싸며
나의 머리 쓰다듬으며
뜻깊이 바라보시던 그 눈빛이

나를 지켜보는구나
내앞에 걸어가는 참된 사람들이
걸음걸음 말없이 나를 이끌어주고
헛들세라 손잡아준 당원들의 그 모습이

헛치 앓아라

한가정의 대견한 아들이 되기도
자식들의 눈빛에
훌륭한 아버지로 비끼기도

허나 어이 그에 비기랴
혈연의 집단속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고
우리 당이 사랑하며 남먼저 불러찾는
그런 참된 아들이 되기란...

아마도 그것은 거울과 같이
사람들 누구나 제 모습을
나에게 비쳐보도록 사는것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사람들 자기 생의 열도를 재여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려니

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성스러운 입당선서의 구절구절이여
그 맹세 붉게 타오르는 당기발속에
위대한 당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구나
해살처럼 따스히
이 몸을 감싸안아주는구나

선군시대 병사의 값높은 삶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준 감명깊은 형상

—가요 《장군님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의 가사형상을 두고—

김 성 심

길지 않은 한생을 후회없이, 값높게 살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것이지만 그러한 행복과 영광은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누리게 되는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한편의 노래에서 찾아보게 된다.

시는 곧 생활의 철학이라고 할만큼 높은 철학을 본성적요구로 제기한다. 그것은 문학이 다루게 되는 인간의 운명문제 그자체가 하나의 철학적문제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이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자면 마땅히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가요 《장군님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의 가사 (작사 김영환)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을 때 인간의 값높은 행복도, 영광도 마련될수 있으며 오늘의 시대, 선군시대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사는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지와 자랑으로 된다는 철학적진리를 짚막한 가사에 담아 훌륭히 형상한 작품이다.

1. 전호가에 아침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면
인자하신 그이의 영상 눈에 어려오네
아 행복넘쳐라 총잡은 이내 가슴
장군님가까이엔 내가 산다네
병사가 산다네

작품에서는 선군시대 병사를 서정적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행복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지켜 찬이슬 맞으며 밤을 지새운 병사, 그 병사가 서있는 초소—전호가에 아침노을이 붉게 타오른다. 그것을 바라보는 총잡은 병사의 가슴속에 한없는 행복감이 그득히 차오른다.

그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아침노을이 피여오름은 곧 태양이 솟아오르게 됨을 의미한다. 온 누리를 밝게 비치는 태양, 서정적주인공은 그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우리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과 결부시켜보면서 그이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에 마음 불태운다.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인자하신 영상!

우리 장군님께서도 저 노을을 보고계시겠지. 지금은 또 어느 전선길을 걷고계실까. 혹시 우리들을 찾아 여기 고지로 오르고계시지는 않을까. ...

정녕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고 장군님의 심중에는 우리 병사들이 있기에 병사들은 《장군님가까이엔 내가 산다》고 긍지높이 말하는것이다.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오성산의 험한 령과 초도의 세찬 파도길도 단숨에 넘고 헤치시며 이 세상 한끝 그 어디라도 찾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옵던 그 영광의 시각을 어찌 한시인들 잊고 살수 있으랴.

가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꾸밈새없이 진실하게 노래하면서 우리 장군님 가까이엔 사는 바로 거기에 병사의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것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병사들을 찾아 험한 산, 깊은 강을 넘고 건느시며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선군령장의 병사로 사는 끝없는 영광을 노래하고있다.

2.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쁘다시며
험한 산밭 넘고넘어 찾아주시네
아 영광넘쳐라 총잡은 이내 가슴
장군님가까이엔 내가 산다네
병사가 산다네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 어촌으로 가실 곳도 수없이 많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병사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바로 이 길이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는 길이기에, 바로 이 길에 영광찬란한 승리의 력사

가 기약되어있기에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높은 정신력, 힘에 의거하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진행해나갈것을 결심하신것이다.

오만하기 이룰데 없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을 총대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선군조선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온 세상이 천출위인으로 경탄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장군님을 날에 날마다 몸가까이 뵈옵는 병사들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함축된 사상정서 속에 일반화하여 형상하면서 작품에서는 인간이 지닐수 있는 가장 큰 영광에 대한 시적해명을 주고있는것이다.

가사는 3절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곁에 계시여/용맹의 나래 펴고 위훈 떨쳐가네/아두렴 몰라라 총잡은 이내 가슴/장군님 가까이엔 내가 산다네/병사가 산다네》라고 노래하면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과의 혈연적관계를 더더욱 가슴뜨겁게 구가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병사들이 지닌 무적의 힘과 용기, 담대한 배짱, 그것은 모두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병사들은 용맹의 나래를 활짝 펴고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영웅으로 자라났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전사다.》라고 추상같이 웨치며 단신으로 원썬들과 맞서던 그 인민군전사도, 수천수만의 무적필승용사들도 바로 그 손길아래서 자라나지 않았던가.

투철한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기에 우리 병사들은 이 세상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혁명승리의 한길로 줄달음쳐가는것 아닌가.

가사의 3절은 서정의 절정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필승불패하는 우리 군대의 무한대한 위력이 소리높이 구가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것을 드립없는 신념으로 확고히 간직하고있는 우리 군대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화하고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군대의 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작품에서 이러한 철학적내용은 재인 구성조직과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언어형상으로 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형상되고있다.

가사에서는 우선 구성을 재이게 조직하였다.

첫 두행은 사상감정의 축적단계로 되고있으며 나머지부분은 그것이 폭발하는 단계로 되고있다.

또한 매 절의 감정정서도 서로 련관성을 가지면서 기, 승, 전, 결이 명백히 이루어지고있다.

매 절의 첫 부분만 놓고보아도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병사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언제나 병사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3절에서는 그이께서 곁에 계시여 용맹떨치는 병사들의 모습을 노래하고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행복넘쳐라》, 《영광넘쳐라》, 《두렵몰라라》라고 노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감정정서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값높은 병사들의 삶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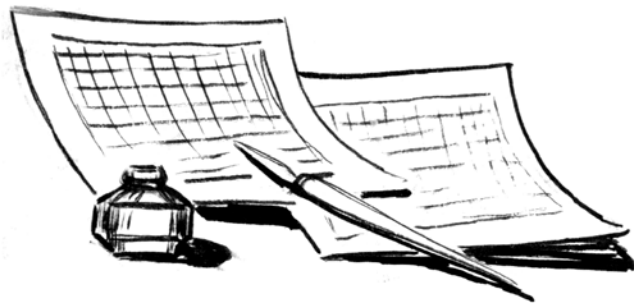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사에서는 소박한 언어형상으로 진실성과 회화적구체성을 살리고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소박하고 부드러우며 진실한 언어형상으로 작품은 높은 서정성과 음악성을 충분히 살리고있다.

가사는 첫 절에서부터 《전호가에 아침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면—인자하신 그이의 영상》이 《눈에 어려》온다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입말투로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다.

또한 3행에서부터는 수사학적감탄법으로 축적된 감정을 직접 토로하면서 《장군님 가까이엔 내가 산다네/병사가 산다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부각시키고있다.

선군시대 병사로 사는 값높은 영예를 노래한 가사는 인간의 참다운 삶은 어떻게 빛나는가 하는 철학적진리와 함께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속깊이 새겨주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명소에 비끼 송고한 조국애

어느해 칠보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내칠보에 있는 승선대에 오르시었다.

그곳에서 바라본 내칠보의 전경은 한쪽의 명화를 련상케 하였다. 농촌가정의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에 휩싸인것만 같은 조선기와집바위도 기묘하였지만 피아노바위주변을 날아에는 산새들의 지저귓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내칠보의 여러 명소들을 차례로 부감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이께서는 이곳에 올라서니 내칠보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고 하시며 우리 조국은 어디가나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었다.

학술연구사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칠보산이 기쁨에 설레이는것 같다고 하면서 명소들에 깃든 전설들을 해설해드리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가 안해와 포옹하다가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는 전설을 안고있는 부부바위를 비롯하여 여러 기묘한 바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한 봉우리를 가리키시며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고 물으시었다.

부처처럼 보이는 천개의 바위들이 층층이 올라서있는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천불봉이라고 부른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그옆의 봉우리를 가리키시었다.

그 봉우리는 만사봉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만사봉은 기묘한 모양으로 하여 그 의미가 여러가지로 해석되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봉우리가 1만마리의 사자가 앉아있는것처럼 보이기때문에 만사봉이라고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1만개의 절간이 있는 모양같기도 하고 또 1만명의 중들이 앉아서 도를 닦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만사봉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술연구사들이 략착을 보지 못한채 해명을 요구하며 남겨둔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알게 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만사봉의 모양을 여러가지로 분석하고있는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에는 1만개의 절간이 있는것 같아보인다는 말이 옳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만사봉의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는 일군들과 학술연구사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떻게 만사봉의 모양을 그렇듯 확신성있게 단언하시였는지 그 깊은 뜻을 선뜻 알수 없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처가 있는 곳에는 절간이 있기마련이라고 하시면서 천불봉옆에 만사봉이 있는데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만사봉이 천불봉옆에 있기때문에 만사봉에서 《사》자는 《절 사》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오랜 세월 안개속에 묻히였던 만사봉!

만사봉의 생김새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철한 가르치심에서 어찌 그이의 백과전서적인 지식만이 빛발친다고 말할 수 있으랴.

거기에는 조국산천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조국애가 보다 더 뜨겁게 어려있다.

만사봉은 오늘도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조국애를 끝없이 전하고있다.

김 동 철

가 사

당이어 그대만을 따르리

김 태 술

따뜻한 사랑의 그 품에 안기여
내 삶의 걸음걸음 행복만 알았네
태어나 첫날부터 검은 머리 희도록
내 인생을 안아준 어머니당이어
아, 그대만을 따르리 내 한생 끝까지

은혜론 사랑의 그 손길 잡고서
내 삶의 자욱자욱 값높이 빛냈네
붉은기 들고서 신념의 길을 가는

고귀한 생을 준 어머니당이어
아, 그대만을 따르리 내 한생 끝까지

선군의 천만리 끝까지 가야 할
내 삶의 순간순간 그 품 없인 못살아
결사옹위폭탄되어 이 몸이 흩어져도
그 품에 영생하리 어머니당이어
아, 그대만을 따르리 내 한생 끝까지

신 평 휴 계 소

최 인 덕

굽이굽이 몇 굽이더나
달궜다 열려지는 첩첩 산밭
오를수록 천하절승
내릴수록 천하절경

열굽이... 선굽이... 더 쫓아서 뺏하랴
아이적마음 굽이굽이에 새겨두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선듯
내 쉬어가자 들린 신평휴계소

로대짚고 떠나온 길 더듬는 사이
이마에 맺힌 땀 어데로 갔나
오호라 푸른 산 푸른 바람에
가뭇없이 사라진 삼복더위

발부리 적실듯 설레이는 남강호수
너 나의 모습만 비꼈나 했더니
나와 어깨 겨룬 신평금강 기암괴석
령넘던 구름도 쉬어가자 내렸구나

금강산 찾아가던 옛 유람객들
예가 금강산인줄 알고 돌아보고 갔다더니
명산을 헛갈렸다고 누가 탓하랴
금강산의 시샘도 아득한 옛말

생각난다 옛적 어느 한 시인이
조선의 금강산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한이 된다 하였거니
그 명산 신평금강이 아닌지

가 사

세 딸을 키울 때는 잔걱정도 많더니
딸이 많아 자랑 많고 딸이 많아 복도 많네
군복입은 우리 딸들 볼수록 대견해
아들 둔 이웃집들 부럽지 않다네
 얼씨구 절씨구 선군시대 잘 만나
 우리 집은 온 나라의 자랑이 되었네

해군병기 날리는 만팔도 곱지만
비행부대 무전수인 둘째딸은 더욱 곱네
장군님 모시고 훈련에서 우를 맞은

명산은 예나제나 명산이건만
가꿔주고 빛내준이 없다면
명산이 명산으로 이름나며
찾는이 없어야 어찌 명산이라

이 령을 넘으시던 우리 수령님
예가 바로 신평금강이라 불러주시며
길넉바투 정각도 세워주시고
남강 막아 호수를 펼쳐주신 신평명소

오고가는 사람들 고향집인듯
려장 풀고 즐거운 휴식 보낼 때
낮으로 밤으로 이 령을 넘으신 우리 장군님
언제 한번 들리셔 쉬신적 있었던가

언제인가 전연으로 가시던 우리 장군님
차창을 열고 바라보신 신평휴계소
차안에 가득 싣고 가신
유람객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언제면 들리시랴 우리 장군님
기다림의 처마는 하늘이 되고
기다림의 뜨락은 강토가 되고
기다림의 호수가 바다가 된 신평휴계소여!

아 마식령 아흔아홉 굽이굽이
길넉의 한포기의 꽃 바위 하나
마음속에 소중한 정든 길이건만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엔 휴식이 없구나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 휴계소가 없구나

딸 자 랑

리 명 옥

고사포병 막내딸은 장하기 그지없네
 얼씨구 절씨구 선군시대 잘 만나
 우리 집은 온 나라의 자랑이 되었네

우리 집 뜨락은 넓지는 않아도
하늘땅 바다초소 다 이어져있다네
륙해공군 딸자랑 동네방네 소문높아
아들가진 집들마다 머느리로 삼자네
 얼씨구 절씨구 선군시대 잘 만나
 우리 집은 온 나라의 자랑이 되었네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올해 8월 조선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국립연극단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재창조한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심서몽, 막안, 려흥신 집체창작)을 보아주시었다.

이 연극은 지난 세기 1960년대 중국에서 창작 공연되었다.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이 연극을 력사적인 중국방문의 나날에 주은래총리와 함께 두차례나 보아주시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창조하여 공연하도록 해주셨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2(1963)년 10월 우리나라의 국립연극단에서 창조한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을 친히 보아주시고 자본주의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새 세대 청년들과 군인들의 교양에 좋은 작품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것은 문학창작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60년대에 우리 나라 국립연극단의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창조공연정형을 여러차례 지도하여주시였으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수십년전에 창조공연되였던 사연깊은 이 연극을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하여 《조중친선의 해》인 올해에 널리 공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연극에서는 해방된 상해시에 주둔한 긍정인물들인 중국인민해방군의 로화(중대정치지도원), 로대성(중대장), 홍만당(취사분대장), 조대대(분대장)를 비롯하여 적대인물들인 두목K(국민당 특무두목), 라오치, 곡만려, 웨이웨이 등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번쩍거리는 양풍의 영향하에서 총잡은 군인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는가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로대성의 중대가 갓 해방된 상해시의 남경로를 지켜나갈데 대한 군사임무를 받게 된다. 이때 미제의 지시에 따라 암해, 파괴공작을 꾀하는 라오치를 비롯한 국민당특무놈들은 《공산당빨갱이》들이 《향기로운 바람》앞에 석달이 못 가서 이 남경로에 빠드러지고말것이고, 곰팡이가 쏘고 썩어문드러지고말것이라고 악에 받쳐 떠벌여댄다.

간악한 일제와 국민당반동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혈전에서 언제나 용감하고 승리만을 떨쳐온 인민해방군이 이번에는 사치와 향락, 부패와 방탕으로 어지러운 거리, 밤이면 거리에서 자즈가 울리고 구석구석에서 온갖 범죄가 끊임없는 부르조아대도시와 맞다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것처럼 용감하던 인민해방군의 일부 군인들속에서 평화로운 분위기에 계급적각성이 무디여지고 원쑤들의 꾀임에 넘어가 양풍의 시궁창에 빠져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것은 로화와 홍만당 등 건실한 혁명가들에 의하여 극복되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군복을 벗어버리고 부대를 뛰쳐나갔던 신입대원 동아남도 적들의 간교한 계교에 말려들어 곡절을 겪고 누이동생까지 잃을번 하는 봉변을 당하면서 계급의 무기를 놓은 자기의 운명이 어떤 위기에 빠지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

연극의 마지막부분에서 로화는 우리는 지난 1년동안에 적지 않은것을 배웠다고, 우리가 알게 된것은 혁명전쟁이 승리했다고 하여 계급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앞에는 아직도 준엄하고 장기적인 계급투쟁의 임무가 놓여있다고, 동무들이 조선으로 떠나가고 우리는 남경로에 있어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즉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이라고 말한다.

연극에서 로화의 말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향기로운 바람》에 물젖으면 승리한 혁명도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과 함께 혁명을 끝까지 하려면 언제나 계급적각오가 투철해야 하고 계급투쟁의 무기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관중들에게 안겨준다.

실로 46년만에 우리 나라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 사연깊은 연극 《네온등밑의 초병》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 더우기 청년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 굳건히 지켜가도록 고무하는데서뿐만아니라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한 철 옥

어머님의 혁명력사가 빛나는 땅에서

—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고 —

김 춘 길

력사의 땅 연사!

올해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력사의 땅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을 찾으시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나로 하여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력사를 취재하기 위한 길에 오르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입니다.**》

우리 일행이 평양을 떠나 유서깊은 력사의 땅 회령을 돌아보고 연사땅에 도착한것은 6월 중순의 어느날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다.

우리를 안내하여 평양의 옥류관 못지 않다는 연사국수집에서 식사를 시킨 후 이곳의 한 일군은 하늘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기 전에 연사땅의 하늘에서는 신기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 새날이 희뵈히 트는것과 함께 굉장하 큰 포도송이구름들이 연사의 하늘에 두둥실 떠돌았고 우리 장군님께서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는 사이에 보슬비가 땅을 축축히 적서 먼지 한점 일지 않는 읍거리로 장군님께서 들어서시었다는것이다.

《아마 장군님 따르는 연사인민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천지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위인을 따라 천지조화가 일어났는지...》

말끝을 맺지 못하는 그에게 우리는 기묘한 자연현상이 우리 장군님을 따른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사를 다녀가신 다음날 보내주신 사랑의 강사용소형빠스를 타고 상단산혁명전적지를 찾았다. 그전에는 답사생들과 강사들이 전적지해설강의를 위하여 점심밥을 싸가지고 걸어서 참관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던 하루길을 위대한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빠스에 앉아 단숨에 올랐다. 그 누군가가 빠스가 아니라 《비행기》라고 명명하자 일동은 유쾌하게 웃었다. 해발고가 거의 1 400m인 상단산. 지명유래를 묻는 우리의 물음에 강사는 산우에 류달리 단풍나무가 많다고 하여 상단산, 또 산우에 많은 나무가 울울창창한 밀림을 이루고있어 많을 《다》자를 써 상다산이라 하던것이 어음변화로 상단산이 되었다 한다. 정말 둘러보니 빼곡이 둘러싼 가문비나무들이 하늘을 떠받칠듯 대밀림을 이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셨던 그날 해설강의를 맡아하였던 강사동무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상단산립시비밀근거지 진출에 대한 종합해설강의를 하였다.

《우리 상단산립시비밀근거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주체33(1944)년 7월과 조국해방을 두달 앞둔 주체34(1945)년 6월에 오시여 전민항쟁의 불길을 지펴주신 뜻깊은 력사를 전하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상단산립시비밀근거지에 먼저 진출하시여 반군사조직지휘성원들의 회의준비를 하시였으며 주체34(1945)년 6월 상단산립시비밀근거지에 오신 수령님께 동해안일대의 실태와 회의준비정형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하시였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력사적회의에 참가하신 어머님의 뜻깊은 사적들이 어려있는 상단산.

강사의 뒤를 따라 가파로운 산길을 따라 내리는 우리의 눈앞에는 그날에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이 쓴 구호나무들이 안겨왔다.

《조국광복 13도회합소 지도자 **김일성** 김정숙 사회 1944》, 《2천만 민족아 백두산의 장수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 만세 만만세》...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심장을 짹 틀어잡았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밟아보신 로정대로 사령부귀를집자리, 샘물터, 불무지자리, 숙영지자리를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과 어머님께서 두차례나 다녀가신 이 전적지를 돌아보시며 참으로 뜻깊은 곳이라고 어머님의 혁명력사가 어려있는 력사의 땅이라고, 거듭 거듭 말씀하시였다 한다. 그리고 우리 수령님과 어머님은 조국이 해방되기 한두달전까지 국내에 오시여 각계층 인민들을 항일대전으로 불려일으킨 전설적영웅, 희세의 영웅이라 하시며 그 력사적공헌은 조국청사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한 당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 홍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대표들이 왔다고 하는데 전적지를 잘 보존하여 누구나 다 와보게 하여야 한다고, 연사혁명사적판이나 보아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어머님의 장구한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역사를 다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답사생들을 위한 배스를 10대, 강사용소형배스 1대를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그날의 우리 장군님 모습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젖어있었다.

속연히 걸음을 옮기는 우리에게 강사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울울창창한 밀림을 바라보시며 오가산 못지 않게 나무가 많다고 거듭 거듭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하늘을 치뿔듯이 자란 가문비나무, 금시라도 그속에서 사나운 맹수가 뛰어나올듯싶었다. 우리의 이런 심정을 알아서 인지 강사는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상단산에 무슨 짐승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었다고 한다. 동행한 한 일군이 곰과 노루, 사슴, 토끼를 비롯한 여러종의 짐승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다른것은 몰라도 곰이 있다는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어 일동이 경쾌하게 웃었다고 한다. 그러시면서 공기가 참 좋다고, 평양에서는 이런 공기를 맛보기가 참 힘들것이라고 하시며 연사국수맛이 어떤가고 하셨다고 한다. 주체34(1945)년 6월 전국생산유격대, 노동자돌격대 지휘성원들의 회의가 진행된 장소는 상단산정점에서 2km아래에 위치한 곳이었다. 주체33(1944)년 8월에 창설된 립시비밀근거지 훈련소는 각이한 명칭의 행동대, 결사대, 무장단체성원들을 받아들여 2~3달동안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던 뜻깊은 곳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여기에 먼저 나오시어 훈련생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고 부족점들을 일깨워주시었으며 다음해 6월 여기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제강과 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고 조국해방위업을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앞당기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훈련생들의 병실, 샘물터, 빨래터를 돌아본 다음 우리는 한쪽의 그림앞에서 멈춰섰다. 주체34(1945)년 6월 전국반군사혁명조직지휘성원들의 회의가 진행된 그날의 모습이 유화로 재현되어 눈앞에 안겨왔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일체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자는 우리 수령님의 음성 이 들리는듯싶었고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구성 이시라고, 장군님을 따라 일체격멸의 성전에 힘차게 뿔쳐나서자고 호소하시는 어머니의 그날의 모습을 뵈옵는듯싶었다. 그날의 그 회의장소를 립중하듯 구호나무굴발들이 안겨왔다. 《2천만은 인 조선독립 **김일성**대장 만세》, 《2천만 동포여 만대에 전하자 백두산 항일녀장수》...

상단산을 내려 사지봉혁명전적지로 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안겨왔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한 몸그대로 방패가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 전략적구상의 돌격선에 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시시각각 원쑤의 총구가 뒤따르고 아슬아슬한 위

험이 생명을 노리는 조국땅 연사로 나오시어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강의한 혁명정신이 우리 눈앞에 어 려왔다. 어느덧 차는 사지봉혁명전적지에 와닿았다. 사지봉, 옛날엔 사자봉이라고 부르던것이 어음변화로 사지봉이라 부르는 이 전적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부일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오시던중 제일먼저 찾으신 곳이었다.

강사는 말하였다.

《사지봉혁명전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국내당공작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곳으로서 오늘날 당대회와 같은 큰 규모의 회의가 진행된 역사적의의가 뜻깊은 곳입니다.》

주체28(1939)년 8월 15일 사지봉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7련대, 8련대, 경위중대를 이끄시고 조국땅 연사일대로 진출하신 력사의 땅. 그때에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조직 성원들이 쓴 구호나무를 보며 우리는 안굽혁명전적지를 찾았다. 안굽이라는 말은 그때 흐르던 연사강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여 안굽이라고 하면서 강사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사적비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이미전부터 깊은 연고관계가 있던 집주인인 윤경환동지는 어머님의 지도밑에 자라난 혁명가였으며 연사지구 혁명조직책임자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자주 이 집에 오시어 연사지구 혁명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의 사적이 그대로 어려있는 혁명사적표식비의 굴발을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부엌과 아래방, 옷방을 차례차례 돌아보신 우리 장군님. 그때 당시 집주인이 어머님께 당콩을 섞은 좁쌀밥에 산나물무침과 고추장이 전부인 검소한 저녁식사를 어머님께 따로 차려올리려 하자 굳이 사양하시며 이 집 식구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시었다는 강사의 해설을 감명깊게 들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팎에는 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불탔다고 한다. 그 그리움을 안고 귀틀집의 안팎을 살펴보시고 이 력사의 집에서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동행한 모든 일군들과 찍어주시었다고 하는 강사의 눈시울도 뜨겁게 젖어있었다.

안굽혁명전적지를 돌아보고 읍거리로 차가 들어서자 강사는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였던 그날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먼지 한점 일지 않는 연사읍에서 연사혁명사적관을 중심으로 특색있게 꾸려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구색에 맞게 아담하게 일떠선 다층 살림집들, 문화 및 후생시설들... 한쪽의 그림같은 연사읍정경을 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대단히 만족해하시었다고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항일의

우리는 취재수첩을 펼쳐 놓았다. 우리
어머님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전사로서의 어머님의 한생애에 대하여, 조국과 인
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머님의 애
국헌신에 대해 길이 전하여야 할 성스러운 작가
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자한자 시의
구절을 쫓아새기며 현실체험의 길을 계속 이
어나갔다.



어머님의 다심한 손길 꾸려놓은 박우물이
내 마음 티없이 닦아세우누나

생각에 젖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맑은 샘우에 어려오는 매혹의 미소
하늘 한점 아니 보이는 이 밀림속에서도
나는 어머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워라

그 손길
그 미소에 이끌려 한사람한사람
젊으나젊으신 사령관동지앞에서
눈굽을 닦으며 붉은기폭에 안겨
조국해방의 결사대로 태어났거니

이런 순간을 보고싶어
이런 날의 기쁨을 보고싶어
상단산마루에 오르신 어머니
아무리 자신의 한몸 힘겨우실 때도
진대를 타고넘어 한자옥
강대를 짊고서서 또 한발자옥
그 자옥자옥에는 오직
조국, 인민, 광복에 대한 생각만을

인찍어오신 어머니이셨거니

오, 상단산
어머님의 이름과 더불어 불러보는
력사의 산아
이 조선을 받든 만년초석의 굳건함이
네 품에 있고
이 조선의 앞날을 이어주는 순결함이
청청 푸른 네 품에 있으니

너 고이 품어다오
너 굳게 지켜다오
눈바람 휩쓸면 눈바람을 막고
광풍이 밀려오면 광풍을 맞받아
너 성벽이 되고 지붕이 되어다오

조국해방전야의 우리 당 력사 한페이지를 지켜
총대숲을 자래우며 솟아있는 상단산
천만년 세월에도 변치 않을
푸르름이여
이 한몸도 여기 뿌리 내려서
너의 한그루 수호신 되고싶노라

상단산마루에서

전 승 일

울창한 수림을 떠인
상단산마루에 오르시여
태고의 락엽을 자옥자옥 밟으시는
장군님 심중속엔 일어번지셨더라
거세찬 백두산의 폭풍이

어찌 알았으랴 그날에는
조국해방의 위업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한치한치 조국으로 왔는지
가슴 두드리며 다 말해주는 상단산

한시도 한초도 미룰수 없는
조국해방으로 오는 길이였기에
《칠통》의 국경경비진을 뚫고
원췌의 아성에 마지막불을 지를
여기 상단산에 오르신
수령님과 어머니가 아니시었던가

누구도 몰랐더라
온 겨레가 울며 웃으며 맞이한
수령님과 어머니의 자옥자옥이

바로 조국해방의 두달전
목숨 내대야 하는 여기 조국땅 피부리에
이미 력력히 찍혀졌던것을

숙영터며 우등불자리
훈련장이며 샘물터...
상단산 불멸의 전장들을 굽어보시는
장군님 마음속엔
다시한번 백두산의 퇴성이 노호했거니

어떻게 찾아주신 이 조국이더냐
어떻게 떨쳐가야 할 나의 조국이더냐
수령님과 어머니의 피타는 념원을
백두산의 신념처럼 다시한번 새겨보시는
상단산 뜨거운 상단산

아아 잠들줄 모르는
백두산의 폭풍을 안으시고
처억 처억—
장군님은 상단산을 내리시였다
준엄한 전선길로 또다시 굽이쳐달리시였다

몸소 조직하신 뜻깊은 당소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신파지구에 첫 당조직을 결성하신것은 당건설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쌓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가 조직된 후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신파지구에서는 그 하부조직망들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한편 대중정치사업과 유격대원호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정은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조직의 결성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인 주체26(1937)년 6월 어느날이었다.

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신파에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신갈파지회의 여러 성원들을 어느 한 곳에 모이게 하시였다.

그들이 도착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다운 음성으로 《동지들!》하고 부르시였다.

어느때없이 숭엄히 들려오는 백두산녀장군의 음성은 조직성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높여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친근한 시선으로 둘러보시고나서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신파지구에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직성원들은 삼시에 엄숙한 자세를 취하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어제는 갈길 몰라 헤매이던 자기들을 조국광복회 산하조직의 한 성원으로 내세워주신 김정숙동지.

그런데 오늘은 또 혁명투쟁의 전위조직인 당조직의 첫 성원으로까지 되게 하여주시니 그이를 우러르는 조직성원들의 가슴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울렁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감격에 젖어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신파지구에는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와 분회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있다, 그리고 멀

지 않아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지하조직들이 새로 나오게 될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신파일대의 혁명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고 정치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당조직의 결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조직성원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신파지구에 나오시여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그이의 업적을 돌이켜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임에 의하여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을 받들고 신파지구에 조국광복회 산하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또 그 과정에 단련된 동지들로 신파지구에 첫 당소조를 결성한다는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신파지구의 첫 당소조, 그 조직의 첫 당원으로 되였다는 생각으로 하여 조직성원들의 걱정은 끝없이 북받쳐올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첫 당소조의 결성을 선포하시고나서 당소조의 명칭을 신파지구당소조라고 명명하여주시였다. 계속하여 백두산녀장군께서는 신파지구당소조가 해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날 모임을 결속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며 조선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변심없이 잘 싸우자고 강조하시였다.

국내의 당조직인 신파지구당소조는 이렇듯 김정숙동지의 능숙한 조직력과 불면불휴의 활동에 의하여 결성되게 되었다.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신파지구에 나오시여 당소조를 결성하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 건설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빛나고있다.

수 필

낮익은 고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

리 희 남

나는 많이 걷고 많이 다닌다. 조국땅 방방곡곡 많이 다니느라니 낮선 땅, 낮익은 고장에 대한 감정도 많이 체험하군 한다.

처음 가는 낮선 땅인데도 생소한 느낌이 전혀없이 여러번 다녀본것처럼 친근감이 안겨오고

정감이 느껴지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번 다녀온 낮익은 고장인데도 처음 오는 곳처럼 모든것이 새로운 느낌을 주는 땅이 있다.

이번에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을 때 나는 류다른 흥분으로 하여 마치 새로 발견한 전적지에

처음 들어서는 사람처럼 새롭고 류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무산땅에 살면서 여러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곤 하던 연사땅이어서 나에게서는 이미 구면지기처럼 느껴지는 친근한 곳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새롭고 류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키는걸까.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연사지구 혁명전적지의 곳곳을 돌아보며 그 답을 찾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이의 성스런 체취와 숭고한 뜻을 느끼게 되었던것이다. 그것이 바로 낯익은 고장이면서도 새로운 감회와 새로운 충격을 자아내는 새로운 생각을 낳게 하였다.

전적지의 모든것이 이전에는 느낄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을 튕겨주며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었다.

어찌나 의미심장한지 밀림을 뒤흔드는 바람소리에조차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한그루 나무, 하나의 돌, 한줄기의 바람결에서도 불멸의 자욱을 되새겨보게 되는 전적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많은 구호문헌들을 하나하나 굽어보시며 물매가 급한 참관길을 몇번이고 오르내리시였다.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거쳐하시며 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을 관찰하기 위한 정치공작활동을 벌리신 안골마을의 한 조직원의 집앞에 이르시어서는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어머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날의 《사향가》를 조용히 음미해보시는가, 아니면 사령관동지를 따라 조국해방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절절히 일깨워주시던 어머님의 그날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산천을 둘러보시며 70년전 그날 사랑하는 조국땅에 나오시여 혼성림이 우거지고 산새들이 우짖는 이곳의 통선길과 숲속의 오솔길을 걸으시면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고, 조국의 향취가 은은히 안겨온다고 감개무량해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자애깊은 그 모습을 떠올리는듯 하시였다.

어느덧 우리 장군님의 안광에는 뜨거운것이 비껴흐르고있었다.

흘러간 력사가 맥맥히 고동쳐오는 참으로 숭고한 시각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님의 체취가 뜨겁게 스며여있는 이 력사의 집앞에서 길이길이 전해질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김정숙어머님께서 전민항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상단산비밀근거지에 오르시여 사방천지를 둘러보시며 참으로 불멸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백두산줄기에서 뿜어내린 연사지구의 높고낮은 산발들이 우줄우줄 키통음하며 한결 선명하게 솟구쳐오르는듯 했다. 맑게 흐르는 연면수도 세차게 굽이치며 계곡을 뒤흔들었다.

나는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분명 이 력사적인 땅에서 어머님과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시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힘을 받아안으셨을것이라고.

이 땅에 깃들어있는 우리 수령님과 어머님의 숭고한 념과 심원한 정신세계를 심장속에 새기며 영원히 백두산의 아들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맹세를 다시 한번 엄숙히 다짐하셨을 경애하는 장군님!

그렇다. 나는 걱정속에 느끼게 되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안겨오는지 그 변화를 깨달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이렇게 넉넉이 우리 인민들에게 백두산위인들의 뜻을 새겨주시고 혁명전통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주시며 푸르청청한 백두의 기상을 심어주신다.

그리하여 우리 천만군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할 줄 모르는 새로운 활력과 청신한 기상을 받아안고 전진한다. 백두산위인들의 념을 자나깨나 가슴에 안고살려는 비상한 정신적인 승화를 체험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위대한 전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변이 나는 해에 우리 천만군민이 살고있지 않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이 다녀가신 곳곳을 찾을 때마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받아안으며 새 세기의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인간대군으로 자라고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면서 유서도 깊은 낯익은 이 고장이 왜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드는지 다시 한번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날 알 의 향 기

세계문학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로동 계급의 수령형상창조사업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으며 무게있는 명작들을 써낸 선배작가들은 더 말할것 없고 나처럼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뒤늦게 들어선 작가들도 할 말이 많고 글로 쓰고싶은 이야기가 허다하다.

하지만 나는 이 짧은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중에서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내용만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토지개혁, 농업협동화, 대규모 사회주의집단경리의 발전 등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령도업적을 총서에 다 담아 력사에 남기도록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였다. 그리하여 먼저 토지개혁을 취급한 장편소설 《조선의 봄》이 창작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시기의 령도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을 써낼 과업이 뜻밖에도 나에게 차례질줄이야.

내가 아직 작가로서의 걸음마를 떼기 전에 벌써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창작되고있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나의 당황함과 동시에 가슴을 짝 채운 흥분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을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

현역작가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창작려전을 농촌으로 잡았다. 그리하여 농촌들에 나가 현실체험을 하면서 단편소설들과 《세대》, 《향토》 등 중편소설들을 편이어 써냈다. 한 20년간 이렇게 주로 농촌주제의 소설작품을 쓰며 자신심을 얻은 나는 그간의 창작을 총화하는 의미에서 장편소설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의 장편소설을 써야 하겠는가?

나는 농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형상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몇달을 고심했다. 한것은 내가 현지체험을 한 농촌 그 어디서나 우리 수령님의 령도와 사랑의 발자취를 볼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주체농법도 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무릎을 같이하시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내놓으신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비내리는 날과 함박눈이 쏴

아지는 날을 가림없이 농민들을 찾아 찬바람부는 들길을 걸으시였으며 무겁게 고개숙인 벼들이 짙들어찬 논배미들에서 구수한 낱알향기를 맡으시며 농민들과 함께 풍작의 기쁨을 나누시였다.

처녀관리위원장의 잔등을 두드려주시며 아주 잘했다고, 령상모를 잘 낸 경험을 정치위원들앞에서 토론하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나 어린 농업일군을 정치위원회에 참가시켜주시였으며 어느 가을 날에는 모범농민에게 담배를 권하시고 불까지 붙여주시며 그 농민에게 올해 작황이 어떤가고 따듯이 물어주시고 《수령님덕에 제 생전 이런 대풍을 처음봅니다.》 하는 대답에 더없이 만족해하시였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을 장편소설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문제였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고쳐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안될 말이다. 올라 못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했다는 그런 낡은 관점을 버리고 한번 대담하게 써보자.

그러던 어느날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로서 농업협동화를 승리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이었다.

나는 너무도 감격하여 온몸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

그러나 정작 창작에 달라붙고보니 내가 처음에 한 걱정과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수령형상창조사업은 최대의 능력과 실력, 고도의 긴장과 투신을 요구하는 소설창작의 가장 어렵고 높은 령마루였다. 하지만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뜨겁게 생각하며 작품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이 창작 완성되었다.

그로부터 두편의 장편소설을 더 쓴 이후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또 창작하게 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청산리지도로 통하여 사회주의체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의 새 환경에 맞게 당, 국가, 경제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으며 대규모 사회주의집

당 창 건 기 념 략

김 일 규

온 누리에
새 아침의 해빛을 뿌리는
광명의 탑인가
거대한 거인의 주먹들이
날마다 새날의 태양을 받들어올리누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력사의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엄숙히 선언하는 탑앞에서
누구나 자기 운명에 비끼
어제와 오늘과 래일을 보노라

짓밟히고 억눌리던
수난기의 세월을 쳐갈긴
탑이여
너는 너무나도 기운차다
너는 바라보기조차 환희롭구나

비껴든 주먹주먹에
높이도 들린것은
다만 로동의 도구가 아니여라
너는 세계의 개척자
너는 세계의 창조자
너는 자기 운명의 주인인
우리모두의 모습

이 략에는 숨결이 있다
한번 안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의 숨결이
이 략에는 열도가 있다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
향기를 터치게 하는
인간사랑의 뜨거운 열도
태양의 빛이 있다

그 빛과 열도로
령도자와 인민이
마음과 마음을 맞추고
뜻과 뜻을 합치노라
그 빛과 열도로
쇠물을 녹이고 난알을 키우며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하나의 혈맥을 잇노라

오, 당창건기념 략
무궁한 세기와 더불어 떨칠
조선의 신념과 의지의 탑이여
너는 세월의 한계를 넘어
조선이 터치고 또 터칠 승리의 환호를
주먹주먹에 거머쥐고있도다

단경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이 력사적인 업적을 형상하여야
우리 수령님께서 농업발전에 쌓으신 령도업적이
총서에 또 반영되게 되는것이다.

이 장편소설의 창작방향에 대하여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밝혀주시였다.

나는 이 명확한 방향에 따라 구상을 하고 집필
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쓴 장편소설들 못
지 않게 고심어린 탐구를 해야 했으며 어려운 고
비들에 맞닥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높은 각성과 정신적양
양이 없었더라면, 집단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장편
소설 《청산별》창작은 완성되지 못했을것이다.
특히 수령형상창조사업은 작가로서의 나의 성장과
정이었다.

몇해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흡한 나의 창
작성과를 평가하시여 《김일성상》계판인으로 내

세워주시였다.

작가로서 나는 영광의 절정에 올랐다. 하지
만 이 크나큰 은정과 사랑앞에서 나는 황송함과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 나는 이 크나큰 영광을
우리 장군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혁명의 붓대를
더 높이 추켜들고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명작을 창
작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도록 고무격려해주신 값
높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였다.

…청산리지도가 있는 해 가을 청산별에 나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풍년든 논벌에서 난알의 향기
를 맡으시며 기쁨에 겨우시여 흥겨운 노래를 부르
시면서 논쪽길을 걸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기
쁘게 해드린 그 난알향기는 오늘도 계속 풍기고
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와 사랑속에서
계속 더 진하게, 더 향기롭게 풍길것이다.

우리들이 할 일은 더욱 많아지고있다.

김 삼 복



안 명 국

꽃계절이었다.

신록이 질어가는 모란봉에는 가지가지의 꽃들이 다투어 망울을 터치며 짙은 향기를 뿜어올리고 있었다. 봄을 맞은 못새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포롱포롱 날아며며 명쾌하게 지저귀었다. 자연은 온통 환희와 물동으로 충만된 아름다운 선물을 연주하고 있었다.

풍만하고 활기로운 무아경의 세계에서 환기된 정서를 그들먹한 감흥속에 받아들이며 ××도예술단 작곡가 문영희는 자기가 새로 창작한 교향곡의 선율을 음미해보고 있었다. 혹 미흡한 점은 없겠는지...

최종시연회를 앞두고 숲속길을 거니는 그의 눈앞에는 백두산지구건설장에서 할머니의 작품을 기다리고있을 손자의 모습이 어려왔다. 어제도 밤늦어 지휘자와 형상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었다.

《...할머니, 지금 우리 동무들은 할머니의 교향곡을 하루빨리 듣고싶어해요.》

백두산의 눈바람에 다듬어진 손자의 목소리는 듣기에도 대견스러웠다.

《그래?!... 래일 최종시연회를 한단다.》

문영희는 부드럽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한생을 작곡가로 살아온 그가 생의 말년에 가요 《승리의 길》을 주제로 교향곡을 창작하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였다.

문영희의 시부모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백두의 길을 헤쳐온 혁명의 첫세대였다.

그는 자기의 시부모들이, 우리 혁명선렬들이 헤쳐온 혁명의 길,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그 길에 어려있는 만단사연들을 선물에 담아 후대들에게 남겨주고싶었다. 그들이 선렬들이 지녔던 그 넋을 이어안고 혁명의 한길을 한생토록 변함없이 걸어가는데 이바지할 그런 곡을 짓고싶었다. ...

《선생님, 시연회시간이 되었습니다.》

극장안내원처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문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처녀와 함께 극장으로 향했다.

시연회에 참가할 문화성과 예술단체의 관록있는 창작가들과 인사를 나누고난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드디어 신비로운 음색으로 추억의 금선을 흔들어주는 어은금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여기에 합쳐져 점점 더 고조되는 바이올린군과 첼로군의 설레임소리가 항일의 옛전장으로 시연회참가자들을 이끌어갔다. 문득 정적이 깃드는듯싶더니 바이올린독주의 독특한 선율이 목숨을 내걸고 넘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의 고비들, 때로는 가슴 에이는 희생도 이겨내야 했던 그 길에 새겨진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펼쳐여준다.

문득 울리는 랑랑한 나팔소리는 눈보라 사납게 울부짖는 천고의 밀림을 헤치며 걸음걸음 피어린 자욱을 새겨가는 혁명군대오에 울리던 진격의 나팔소리인가... 이어 전장을 뒤흔들던 멸적의 불벼락소리, 만세의 합성소리인듯 팀파니를 비롯한 타악기들의 장중하면서도 호탕한 울림을 타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도도히 흐른다. 시연회참가자들은 작품의 세계에 깊이 잠겨들었다.

문영희는 이제는 몇백번도 더 곱씹어 음미해보았을 노래의 가사를 조용히 더듬어보았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흘린 피 붉은기에 있고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욱이 있다

...

손자는 할머니가 왜 이 교향곡을 창작하게 되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다.

장중한 선율은 계속 흐르고있었다. 그 선율을 타고 손자에게 보내는 문영희의 심장의 목소리도 울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꽃꽂이 걸어온 혁명선렬들의 발자국 소리들이...

《서라!》

야무진 총성이 고요한 밤대기를 찢으며 울렸다.
뒤따르는 어지러운 발자국소리...

월봉은 왜놈국경경비순찰대의 추격에 헤덤비며 뒤따르는 시누이를 부축했다.

《어서 뛰어요.》

옥순을 힘껏 떠밀던 그는 비칠하며 물속에 어푸러졌다. 덤벼치며 달리던 옥순이도 물속에 나딩굴었다. 머리위로 총탄들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총탄들이 주변에 와 박히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형님!》

당황한 흐느낌이 월봉의 귀전을 쳤다.

월봉은 물속을 더듬는 옥순을 일으켜세웠다. 얼마쯤 물을 차며 달리던 월봉은 또 물속에 덩굴었다. 다시 일어나 내달렸다. 물에 폭 젖은 치마자락이 다리에 휘감기며 다급한 걸음을 방해했다.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그는 등에 업은 소금자루를 만져보았다. 무사했다. 물흐르는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월봉은 앞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힘을 내어 달렸는지 먼저 강을 건너간 시누이가 산으로 다가붙는것이 어둠속에서 어렵듯이 보였다.

월봉은 힘껏 내달렸다. 수없이 튕겨나는 물방울들이 그의 얼굴에 휘뿌려졌다. 떠나온 강기슭에서는 총성이 계속 울려오고있었다. 차츰 발을 놀리기가 힘들어졌다. 목구멍에서는 겨불내가 치밀어올랐다. 수림속에 들어서자 조금 숨이 나갔다. 가슴을 들뜨우는 가쁜 호흡이었다. 아릅드리 참나무에 몸을 기대고 숨을 튕던 옥순은 월봉이 올라오자 가랑잎이 깔린 나무밑에 풀썩 주저앉았다.

《무사했군요. 형님, 다행이에요.》

월봉이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총소리도 점점 해지고 수림속에는 고요가 스며들었다.

《그런데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눈길을 들어 월봉을 쳐다보는 옥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었다.

《왜 그래요? 누이, 총에 맞은게 아니예요?》

옥순은 월봉의 젖은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흑흑 흐느끼기만 한다.

당황한 마음으로 시누이를 위로하던 월봉은 그의 잔등에서 마쳐오는 허전한 촉감에 손을 멈췄다. 월봉은 그가 강물에 어푸러져 물속을 더듬거리는것을 떠밀어보냈던 일을 상기했다.

(그러니 소금자루를... 그게 어떤 소금이라고...)

눈앞이 캄캄했다.

한동안 맥없이 앉아있던 월봉은 방금전에 건너온 두만강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쪼갯달빛에 드

러난 강에서는 방금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나싶게 무심한 물소리만이 소연하게 울려왔다.

월봉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띠개를 풀었다. 아이를 업고 남편들을 찾아가는 녀인들로 위장하기 위해 천으로 갓난아이모양의 인형처럼 만들어 등에 업었던 물먹은 소금자루가 띠업우에 떨어졌다. 소금자루를 어루쓰는 그의 손으로는 물에 녹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있었다.

월봉은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키었다.

그렇수록 미여져오는 아픔을 참아내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는 물기가 촉촉히 고인 눈을 습벅였다.

그 소금은 결코 가정의 살림살이에 필요해서 가져가는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혁명앞에 지냈던 마지막임무였고 월봉에게 남기고 간 부탁이기도 했다.

사흘전 새벽이었다. 광산조직에서 구입한 화약을 가지러 떠난 남편을 기다리던 월봉은 자정이 넘어서야 혼곤히 잠에 들었다.

그는 탁탁 장작불 튀는 소리에 차츰 정신을 차렸다. 월봉은 살뚫이 눈을 떴다. 부엌아궁이에서 비쳐오는 불빛에 얼른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바로잡으며 아래목에서 일어나던 그는 새벽동자질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놀라운 눈길을 보냈다.

《췌!》

언제 돌아왔는지 남편은 들었던 가마뚜껑을 조심히 닫으며 손을 입가에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다. 간밤에도 그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월봉은 광산에 갔던 일이 잘 되었음을 직감으로 느꼈다. 그는 치마의 끈을 조이며 소리없이 부엌으로 내려갔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그는 아궁에 장작을 넣는 남편 봉철의 곁에 다가앉으며 나직이 물었다.

《응, 방금 들어서는 길ियो.》

봉철은 헉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갓딘 일은 잘된 모양이지요?》

《잘됐소. 광산조직동무들이 정말 수고했더구만. 요즘 왜놈들의 감시가 더 심해졌는데 그속에서 화약을 빼낸다는게 어디 쉽소.》

《조심하세요. 왜놈들과 밀정놈들이 살판치는데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걱정마오. 그깟 놈들.》

봉철은 월봉의 어깨를 다독여주고나서 장작을 아궁안으로 밀어넣었다. 이깁나무장작은 탁탁 소리를 내며 기세좋게 타올랐다.

《그런데 공청조직에서 연락을 보낸 옥순인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예, 오늘쯤은 돌아오겠는데…》
너울거리며 타오르는 불길을 들여다보던 봉철이 물었다.

《참, 어제 배우던 노래를 마저 배울가?》
월봉은 남편을 정답게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인 김봉철은 부대에 다녀올적마다 혁명가요들을 적어가지고 와서 안해에게 배워주곤 했다. 그러면 월봉은 그것을 또 마을녀인들에게 배워주었다. 그것은 월봉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임무였다.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번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봉철의 듣기 좋은 중음에 가늘면서도 또렷한 월봉의 목소리가 합쳐져 부엌안을 울리었다.

《노래가 정말 좋아요. 막 힘이 솟는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노래요.》

《김일성장군님께서요?!》

월봉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노래를 다 지으시다니…

봉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북만원정의 길에서 축한에 걸려 앓으시면서도 이 노래를 지어 대원들을 고무해주셨어요.》

월봉은 방금 배운 노래의 가사를 되새겨보았다.

구구절절마다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해방하시려는 김일성장군님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어려왔고 그이를 따라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어갈 결의가 맥박치고있었다.

가마뚜껑잠으로 흰김이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월봉은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다. 봉철도 아궁이에 남아있던 장작을 마저 밀어넣고는 장작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월봉이 간을 맞추려고 소금종지를 들고 부뚜막 앞에 다가서는데 장작을 안고 들어서던 봉철이 《가만, 그걸 좀…》하고 말했다. 웬일인지 몰라 무춤 서있는데 장작을 내려놓은 봉철이 다가와 월봉의 손에서 소금종지를 받아들었다. 이윽도록 소금종지를 생각깊은 눈길로 들여다보던 봉철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왜 그럴가?…

월봉이 의아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는데 봉철이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번에 부대에 갔을 때 보니 소금이 떨어져 고생이 말이 아니더구만. 글쎄 한사람한테 하루에 소금 몇알씩도 겨우 돌아가더란 말이요.》

《?!…》

월봉은 무어라 말을 할수가 없었다. 사람은 소금을 못 먹고는 못산다. 그런 소금이 하루에 몇알씩 차려진다니 오죽이나 견디기 힘들가. 더우기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왜놈들과 싸운다는데… 월봉은 죄스러운 심정으로 가슴이 막 졸아드는듯 했다.

요즘에 와서 혁명군에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왜놈들의 발악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식량, 소금, 성냥, 신발, 천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통제는 더했다. 지하조직에서 노력은 했지만 원래 놈들의 감시가 심한지라 조련치 않았다.

《여보, 집에 소금이 좀 있소?》

봉철은 소금종지를 월봉의 손에 들려주며 물었다.

《예, 두홑가량 될거예요.》

《집에선 당분간 어려워도 그걸 다 주오. 그리고 조직원들의 집에서 소금을 있는대로 좀 모아주오. 적기는 하겠지만 내 오늘 원호물자를 가지고 부대에 들어가면서 가지고가겠소. 그리고 부대에서 끝장 두만강을 건너가겠소. 힘은 좀 들겠지만 소금을 꼭 구해야겠소.》

김봉철은 하던 말을 끊고 고개를 들었다.

월봉은 잠에서 깨어난 아들이 꿈지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들에게로 떠미는 남편의 시선을 느끼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아들을 강보에 싸안아들고 나온 그는 아이를 업으며 남편을 보았다. 봉철은 띠개를 띠는 안해를 거들어주며 하던 말을 계속했다.

《이제 곧 범바위골로 가오. 거기 가면 오늘 원호물자를 가지고 혁명군에 입대하러 가는 청년들이 있을거요. 그들에게 내가 백바위로 오란다고 하오.》

나도 밥이 되면 한술 뜨고는 뒤산 동굴에 숨겨놓은 폭약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겠으니…》

월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립문에까지 나와 안해를 바래주며 봉철이 강조했다.

《조심해서 가오. 연락을 전달하고는 인차 돌아서오.》

월봉은 안심하라는듯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남편쪽으로 등에 업은 아이를 돌리며 말했다.

《권섭아,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해야지.》

권섭이는 아직 잠에 취한듯 어머니의 잔등에 얼굴을 묻고있었다. 젖살이 오른 아들의 오동오동한 볼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며 빙긋 웃고난 봉철이 안해의 등을 떠밀었다.

사위는 아직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

《형님, 이젠 떠나보지요.》

젖은 몸에 덮쳐드는 추위에 입술을 파들과들 펄

며 옥순이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봄밤이라 날씨는 여전히 랭기를 풍기고있었다.

월봉은 빨리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두사람이 다 얼어들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2

물을 먹어 퍼그나 줄어든듯싶은 소금자루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오르던 월봉은 뒤를 돌아보았다. 산굽이를 따라 굽이굽이 뻗어내려간 두만강이 새벽어둠속에 희미하게 내려다보였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나서 나무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산봉우리에 올라서느라니 숨은 좀 찼으나 몸은 한결 훈훈해졌다. 그는 인형처럼 만들어 《업은》, 물에 젖어 이제는 후줄근하게 준 소금자루를 추של었다. 소금물은 옷자락을 축축히 적시며 계속 흘러내리고있었다.

《형님, 그걸 제게 주어요.》

월봉이 힘겨워한다는것을 느낀 옥순이 그의 곁에 다가서며 말했다.

《팬찮아요, 누이.》

시누이의 손을 꼭 잡아쥐며 안심시키듯 말하고난 그는 씨엉씨엉 앞서 걸었다. 그러던 그의 발걸음이 점차 더디어졌다.

《왜 그래요? 형님!》

봉우리를 넘어 골짜기를 타고 내려서는데 옥순은 아무래도 형님의 행동이 미심쩍은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우리 좀 쉴가요?》

그는 몸이 나른해지는지 우뚝 솟아있는 바위옆에 주저앉았다. 가름한 얼굴에 눈이 곱게 쌍까풀진 시누이가 그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마에 뚫은 땀을 씻었다.

《힘이 들지요?》

《예. ... 아깐 금시 죽는줄 알았어요. 총탄이 막 귀부리를 스치는데 ...》

월봉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옥순을 쳐다보며 수더분한 미소를 지었다. 처녀의 몸으로 오빠를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시누이가 불수록 대견스러웠다. 혁명을 하겠다는 열의가 남달리 높은 시누이가 친동생처럼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모른다.

월봉이도 처녀시절 지하조직성원인 오빠의 영향을 받아 혁명을 알았고 그 길에서 남편 봉철이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은...

월봉은 문득 젓가슴에 마쳐오는 짜릿한 촉감을 느꼈다. 어느새 젓이 또 불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가슴에 품어안고 젓을 먹일 아들이 없었다. 허전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는 《맹산집》에 말기고 떠나온 아들을 그려보았다. 이제라도 젓을 물리면 배가 몹시 곪았던듯 세차게 젓을 빨 귀여운 아들이었다. 오동통한 볼을 오물거리며

젓을 빠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가슴속에서 샘솟는 정이 그대로 아들에게로 흘러드는듯싶어 어머니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그들먹이 느끼곤 하였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뚫는 오목이마를 닦아주며 젓을 먹일 때의 감정이란 참... 발장난을 치면서 세차게 젓을 빠는 품이 이제 크면 제 아버지를 닮아 성미가 여간 담차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다.

해묵은 락엽우에 젓을 짜버리면서 그는 아들의 생각을 했다.

만약 그놈들이 《맹산집》에 말긴 그 애를 찾아낸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아들을 것처럼 귀여워했고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다 먼저 간 그이를 어떻게 대하랴!

월봉의 눈앞에는 남편이 희생되던 그날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월봉이 범바위골에서 돌아올 때는 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먼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아침밥까지 짓게 한 죄스러운 생각으로 그는 걸음을 다우쳤다. 식사나 제대로 하셨는지...

잔등에서는 권섭이가 배가 곪는지 자그마한 주먹으로 월봉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얼댔다.

《응, 응, 우리 권섭이 배고픈게지. 조금만 참아요. 응, 응타.》

월봉은 아들을 달래며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울창한 수림속으로 가리마같이 뻗어간 오솔길을 따라 종종걸음을 치던 월봉은 갑자기 한자리에 멈춰섰다. 자지러진 총소리가 마을쪽에서 울려왔던것이다.

무슨 총소리일가? 혹시...

산밭을 울리는 보총소리속에서 이따금씩 울리는 권총소리를 가려듣자 월봉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왜놈들이 집을 포위하고 달려들었다는것과 남편이 지금 그놈들과 총격전을 벌리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월봉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앞으로 내달렸다. 숨이 가빠오르고 무성한 수풀이 걸음을 방해했다. 등에 업힌 권섭이가 총소리에 놀랐는지 목놓아 울어댔다. 월봉은 아들을 돌려안고 두손으로 꼭 불안은채 가쁜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수수대울바자를 둘러친 초가집이 바라보이는 둔덕에 올라서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똑 멎었다.

월봉은 흠칫 놀라며 멈춰섰다. 이번엔 심장이 똑 멎는듯 했다. 숨막히는 정적속에 총대를 꼬나 들고 집을 향해 한발작한발작 좁혀들어가는 왜놈들이 보였다.

월봉은 당장 악-소리가 터져나오려는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서서 집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두불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옷깃을

적었다.

저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그리고 사위는 왜 이리도 고요할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불안한 정적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봄바람에 끝없이 술렁대던 수림도 이 순간에는 정지된듯싶었다.

《여보, 권섭이 아버지!》

월봉은 입속으로 정신없이 외었다.

품에 안긴 아들은 어린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발버둥친다. 월봉은 아들의 머리를 꼭 눌러붙이며 숨을 죽이고 집을 주시했다.

그 순간 끝안에 갇힌 정적을 깨치며 요란한 폭음이 일었다. 그 폭음과 함께 방금전까지 자기들이 살던 추녀낫은 집이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짙검불처럼 사방으로 튕겨오르는것을 월봉은 푹푹히 보았다. 한동안 정신을 가다듬어서야 월봉은 남편이 품에 품고 다니던 작탄을 터쳤다는것을 알았다. 월봉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심장을 예이는 억한 마음에 그는 손톱끝에서 피가 흐르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나무껍질을 쥐어뜯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치밀어오르는 비분과 적개심에 몸을 떨며 꺾꺾 흐느끼기만 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있는듯싶었다.

아, 그이가 가다니... 것처럼 정답고 살뜰하던 그이가... 이제 조국이 해방되는 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잘살아보자며 꿈도 많던 그이가 이렇게 먼저 가다니...

정녕 봉철은 월봉에게 있어서 남편이기 전에 혁명동지였고 스승이었다. 그런 남편을 잃은 지금 월봉은 삶의 전부를 잃은듯 눈앞이 캄캄해왔다.

이제 그이없이 내가 더 살아 무엇하랴. 여보, 권섭이 아버지, 나도 당신뒤를 따라가겠어요.

월봉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집 쪽으로 비청비청 걸어갔다. 천근만근으로 무거운 발을 몇걸음 옮기던 월봉은 그만 우뚝 서버렸다.

고사리같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옷깃을 틀어잡은 아들이 엄마의 젖가슴에 머리를 비벼대고있었던것이다. 눈가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채 울다못해 이제는 지쳐버렸는지 소리도 못내고 꺾꺾 흐느끼기만 한다. 월봉은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닦아주며 한동안 그린듯이 서서 그 애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귀전에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나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이 하던 말이 울려왔다.

《여보,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서 내가 먼저 쓰러질수도 있소. 그러면 우리 권섭이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장군님을 모시고 그리운 고향으로 기어이 돌아가야 하오. ... 그러니 당신이 권섭이를 잘 키워주오.》

남편의 당부를 되새겨보던 월봉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망녕된 생각을... 남편이 못다

한 혁명임무를 두고,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을 두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아니 쉽게 목숨을 버려서는 안된다. 살아서 기어이 저 원썩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해야 한다. 나에게서 남편을 뺏아간, 내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간 섬나라 오랑캐놈들을...

월봉은 권섭이를 품에 꼭 안고 젖을 물리었다.

배가 몹시 고팔던지 젖꼭지를 물고 세차게 젖을 빨아대는 아들을 보느라니 이 애가 바로 아버지의 원썩를 갚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을 걸어갈 내 아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마을쪽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황황 타고르고 검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자지러진 총소리, 왜놈들의 고함소리...

봉철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놈들이 마을을 통채로 불사르는것이였다.

이 인두집을 쓴 짐승의 무리들!

두주먹을 불끈 쥐고 마을을 내려다보던 월봉은 오연히 일어나 수림속으로 향했다.

공청조직의 과업을 받고 현성에 통신련락을 갔다오던 길에 마을이 불바다에 잠겼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 옥순을 월봉이 만난것은 날이 저물녘이였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을로 내려갔다.

하늘에는 쪼각달이 걸려있었다.

월봉은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을가 해서 재만이 풀썩풀썩 날리는 집주위를 허둥거렸으나 종시 찾지 못했다. 눈물을 쏟으며 정신없이 땅을 허비는 그의 손끝에 차가운것이 마쳐왔다.

재를 털어내고 치마자락으로 닦았다. 소금종지였다. 아침에 바로 이 소금종지를 들고서 혁명군에 소금이 떨어진것을 두고 그리고 피로와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을 치며 울려오는듯싶었다.

자기보다 먼저 혁명을 생각하고 말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무릅쓰고 뛰여다니던 남편의 모습이 구름장을 헤치는 쪼각달빛속에 우렷이 안겨왔다.

꺾꺾 울음을 삼키며 소금종지를 어루쓸고있는데 옥순이 조그마한 팽목천주머니를 꼭 그러안은채 다가왔다.

《형님!》

옥순이 눈물을 삼키며 풀어헤친 팽목천주머니를 내밀었다.

소금...

두흙이 되나마나한 소금이 그속에 들어있었다. 혁명을 위해 아낌없이 생을 바친 남편의 마지막 체취가 이 작은 주머니에서 풍겨오는듯싶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금 한줌을 꺼내 손에 꼭 그러쥐었다. 따스한 온기에 녹아내린 소금물이 방울

방을 흘러내렸다. …

《형님, 형님은 장차 어떻게 할 결심이에요?》

옥순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시누이의 손을 꼭 쥐어주고 나서 등에 업힌 아들을 추스르고 난 그는 혁명을 위해 살고 혁명과 함께 숨진 남편의 뒷인양 소금주머니를 몸에 품으며 말했다.

《누이, 난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겠어요.》

《예?》

옥순은 눈물범벅이 된 눈길을 들었다.

《애아버지는 부대의 긴장한 소금공작임무를 자진해서 맡았었어요. 그런데 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고 결코 그 임무가 끝난 건 아니지 않아요. 난 그이가 받은 혁명임무를 내가 수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눈물자국이 어린 눈으로 월봉을 쳐다보던 옥순은 저고리고름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

월봉은 머리를 들었다.

《누이, 누이는 우리 권섭이를 데리고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가서 나를 기다려줘요.》

《아니, 그럼 권섭이를 떼놓고?... 어쩌면...》

옥순은 눈물을 삼키며 충혈된 월봉의 눈을 주시했다.

《그래요. 놈들은 지금 유격대에 한알의 소금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하고있는지 누이도 잘 알지 않나요. 그래서 난 인형같이 만든 자루에 소금을 넣어 애기처럼 엮고 두만강을 건너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애를... 차라리 권섭이를 엮고 함께 가자요.》

《조카를 생각하는 누이의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그러나 생각 좀 해봐요. 소금공작이 실패하여 우리가 체포되는 경우 이 애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놈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아버지는 늘 나에게 혁명가의 대는 곧 혁명의 대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 만일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월봉이 나직이 타일렀으나 옥순은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형님이 아무리 만류해도 전 기어이 따라가겠어요. 위험한 그 길에 형님을 혼자 보낼수는 없어요.》

시누이의 결심을 더는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느낀 월봉은 옥순의 손을 꼭 잡으며 타협조로 말했다.

《누이의 결심이 정 그렇다면 우리 권섭이를 〈맹산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함께 떠나자요.》

옥순은 잠이 든 조카를 껴안은채 오래도록 흐느꼈다. 가까이에서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애달프

게 울려왔다. …

3

《누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강을 건너가야 할가봐요.》

방금전까지 자기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던것이 무엇이었던가를 깨달은 월봉이 자신을 다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맹산집》에 맡기고 온 조카를 생각하고있던 옥순은 뜻밖의 소리에 놀라운 눈길을 들었다.

《다시 강을 건너가다니요?》

《생각 좀 해봐요, 누이.》

월봉은 시누이의 얼굴에 비낀 당혹한 표정을 어둠속에서 읽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이대로는 돌아갈수 없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권섭이 아버지가 못다한 임무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떠난 길이 아니예요. 만약 우리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신 권섭이 아버지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러구 권섭이앞에도 뻗뻗이 나설수 없을거예요.》

《형님, 그래도 우린 할수 있는것 하지 않았나요. 그러구 권섭이가...》

월봉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물론 누이 말대로 우리가 이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도 나무랄 사람은 없을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다시 강을 건너가야 하는가 하는거예요. 그이는 그 누구의 남편이나 오빠이기에 앞서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전사예요. 그이는 자기의 혁명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이는 비록 희생되었지만 그가 맡아안았던 혁명임무는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형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식의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없는 지금의 형편에서 그건 너무...》

옥순은 물기어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고집했다.

《난 방금전에도 어머니를 찾는 우리 권섭이의 울음소리가 귀전에 들려와 심장이 아파나는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그 애는 오빠가 남긴 단 하나의 혈육이 아니나요. 네, 형님!》

월봉은 온몸이 비틀리우는듯 한 아픔에 몸을 떨었다. 눈앞에는 원썬들의 손에 잡혀 목이 쉬도록 울음을 터치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월봉은 눈을 꼭 감았다. 그래도 환영은 계속되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아내려고 머리를 흔들던 그는 강인히 일어섰다.

《누이, 난 그 애를 낳은 어머니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두만강을 건너갔다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혁명이 승리하면 우리 권섭이는 해방된 제

나라 땅에서, 장군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게 아니예요. 그러니 혁명의 승리를 떠난 우리 권섭이의 앞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어요.》

《형님, 난... 난...》

월봉의 가슴에 머리를 박은 옥순은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쳤다.

《누이, 진정해요.》

월봉은 옥순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권섭이를 <맹산집>에 맡길 결심을 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누인 다 모를거예요. 어머니로써 젖도 떼지 못한 자기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먼길을 떠난다는것이 결코 쉬운건 아니였어요. 하지만...》

월봉은 가슴아픈 추억을 더듬는듯 추연한 눈길로 먼 하늘가를 쳐다볼뿐 말이 없었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구름장사이로 비쳐내리고있었다. 그는 조용히 긴숨을 내쉬었다.

《나도 두해전까지는 누이처럼 인정앞에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던 녀자였어요.》

월봉은 옥순을 타이르듯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정오가 지난지도 이속한무렵.

방아간에서 돌아와 저녁준비를 하던 월봉은 주인을 찾는 소리에 박을 내다보았다. 구레나룻이 시키던 사나이가 주인을 찾고있었다. 월봉은 순간 반색을 지었다. 현성에서 남편에게 자주 연락을 오군 하던 사람이였다.

월봉에게 잠자코있으라는듯 한눈을 질끔 감아보인 그 사나이는 뺨수 한그릇을 청했다. 이것은 남편에게 긴급한 통신이 왔다는 신호였다.

《저... 며칠전에 길어온 물밖에 없는데요.》

남편이 며칠전에 유격구에 들어갔음을 암시하는 약속이였다.

물을 단숨에 들이킨 사나이는 바가지와 함께 통신 쪽지를 월봉의 손에 쥐여주며 소곤소곤 당부했다.

《아주머니, 급한거우다. 저녁중으로 유격구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고는 문밖을 나서서 사라져버렸다.

월봉은 서둘러 길을 떠났다. 저녁중으로 유격구에 가닿자면 시간이 촉박했다.

월봉은 숲속 오솔길로 달리다싶이 걸었다. 나무가지들이 불을 스칠 때마다 따끔따끔한 아픔이 마쳐왔다. 얼얼해오는 불을 문지르며 걸음을 다우쳤다.

고개를 서너개 넘었을까.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

높은 고개마루에 올라선 월봉은 좀 쉬어가자고 주저앉았다. 땀발에 축축히 젖은 귀밑머리를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그제서야 여기가 자기 친정집마을을 바로 뒤산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골짜기 아래쪽에서 킁킁 개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산자드락에 떠엄떠엄 널러있는 동기와 집들도 보였다. 그속에서 키낮은 돌배나무가 서있는 언덕우에 있는 본가집을 월봉은 인차 찾아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사는 집,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살아온 정든 집이다. 시집을 와서부터는 남편의 일을 도와주느라 한번도 들려보지 못했었다. 혈육에 대한 애모쁜 그리움이 가슴을 그들먹이 채운다. 하지만...

월봉은 눈길을 돌려 유격구쪽을 바라보았다. 런던히 뻗어간 산발들은 어서 걸음을 다그치라 그를 재촉하는듯싶었다. 소연한 바람소리마저도 급한 통신이라던 사나이의 목소리가 되여 울리며 등을 떠미는듯 했다. 긴숨을 내쉬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골짜기에 내려선 월봉은 집과는 반대쪽인 오른쪽 산길로 접어들었다.

얼마쯤 올랐는데 문득 《거 월봉이 아니냐?》하는 귀익은 목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소리난쪽 숲속에서 마른 나무단을 한입 인 녀인이 다급히 걸어온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월봉은 소리쳐부르며 달려갔다.

《월봉이가 옳구나.》

나무단을 내려놓고난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만난 딸의 손을 부여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글쎄 산을 오르는 모습이 꼭 너갈드라니, 내 그래서 서둘러 나오는 길이다. 헌데 어딜 그리 급히 가니?》

《예, 산넘어 마을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요.》

《아무리 바쁜 일이래도 그렇지. 집결을 지나면서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냐? 어서 집으로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험한 세월을 살아 오느라 성미가 드센 어머니였다.

《정말 바쁜 일이 있어 그래요, 어머니.》

월봉은 눈가에 안타까운 마음을 실으며 말했다.

《잠깐이래두 들렀다가라는데 그러는구나. 그러지 않아도 요즘 네 아버지병세가 심상치 않다. 아버지가 널 얼마나 보고싶어하는지 아니?》

월봉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 어서.》

어머니가 월봉의 손을 잡아끌며 재촉했다. 월봉은 더는 어머니를 리해시킬수 없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넘어가야 할 산쪽을 바라보고나서 잠간동안만 지체할 생각으로 어머니를 따라섰다.

《어머니, 그걸 주세요.》

월봉은 어머니에게서 나무단을 받아 이고 앞서

걸었다.

《시집살이가 힘들지? 너의 새서방이라는 사람은 요즘두 계속 나가살다싶이 하겠지? 내 한번 가본다가본다 하면서도 그러질 못했구나.》

정이 배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월봉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빠 잘 있어요?》

《응, 그저 혁명, 혁명하면서 바빠 돌아친다.》

지청구같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혁명하는 아들을 둔 궁지가 은근히 배여있었다.

집에 들어선 월봉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하는 사 이에 어머니는 아궁에 불을 지폈다.

《어머니, 전 정말 빨리 가야 해요.》

월봉은 다급한 마음에 이른 저녁을 지으려고 서두르는 어머니를 만류했다.

《아서라, 어찌다 집에 들렸는데 이 어미가 해주는 밥도 한술 안 뜨고 그냥 가겠다는거냐?》

더는 어머니의 모성애비긴 고집을 꺾을수가 없었다. 속은 가랑잎 타들듯 했으나 월봉은 종시 주저앉고말았다.

밥맛는 냄새가 구수하게 떠돌았다.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울려왔다. 이어 문이 열렸다.

《월봉이가 왔다면서?!》

오빠가 웅글은 목소리로 반겼다.

《오빠!》

《네가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그래 너의 남편이랑 잘 있겠지?》

월봉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왔니?》

월봉이 떠주는 세면물대야를 받으며 오빠가 각근히 물었다.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손을 씻던 오빠의 얼굴색이 퍽킴하게 질리었다.

《뭐라구?! 너 지금 제정신이나? 아무리 부모형제들이 그리웠어도 그렇지 혁명임무를 놓고... 더 말할새 없다. 어서 떠나거라.》

그제서야 월봉은 자기의 실책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어서!》

오빠가 엄한 목소리로 월봉을 재촉했다.

《아니, 애야, 저녁이 다 됐는데 그냥 가다니, 난 오래비라는게...》

어머니가 달려나오며 야단을 쳤으나 월봉은 사립문을 나섰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후에 들리겠어요.》

벌써 어둠이 깃들고 동컨 산마루에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월봉은 산길을 타고 정신없이 내달렸다. 숨이 턱에 닿았으나 숨돌릴 경향도 없었다.

그가 유격구에 다달았을 때에는 달이 중천에 떴을무렵이었다.

박인삼중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봉철의 눈

길은 뜻밖에 들어서는 안해를 보자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당신이 어떻게?》

《저... 저...》

월봉은 가쁜숨을 몰아쉬며 쪽지를 내놓았다.

쪽지를 펼쳐보던 봉철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중대장동무, 비상정황입니다. 왜놈 <토벌대>가 오늘밤 유격구를 기습한다는 긴급통신입니다. ...》

봉철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인삼중대장이 문을 차고 달려나갔다. 이어 울리는 비상소집나팔소리...

《그런데 이 쪽진 언제 받은거요?》

봉철은 자기도 나갈 준비를 서두르며 물었다.

《저... 오늘 낮에...》

월봉은 속이 한줌만 해서 대답했다.

봉철이 굳어진 기색으로 다우쳐물었다.

《낮에?! 그런데 왜 인제야?...》

《저... 사실은...》

사연을 다 듣고난 봉철이 통나무를 타개서 무은 책상을 주먹으로 탕 내리쳤다.

《뭘요? 당신이 어찌면...》

그 순간 밤대기를 찢으며 총성이 울려퍼졌다. 적정을 알리는 망원초의 신호였다.

전투는 가렬했다.

급작스레 달려든 적들을 물리치는 싸움터를 뛰여다니며 부상자들을 돌보는 월봉은 가정적분위기에 순간이나마 빠져 혁명임무를 뒤전에 놓았던 자기의 행동이 몹시리쳐졌다.

아, 오빠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유격구는 어찌되었겠는가. ...

월봉은 사람이 혁명을 하자면 혁명규률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남편의 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날이 밝을무렵까지 진행된 전투의 마지막돌격전에서 박인삼중대장이 중상을 당했다. 봉철이도 팔에 부상을 입었다.

봉철은 피배인 봉대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월봉에게 준절하게 말했다.

《보오. 당신의 그 각성없는 처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그날 난 정말 많은것을 가슴에 새겼어요. 혁명을 하자면 때로는 가정적분위기나 자식의 운명, 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는것까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혁명임무를 놓고 아들때문에 주저하고있다는것을 권섭이 아버지가 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월봉은 아스라하니 뻗어오른 나무우듬지사이로 비쳐드는 달빛에 드러난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생각깊은 어조로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형님, 가자요.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새움이 튼 어린 잎사귀를 가볍게 흔드는 단풍나무에 오래도록 눈길을 주고있던 옥순이 제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끈을 조이며 말했다.

《글쎄, 내 누이가 이렇게 나올줄 알았다니까.》
월봉도 자리에서 일어나 옷차림을 바로했다. 그들은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두만강쪽을 향해 서로서로 의지하며 산을 내려왔다. ...

4

월봉이 희미한 의식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사위는 고요했다. 총소리는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자기가 총상을 입고 골짜기의 으스스한 곳에 쓰러져있음을 알았을 때에야 월봉은 다리가 얼얼해오는 아픔을 느꼈다. 아들을 지척에 두고 이렇게 된 것이 한스럽기 그지없었다.

(누이는 지금쯤 어디까지 갔을가? 제발 누이만이라도 무사해야겠는데...)

입속으로 뇌이는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두만강을 다시 건너갔다 넘어온 먼길이 떠올랐다.

...월봉이네는 연사에까지 나가 닷새만에야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소금을 장만할수가 있었다. 그들은 전번의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에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있으면서 국경경비순찰대의 동정을 살피다가 새벽녘에야 두만강을 건넜다.

그들은 처서판에서 일하는 남편들을 찾아가는 부녀자들처럼 수상쩍은 사람들과 만날 때면 등에 업은 《애기》를 추스리기도 하고 달래는척도 하면서 걸었다. 나지막한 둔덕에서 그들은 잠시 숨을 돌렸다.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이마에 뚫힌 땀발을 문지르며 지나온 산발들을 바라보던 옥순이 생그레 웃으며 월봉을 보았다.

《형님, 이제 저기 보이는 산만 넘어서면 되겠군요.》

월봉은 그러는 시누이를 대견한 눈길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 산밑에 가선 산길을 타고 가자요. 혹시 놈들이 우리를 찾고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빠가 맡은 혁명임무를 기어이 수행해냈다는 기쁨에서 오는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형님, 지금쯤 우리 권섭인 땔하고있을가요. 이제 제 어머니가 불쑥 나타나면 너무 좋아 막 캐득거리겠지요?》

옥순은 그러는 조카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르는 듯 생글생글 미소를 거두지 못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궁지가 옥순의 목소리에 뜨겁게 실려있었다.

《그렇가? 아마 이 에미품에 안기자마자 젖부려 파고들지 몰라.》

월봉이도 아들을 그러보며 혼연스레 웃었다.

《이제 또 떠나보자요. 〈맹산집〉에서랑 우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월봉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가만, 형님, 저기 누가 올라와요.》

따라일어서던 옥순이 긴장한 눈길로 앞을 보며 속삭였다. 자전거를 끌고 웬 사람이 마주 올라오고있었다.

《피할가요?》

그 사람이 가까와올수록 바싹 긴장해서 걸던 옥순이 물었다.

월봉은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늦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우리를 보았을거예요. 이럴 때 피하다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살수 있어요. 맞받아가자요.》

월봉이 《애기》를 추스르며 앞서 내려갔다. 산골길이라 주위는 인적이 하나없이 고요했다. 옆에는 수림이 울창했다. 승마바지를 입고 골덴모자를 눌러쓴 사나이가 휘파람을 불면서 올라오다가 그들의 차림을 훑어보며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는 아재들이요. ?》

《목재소에서 일하는 애아버지들을 찾아 무산서와요.》

래연하게 대답하며 월봉은 승마바지의 얼굴을 주시했다.

《애아버지?...》

승마바지는 뭔가 미덥지 않은듯 두 녀인을 쳐다보며 뺨새눈을 깜박였다.

《여기 목재소가 어디 있나요? 조금 가면 된다고 했는데...》

옥순이 지친 표정을 지으며 서글픈 목소리로 물었다.

이마에 기미가 유포한 사나이는 머리를 가우뚱거리더니 《저기 보이는 산을 두개 넘어가면 광산도 있고 목재소도 있소.》 하고 말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둔덕을 넘어갔다.

사나이가 간 길을 한동안 유심히 바라보던 월봉은 아무래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머리를 저었다. 그를 어디선가 꼭 본듯 했다. 월봉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분명 그놈이에요. 현성의 잡화점주인... 언제인가 오빠와 함께 현성으로 갔을 때 저놈이 왜놈의 밀정이라고 말해주었었어요.》

(그렇지, 내가 왜 미쳐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안되겠어요. 그자가 우리를 알아보았다면 분명 수비대놈들이 출동할거예요. 이제부턴 산길을

라고 가자요.》

그들이 수림속에 들어서서 얼마쯤 갔을 때 산아래쪽 길가에서 자동차들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산발적인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이, 여기서 갈라지자요. 이러다간 우리 둘이 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권섭이를 부탁해요.》

《형님, 그래도 함께 가자요.》

《무슨 소릴 해요. 우리 둘중에 한사람만이라도 살아남아서 그 애를 키워야 할게 아니예요.》

유순한 미소만이 흐르던 월봉의 눈가에 근엄한 빛이 흘렀다. 그는 옥순을 떠밀고나서 반대방향으로 달렸다.

총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잡관목우듬지들이 칼에 베인듯 월봉이 달리고있는 곁에서 뭉청뭉청 떨어져내렸다. 월봉은 그런것에 눈줄 경황도 없이 산등성이를 향해 내쳐 올리뛰었다. 숨이 가빠났다. 등에 업은 소금가루가 잔등을 두드리며 들썩거렸다. 아릅드리참나무를 에돌아서던 그는 장판지가 뜨끔하는 촉감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월봉은 무릎을 꿇 으며 몸의 균형을 잃었다. 차츰 정신이 가물가물해오더니 종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와삭와삭 풀잎밟는 소리가 울려왔다.

이젠 다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월봉은 힘겹게 눈을 떴다. 조심히 주위를 훑어보았다. 그런데 멀리 가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시누이가 허둥거리며 월봉에게로 오고있었다.

《형님!》

옥순이 그를 부둥켜안았다.

《왜 먼저 가지 않았어요?》

《놈들이 벌써 산을 포위했어요.》

《그럼?!...》

왜놈들의 비린청이 가까이에서 울려오고있었다.

분했다. 이 소금... 불타버린 집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던 맹세가 여기서 끝나는것이 원통했다.

여보, 권섭이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권섭아, 부디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아라...

《누이!》

《형님!》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월봉은 미소를 지으며 옥순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그리고는 옥순에게 의지하며 일어나 나무에 기대여섰다.

가까이 다가오는 놈들의 물결이 보였다.

별안간 숲속을 뒤흔들며 총소리, 수류탄이 작렬하는 소리가 울렸다. 월봉이네에게로 좁혀들던 놈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가너부러지기 시작했다.

《형님, 혁명군이에요!》

옥순이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웨쳤다. 월봉은 가슴이 벅차올라 스프르 주저앉았다. 하늘땅이 빙그르 돌아가는듯 했다.

월봉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을 보았다. 박인삼중대장이였다.

《중대장동지!》

월봉은 입속으로 뇌였다.

그 사람이 중대와 함께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다는것이 꿈만 같았다.

《아주머니, 무사했군요. 이렇게 살아있는걸 돌아오는 길에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는가 해서 몹시 걱정했습니다.》

인삼이 월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예? 그럼 우리를 위해서...》

월봉의 눈귀를 타고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봉철동무가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혁명에 충실한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동무의 가족들을 찾아서 꼭 데리고 오라고 저희들을 보내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요?...》

너무도 충격적인 놀라움에 월봉은 눈을 습벅였다.

《예, 그래서 마을에 갔다가 아주머니와 옥순동무가 어린 자식을 남의 집에 맡기고 봉철동무가 못다한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장군님!... 저희들이 뭐라고...》

월봉은 시누이를 부둥켜안으며 목메어 흐느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아들 권섭이도 장군님의 품에 안겨 무럭무럭 자라나 아버지처럼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다르게는 절을수 없는 이 나라 아들들의 길이였다.

...

교향악단은 장중한 울림으로 마감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울림속에서 시연회참가자들은 눈보라 사나운 첼령을 오르는 야전차의 동음이며 세찬 격랑을 일으키는 초도앞바다의 파도소리, **김일성**광장을 노도치며 흐르는 열병대오와 수백만군중들의 만세의 환호성을 들었으며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한드레벌의 지평선을 보았다.

문명회의 눈앞에는 백두산지구를 21세기 태양의 성지로 꾸려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바쳐가는 손자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폭풍이 사납다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다
백두의 붉은기높이 끝까지 가야 할 이 길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사 랑 은 아 름 략 다

김 국 용

사랑은 아름답다
첫사랑의 고백은 더 아름답다
하나 나에겐
달빛 흘러내리는 강변에서
첫사랑 고백하던 그런 추억이 없다

미제의 폭격에 무너진
벽체를 깨내던 그밤
처녀는 숨장잡끼고 정대를 잡고
총각 나는 함마를 휘둘러 정머리를 때리고

전선담가대출신 성격이 드센 청동빛얼굴의 처녀
《약골》과 한조가 된걸 자주 원망했다
백번도 못 때리고 휘청거리는 짝패총각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고
《왕드살》 처녀는 함마를 휘둘러댔다

총각이 알보여선가 마주서면 티각태각
경쟁도표판 붉은선이 조금만 낮아져도
래일은 다른 조로 가라고
처녀는 불이 부어 신경질
총각은 미소짓고 얌전히 듣기만 하고

어느날 건설장에 미제의 불발폭탄 나졌을 때
공병출신 총각은 서슴없이 달려갔다
왜선지 처녀는 조여지는 심장... 무사했으면...
불발탄은 해제되고 건설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총각과 처녀는 다시 벽체를 깨냈다

전선에서 곧바로 건설장으로 달려온
《약골》의 몸에 여러개 파편이 박혀있고
그 《약골》이 공화국영웅인줄
처녀는 현장에 쓰러진 그를 업고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땔치리

시연회는 끝났다. 요란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뒤
흔들었다. 그러나 문영회는 자기를 잊고있었다.

시연회는 끝났으나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작
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끝없이 이어갈 우
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교향곡은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리고있었던것이다.

손자와 돌격대원들의 랑랑한 목소리도 들려온다.

병원에 가서야 알았다

그날부터 처녀는 총각의 엄한 간호원
총각은 타발받은 《처녀의 동생》

어느덧 그날의 처녀총각은 백발이 되었다
방금 화면음악 《사랑하시라》를 듣고
그날의 《약골》 총각은 로친에게 웃으며 물었다
—우린 첫사랑의 고백을 언제 했던가?
—글쎄 이 《왕드살》이 어깨로
령감을 밀치며 넘어뜨린 그날이 아닐가

—와하하...
—호호호...

자랑스런 세대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밤깊은 창넘어 노래처럼 울려가고
보람찼던 전후복구건설 천리마시절은
선군시대 오늘로 행복스럽게 이어졌어도
나에겐 없어라 첫사랑 고백의 그 저녁은

아 승리한 병사들 복구건설의 첫삽을 뜬
자랑스러운 세대들의 첫사랑의 고백은
피로써 지켜낸 땅을 락원으로 일떠세우자고
말없이 조국에 다진 심장의 맹세였거니

서로가 겨룬 그날의 《승벽》은
조국앞에
사랑하는 사람앞에
더 땃땃한 모습을 보이고싶었던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닐가
우리에겐 그것이
제일로 아름다운 추억이여라

《할머니, 할머니의 교향곡은 오늘도 래일도 영
원히 이 땅에 울려퍼질것입니다!—》

수 수 께 끼

- 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위로 올라가는것.
- ② 문은 문인데 떠돌아다니는 문.
- ③ 바람만 먹고 노래하는것.
- ④ 짐을 실으면 가고 짐을 부리면 안 가는것.

이 땅의 사계절

전 동 혁

봄—

산에도 들에도 내 마음에도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이 계절
따스한 봄빛을 나뉘어 얹고
강남갔던 제비들이 안고 온 이 봄인가
살얼음을 소르르 가만히 녹이며
돌돌 시내물이 싣고온 봄인가
서리꽃 눈부신 2월의 산정
조선의 미래 안아키운 백두의 트랙에서
우리 마음 흔들며 봄우뢰가 울었어라
붉은 자락 펼쳐들고 봄노을이 흐른다
아, 봄이마다 골짜기마다 천가락 만가락
아름다운 봄노래 굴리며
행복의 봄향기 가득 채우며
희망의 아지랑이 내 마음속에 부푸는 계절
아, 봄 이 땅의 봄은
백두의 2월에서 시작된
행운의 계절이여라

×

여름

저 하늘의 해가 불타
뜨거운 여름이던가
해별이 뜨거워 산천도 대지도
한껏 푸르러 젊어지는 계절이던가
찌는듯 한 무더위에
사람들 싱싱한 숲을 찾고
백사장의 물결에 몸 담그는 이 계절
삼복! 조용히 불리만 보아도
뜨거움에 눈곱은 젖어
장군님 해처가실 폭열속의 먼먼길이
굽이굽이 어려오는 이 계절
이 마음 한그루 잎새푸른 가로수되어
그 길위에 설레이고싶어라
한줄기 바람되어
땀젖은 그이의 옷자락에 붙어예고싶어라
저 하늘의 해가 불타 뜨거운 여름이던가
해빛이 뜨거워
산천도 대지도 푸르러 젊어지는 계절이던가
애국으로 뜨겁고
헌신으로 불타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장으로
강성대국의 푸른 숲이 무성히 설레는 계절
아, 뜨거운 계절 불타는 계절

×

가을

가을은 열매익고 단풍타는
풍요한 계절
바람결에 잎새는 하나둘 다 떨어져도
초롱초롱 무르익은 붉은 감처럼
고개숙여 이 땅에 인사를 드리는 이삭들처럼
우리 마음 기다리는 계절
바다의 고기들도 갑판우에 뛰어들고
대홍단의 감자들도 땅차고 솟구치는
우리의 가을은
누구나 어디서나
아버지장군님을 기다리는 계절
드리고싶어
그이께 기쁨을 드리고싶어
금빛으로 무르익고
붉게도 타는 계절
이 세상 가장 풍요한 이 땅의 계절

×

겨울

겨울은 눈내리는 계절
장군님이야기로 깊어가는 밤
내 마음도 추억의 흰눈되어
굽이굽이 전선길 천리에 내리는 계절
눈은 내리리
철쭉꽃 피어웃던 철령의 기슭에도
삼복의 불별 흐르던 북변의 령길에도
내리고내리어
산천을 덮고 강산을 덮어도
애국으로 뜨겁던 그 자욱만은
덮을수 없어 식힐수 없어
홀려간 봄, 여름, 가을을 다 안고
이 땅에 내리는 찬눈을 또다시 맞으시며
이으시는 장군님의 먼먼길
불밝은 거리와 마을에
새로 선 발전소의 언제와
불노을 타오르는 구내길우에
또다시 밝아올 새해를 기다려
흰눈은 소리없이 내리고내리는데
강성대국의 봄을 불러 가고가시는
장군님의 먼먼길
아, 그끝은 어디 그끝은 어디

특색 있는 인물설정을 통하여 본 위인의 형상

— 단편소설 《통일아리랑》을 읽고 —

리 철 혁

단편소설에서 특색있는 인물을 설정하여 작품의 생기와 활력을 북돋아주고 주제사상을 심화시키는 것은 단편소설로서의 형태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위인의 력사속에서 조국과 혁명,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방대하고 무거운 력사적과제를 설정해명해야 하는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인물설정을 어떻게 해주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통일아리랑》〔리철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8(2009)년 2호〕은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한 기본인물관계와 함께 독특한 인물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형상과제를 주는데서 훌륭한 경험을 창조했다고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들이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혀지게 하려면 때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의 뒤편을 가지고 구성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인물들이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로 하나같이 합류해들어가야 한다.》

단편소설 《통일아리랑》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과정을 생활무대로 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근본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애, 하늘같은 인덕이 민족대단합의 근본원천으로 된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지는 민족대단합에 관한 문제를 작품의 근본문제로 제시하고 그것의 설정과 형상적해명을 전상음이라는 인간의 발전을 통하여 더욱 풍부히 하고 극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전상음은 예술지상주의, 그 어떤 주의주장에 도 인연이 없는 순수예술을 추구하여 전쟁시기 동무와 애인마저 버리고 남으로, 또 거기에서 미국으로 망명해간 의리없는 인간이었다. 이러한 인간을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는 그를 작품의 형상마당에 한번도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그에게 독자

적인 형상과제를 부여하고있다.

전상음은 무엇보다도 작품에서 기본출발점으로 되는 생활적계기를 조성해주고있다. 그가 《통일장》의 담당안무가이며 자기의 옛 소꿉동무였던 림진우에게 면회를 요청해온것으로 하여 진우는 심리적괴로움에 모대기며 그로 하여 작품창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림진우의 고민, 창작에서의 부진으로부터 생활적굴곡이 조성되면서 이야기가 발전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수령형상과제로 승화될수 있는 림진우의 운명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생활적계기가 펼쳐진다.

전상음은 또한 상대인물인 림진우의 운명선에 굴곡을 주어 그의 내면심리에 심각한 극을 조성해주고있다.

배반당한 원한과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지난날의 추억과 엉키고 부딪치면서 그의 심리적고민은 더해지며 그것은 점차적으로 오해와 불신으로 반세기를 살아온 민족의 사활적인 화해와 단합문제로 발전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상음에게 림진우의 운명선에 극적인 굴곡을 조성해줄만큼 충분한 과거가 있는것이다.

바로 전상음은 일찌기 랑부모를 잃고 림진우의 가족에 어울려 살았으며 진우의 녀동생과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전상음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림진우와 사랑하는 처녀를 버리고 도망가며 그때문에 진우의 동생은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한 인간이 인생말년에 이르러 불현듯 자기를 찾아오니 림진우로서는 너무도 야속했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상처를 헤집는 그의 출현으로 하여 정상적인 생활흐름이 형클어질만큼 타격이 크고 심리적고민도 여간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배반당한 사람과 배반한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과 용서받아야 할 사람, 이것은 일개인에 국한된 화해와 결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에 해당되는 단합과 분렬에 관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작품에 제시된 근본문제로서 위대한분만이 해결할수 있는 수령형상과제이다. 다시말하여 전상음에 의하여 조성된 극은 이야기의 추동력으로 되는 동시에 작품의 기본문제, 수령형상과제에 심화된다.

왜냐하면 전상음에 의하여 조성된 립진우의 운명문제가 바로 작품에 설정된 수령형상과제의 기초적인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이것을 통하여 전상음이 비록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인물관계의 기본축에는 서지 못하며 형상마당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수령형상과제의 설정과 해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소설에서 립진우는 전상음에 대한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가진 인물로서 그의 내면심리의 파동은 외적갈등으로 표면화될수도 있는것이다. 하지만 전상음이 이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마저 바라지 못하는 처지에서 깊은 속죄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관계는 갈등으로 첨예화되지 않고 내면심리극으로 발전하고있는것이다.

립진우에게 보낸 전상음의 속죄의 편지가 그 표현으로 되며 전상음을 형상무대에 등장시키지 않는 리유도 있다고 할수 있다.

바로 이렇게 작품은 배반당한 사람과 배반한 사람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사람과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자신의 심리적이고민으로 극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총체적으로 전상음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작품의 근본목적으로 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위하여 위대한분의 위인적품모를 강조해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된 립진우와의 감격적인 상봉과 우리 인민의 단합된 힘의 상징인 《아리랑》공연을 통하여 민족의 력사발전을 이끄시는 그이께서 계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사실 예술이란 인간성정의 근본인 정의 반영이며 그것을 낳게 하는 힘에 대한 송가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아리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절감한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이복사람들의 절대적이고 순결한 충실성, 민족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다. 한마디로 사랑과 인덕의 정치로 민족의 력사발전을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라는 확신이다.》

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전상음은 작품의 마감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해주고있다.

립진우뿐아니라 전상음의 위대한분에 대한 칭송은 전민족의 칭송을 의미한 작가의 형상적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전상음은 형상무대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형상의 뒀을 안고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히면서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 데 확고하게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전상음을 인물관계의 기본마당에 등장시키지 않은것은 립진우의 심리적이고민을 최대한 크고 심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이라고 할수 있다.

립진우의 내적이고민, 심리극이 인생말년에 속죄의 마음을 안고 자기를 찾아온 옛 소꿉동무를 거절하기까지 할 정도의 심각성을 안고있다는것을 작가는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바로 립진우가 소꿉시절의 동무를 만나지 않은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아리랑》창작에서 진통을 겪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관계에서 민족의 비극을 보며 괴로와하시는것이다.

립진우의 심리적이고민을 강렬하게 축적시킨 리유도 궁극에는 그로 인한 위대한 장군님의 심각한 내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와 같이 작가는 한 인간의 개인적고충 그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조국과 민족의 곡절많은 운명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전상음이라는 인물설정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 인덕정치에 대한 작가의 칭송이 바로 전상음의 설정으로 하여 더욱 심도있게 원만히 형상되고있다.

전상음이라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립진우의 인생문제, 운명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해주고 그것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문제로 승화시키고 수령의 형상을 깊이있게 할수 있었다.

이 작품의 창작경험은 기본인물관계에는 서지 않지만 기본인물관계를 심화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인물을 새롭게 발견할 때 수령형상과제를 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수령형상을 부각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가 기본이며 인간관계는 인물들이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의 형상적역할에 의해 발전하는것만큼 인물설정을 작품의 특성에 맞게 독특하게 하는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작가들은 작품에 설정되는 인물은 누구나 다 응당한 뒀을 가지고 형상체계에 인입되게 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비록 기본인물관계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인물이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되게 인물설정을 잘해나가야 할것이다.



평범한 날에

엄 호 삼

1

《동면인간 1번

이름; 남만우, 생년월일; ××××년 10월 9일
직장직위;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사
간단한 경력

20××년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졸업, 졸업 후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사로 활약. 20××년에 논문 〈세계경제와 계획경제의 호상관계〉의 발표로 박사학위를 받음.

동면경위

20××년 3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세계경제리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후 알프스관광을 하던중 추락사고로 눈속에 파묻히었음. 구출당시 간장이 파열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국가적 조치에 의해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전후를 별렀으나 간장이식후 거부반응이 일어난것으로 하여 동면시켰음.

현재상태

뇌수기능 정상, 만능세포에 의한 간장재생, 결과 신체는 완전정상. 3일후에 의식도 완전히 회복될것으로 진단됨.

20××년 3월 30일.》

(그러니 래일이구나. 아버지가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자료열람에 열중하던 문정순은 문득 출입문 열리는 소리에 흠칫 놀라 컴퓨터를 그대로 켜놓은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으로 들어선 사람은 국제생명보호센터 소장이며 그의 아버지인 문승주 원사였다. 아버지가 자리를 뜬 사이에 승인없이 컴퓨터의 자료들을 열람하던 정순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얼핏 딸애의 당황한 표정과 컴퓨터 화면을 일별하고나서 문승주원사는 짐짓 모르는척 하며 물었다.

《어째 그리 놀라느냐?》

닭알형의 얼굴에 류달리 긴 속눈썹으로 하여 조

선녀성의 특유한 아련함이 한껏 어려있는 문정순의 얼굴이 금시에 붉어졌다. 그 녀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컴퓨터의 자료를 열람하랬어요.》

《그래 우리 력사학자님이 보기와는 다른걸. 암호까지 풀줄 알고, 대단해.》

문승주원사의 어조에는 놀라움과 함께 딸에 대한 긍지감이 어려있었다. 그는 미소를 띄운채 의자에 가앉았다.

뜻밖에 아버지의 칭찬을 듣게 된 정순은 아버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놀라워하실것은 없어요. 암호관리프로그램이 내 유전자조사를 해보고는 성별이 다르다고 자료열람을 시키지 않더군요. 그래 딸이라고 인식시켰더니 친절하게 암호를 대주더군요.》

《허허허.》 원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더니. 건망증이 우려되어 컴퓨터가 내게 암호를 대주도록 예비대책을 세운것인데 그걸 너한테 봉사해주었던 말이나?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문정순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꾸중을 들을줄 알았던 일이 무난히 넘어가자 정순은 의자에 편안히 앉으며 투정 비슷하게 말했다.

《심각한 문제점은 아버지한테 있어요. 정보공유의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암호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으니 말이에요.》

《구태의연하다. ... 50대인 내가 20대인 너의 세대보다 낡은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공개할수 없는 자료나 개인비밀이 있는 법이다. 사범대학교원인 김호영이라는 청년이 너와 각별한 사이라는것을 내가 알고있으면서도 모르는척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문정순의 류달리 긴 속눈썹이 대뜸 위로 솟구쳤다.

《아니, 그걸 어떻게...》

《네 얼굴에 그렇게 썩여있더구나.》

원사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쪽눈을 쥔 듯 해보였다.

《뛰라우요, 아이참.》

얼굴이 빨개진 정순은 벌떡 일어나 두주먹으로 아버지의 잔등을 두드렸다. 정순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는것이 그리 싫지 않은듯 밝게 웃고있었다.

잠시후 딸이 다시 의자에 앉자 원사는 정색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방금 본 자료는 네게 보여주려던 자료다. 오늘 아침에 네가 속한 력사연구소에서 지시를 받았겠지만 동면되었던 남만우박사가 깨일이면 완전히 회복되는데 너의 방조가 필요하다.》

사람의 한생에서 6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지능시대인 오늘날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과학기술성과와 기적들이 창조되는것만큼 하루라도 학습을 게을리하면 문맹자가 되고만다. 그런데 남만우박사는 6년동안이나 잠들어 있었거던. 그러니 그의 지적능력은 말할수 없이 뒤떨어진셈이지. 물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의 지능사회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 남만우박사이다. 그러나 예언과 현실,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언제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만우박사가 6년이라는 시공간적차이를 자연스럽게 리해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오늘의 지능사회에 적용할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도록 방조해주어야 한다. 그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정순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참 어려운 과제이군요. 하지만 꼭 해내겠어요.》

2

3월이라 산과 들에는 봄기운이 짙어가고있다. 따뜻한 봄바람에 진달래, 개나리, 살구나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꽃망울을 터치기 시작하였고 그 늘진 곳의 잔디들도 뒤질세라 새싹을 빠끔히 내밀고 푸른 빛으로 단장하고있었다. 종달새, 딱따구리를 비롯한 새들은 하늘과 숲속을 날아며 청고운 소리로 봄노래를 부른다.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국제생명보호센터는 주변에 잣나무, 뽕나무, 살구나무들이 우거져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의 치료회복실의 창문에서 내다보면 오른쪽으로 5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옥류관이 보였고 모란봉과 대동강의 경계를 이루며 시원하게 뻗어간 유보도가 보인다. 대동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맑은 물을 출렁이며 평양을 감돌아 흘러가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알지 못한채 남만우는 치료회복실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동면실에서 치료회복실로 옮겨진 후 만능세포기술에 의해 파열된 간장이 완전재생되고 모든 장기와 근육, 관절들이 정상상태에 이르렀으나 아직 의식만은 회복하지 못한것이다. 여하튼 뇌수활동은 활발하였고 뇌수가 정상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뚜렷이 나타나고있었다. 지금 남만우의 머리속에서는 그가 체험한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언듯언듯 떠오르고있었다.

...

비행기의 승강대에 이른 남만우는 안해쪽으로 돌아섰다. 안해는 태어난지 6달밖에 안되는 아들이 탔 유모차곁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고있었다.

《그곳 날씨가 춥겠는데 건강에 주의하세요.》

《내 걱정은 마오. 그동안 당신과 아들에의 건강을 잘 돌보오.》

남만우는 허리를 굽히고 유모차에 누워 깊은 잠에 든 아들에의 볼을 어루만져주었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승강대로 올라갔다.

...

토론회장을 나서는 순간 남만우는 기자들에게 포위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화폐에 대한 견해와 새로운 세계경제제도수립을 주장하였는데 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지능사회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 표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남만우는 모두에게 미소를 보내며 홀에 준비해 놓은 연락에 나섰다.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시간상관계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폐에 대한 견해와 새로운 세계경제제도수립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화폐는 오늘날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산업시대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한 주문과 연구, 생산과 판매가 실현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제도의 수립을 촉진시키고있다는것입니다.

끝으로 지능사회에 대한 표상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정보시대에 이르러 지능로동의 몫이 커지고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파잉정보로 하여 불필요한 연구, 생산이라는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런것을 극복한 고도로 정밀화되고 계획화된 사회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매 인간의 사회의 기여정도에 따른 물질적보상과 생산이 진행되는 사회가 미래의 지능사회일것이라는것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기자들속에서 요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

관광산도는 산봉우리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남만우박사가 탄 산도에는 네사람이 타고있었다. 남만우는 시창밖에 펼쳐진 흰 면사포를 쓴 아름다운 신부를 런상시키는 알프스의 산봉우리들을 부감하며 정신적피로를 풀고있었다. 산도가 산봉우리를 가까이 하고있을 때였다. 문득 옆골짜기에서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왔다. 별방지대도 아닌 산악지대에서 이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기는 처음이었다. 산도안의 사람들은 불안한 눈길로 회오리바람을 지켜보았다. 산도앞쪽을 지나가던 회오리바람이 방향을 바꾸더니 산도를 휘감았다. 충격이 가해지며 산도가 기울어졌다. 산도줄이 끊어진 것이다. 네 사람은 여기저기에 부딪치며 강한 타격을 받았다. 남만우는 의식을 잃는 순간 산도가 눈덮인 산골짜기로 떨어지고있음을 깨달았다.

...

사고발생후 남만우박사는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당시 조국에서는 세계적인 수재인 남만우박사를 살려내기 위하여 특별비행기로 강한 의료진을 보내여 긴급치료전투를 벌였으나 파열된 간장때문에 결국 동면시킬수밖에 없었던것이다. 6년세월 남만우는 국가의 관심속에 파열되었던 간장도 재생회복되었고 타박상을 비롯한 외상들도 완치되었으며 바야흐로 완전회복의 시각을 가까이하고있었다.

3

문정순은 남만우박사의 뇌수와 연결된 빛량자콕퓨터로 그가 회상해내려는 사건들을 펼쳐보고있었다. 그 녀자는 화면에 눈길을 둔채 옆에 앉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사고활동이 토막나기는 하지만 진행과정과 내용이 정확하고 론리정연하군요.》

《그래, 뇌수상태를 제일 우려했었는데 순조롭게 회복되고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만능세포기술에 의해 생물학적인 뇌수는 복제할수 있어도 그 인간의 체험과 기억 등은 재생하지 못하고있거든요.》

《우리 정순이가 현대의학에도 정통하고 정말 팬찮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나는 남만우박사를 회복시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몇가지 새로운 착상도 얻었다. 그에 대해서는 후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남만우박사가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를 토론해보자. 현재상태로 보아 3시간후면 그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것 같다.》

시간의 촉박감을 느낀 문승주원사는 어느때의 배포유한 자세를 잃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태도에서 긴장감을 포착한 정순이도 적극적

으로 나왔다.

《정말 시간이 없군요. 하지만 난 이미 6년전에 화폐가 아니라 때 인간의 지능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모든 물질적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한 남만우박사인것만큼 모든것이 락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진리는 단순하다. 하지만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없는것이 문제다. 누군가가 말했지만 력사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력사를 더듬어보며 진실을 밝혀내고 력사에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보며 경험과 교훈, 진리를 얻어낸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것은 력사가의 탐구과정을 남만우박사의 현실과악과정으로 재현시킬 때 그가 오늘의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결국 력사학자인 너에게 중요한 과제가 맡겨진셈이지. 어제도 말했지만 동면인간을 회복시키는 사업에서 내가 할 바는 끝났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너에게 복종하려고 한다.》

류달리 큰 정순의 두눈이 대번에 휘둥그래졌다. 그러나 원사의 말에는 조롱기가 없었다. 아버지가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한 정순은 마침내 자기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럼 좋아요. 내가 생각한 방안은 두가지예요. 첫번째는 의식을 회복한 남만우박사에게 모든 사연을 직접 설명해주자는것이예요. 두번째는 그가 달라진 평양시를 직접 돌아보면서 오늘의 현실과 사회경제적측면을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것이예요.》

《그런데 두 방안을 단번에 적용할수는 없는것이고 어떻게 한다.》

문승주원사는 미소를 짓고 딸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니나다를가 말문이 막힌 정순은 자존심이 상한듯 어쩔줄을 몰라했다. 원사는 아닌보살을 했다. 앞으로의 일처리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자면 젊은 딸애의 자기 우월감을 경계해야 했던것이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했다.

아버지의 속생각을 넘겨짚은 정순은 뽀로통해서 내쫓았다.

《방금 나한테 복종하겠다고 한것 같은데 벌써부터 조롱인가요.》

원사는 자기 이마를 탁 치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아차, 책임자동지, 잘못했습니다. 됐니?》

《호호호.》

《허허허.》

아버지와 딸은 마주 바라보며 즐겁게 웃었다. 잠시후 원사는 정순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난 그 두가지 방안가운데서 두번째 방안을 택

해야 한다고 본다. 첫번째 방안인 경우 남만우박사가 받는 정신적충격이 클것이다. 두번째 방안인 경우 의혹과 놀라움, 호기심과 파악이라는 네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첫번째의 경우보다 정신적충격이 약하리라고 본다.》

정순은 아버지를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며 아이들처럼 손뼉까지 쳤다.

《분석이 아주 정확해요. 꼭 심리학자의 분석같아요.》

《이거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사실 심리학에精通하지 못한 의학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학자라고 할수 없거든.》

《너무 으쓱해말아요. 모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딸애가 무심히 던진 말이었으나 원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 바람에 정순도 어리광비슷한 태도를 고치고 진지한 자세를 취했다. 원사는 딸의 총명한 머리를 계발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보충적으로 이야기했다.

《6년전에는 남만우박사의 지능이 최고수준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평이나 같다. 하지만 계층해석에 의해 그의 뇌수가 아주 발달되었고 정상이라는것이 확인된것만큼 그의 지적잠재력을 무시할수는 없다.》

《그러니 그의 지적잠재력을 충분히 리용해야 하겠군요.》

촉기가 빠른 정순은 원사의 의도를 제격 포착했다. 원사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계속하여 말했다.

《남만우박사가 현실과악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남만우박사가 오늘의 지능사회에 적응되자면 현재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2개월의 교육만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 남만우박사에게는 6개월간 지능회복집중교육을 주자는것을 주장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심이 어려있었다. 모든것을 각오한 딸의 결심이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었으나 원사는 그 과학성을 확인하고싶었다. 허나 정순의 결심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삼가해야 했다. 원사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내다보다가 심중하게 물었다.

《6개월간 집중교육이라. 그 기간이면 그가 6년간의 공백을 메꿀수 있을가?》

《그럼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으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뇌수가 발달된 남만우박사의 지적잠재력이 교육의 든든한 기초로 되기때문이에요. 둘째로, 6개월간 진행하지만 교육내용이 6년전의 대학교육의 10배에 달하며 남만우박사의 뇌수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기때문이에요.

요. 셋째로, 가장 우수한 교원들이 동원되기때문이에요. 즉 유능한 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문승주 원사와 그에 못지 않은 총명한 력사학자이며 공학자인 문정순박사가 담당교원으로 되니 말이에요.》

말을 끝맺으며 정순은 아버지를 향해 나보란듯이 얼굴을 내밀며 눈을 감았다. 어리광과 자기 우월감이 응축된 행동이었으나 원사는 질책할수 없었다. 가장 천진란만한 표정과 말속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담은 딸애였던것이다.

《확실히 우리 책임자가 괜찮아. 그렇게 하자!》

4

허전한 기색으로 돌아서는 안해에게 남만우는 안타까이 소리쳤다.

《여보, 잠깐 기다리요.》

그러나 그 말은 입안에서만 댄돌뿐 속시원히 터져나가지 않았다. 안타까움속에 모태기던 남만우는 두팔을 허우적거렸다. 손등이 어딘가에 부딪치는 바람에 그는 눈을 번쩍 떴다. 마침내 의식을 회복한것이다. 주위를 살피니 안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방금 안해가 왔다갔다하는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꿈이었는가? 여긴 어딘가?)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달은 남만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잠시후 자기가 의식을 잃던 순간이 떠오른 그는 이곳이 스위스의 병원일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순간 팔에서 무엇인가가 슬쩍 떨어지는감이 들어 바라보니 로보트가 점적관 비슷한것을 견고있었다. 치료용로보트가 작은 병원들에서도 쓰이는것은 이미 알고있었으나 자기가 직접 그 봉사를 받으니 과학의 발전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한것은 눈여겨볼수록 이미 알고있는 치료용로보트에 비해 지금의 로보트는 외형도 다르고 동작이 보다 유연하면서도 속도가 빨랐던것이다. 이런 최신로보트를 아직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해내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여 혹시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다른 행성이 아닐가 하는 생각마저 얼핏 떠오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그는 침대를 감싸고있던 투명한 유리막이 스프르 없어지는것을 포착했다. 그제야 그는 자기의 팔이 아까이 유리막에 부딪혔뻤음을 깨닫게 되었다. 치료설비들의 멸균상태가 철저하고 아주 현대화되었다는것이 첫눈에 알린다. 남만우가 침대에서 내려서자 로보트의 신호등이 깜박이며 상냥한 목소리가 울렸다.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산보하십시오.》

(저런, 로보트가 조선말도 알고. 놀라운걸.)

놀라움속에 로보트가 가져온 옷을 갈아입던 남

만우는 또다시 놀랐다. 옷과 신발이 너무도 가벼워 신발을 신었다거나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거북스러웠다. 옷을 다 입은 그는 의사를 만나 의혹을 풀고 싶어 출입문을 나섰다. 흐린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나서니 뜻밖에도 널찍한 로대였다. 앞이 확 트인 2층로대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어딘가 낯익은 풍경이었다. 봄을 맞아 활짝 피기 시작한 진달래, 살구꽃들, 푸른 잎새를 펼치기 시작한 나무들... 그는 자기가 서있는 곳이 모란봉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이 옳았다. 마침내 왼쪽의 잣나무와 살구나무들사이로 고색창연한 《평화정》이 안겨들었고 오른쪽에서는 확장되기는 하였어도 본래의 형식을 보존한 옥류관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 여기가 모란봉이란 말인가? 아니 아니, 그럴수 없어. 이거 내가 꿈을 꾸는것은 아닐까?) 낯익은 모란봉이면서도 이전같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앞에 어리둥절해진 남만우는 자기의 팔을 꼬집어보았다.

(이크, 그러니 꿈은 아니군.)

문득 뒤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기미를 느낀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로대에 승용차가 나타났다. 그제야 그는 2층로대와 아래층이 도로로 연결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운전사를 만나 의문을 풀려고 다가가던 남만우는 아연해졌다. 승용차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차가 저절로 왔는가?)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과 수림속사이로 날아예는 새와 나비들이 보일뿐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해서 승용차안을 다시 살피던 남만우는 승용차의 운전대가 없는것을 보고서야 제 이마를 탁 쳤다.

(아차, 위성조종승용차인것도 모르구... 이거 타박상의 후과가 좋지 않은걸.)

자체로 의문을 풀던 그의 눈앞에서련속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차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어서 타십시오.》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던 것이다. 분명 사람은 없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났을까? 신호등이 깜박이는 계기판을 살피던 그는 계기판옆에 붙어있는 액정화면과 확성기를 보고서야 얼마간 의문을 풀수 있었다.

사실 이 승용차는 사람이 차에 접근하면 조종체계에 기억된 사람의 얼굴과 지문, 눈동자무늬자료와 대조해보고 차문을 열게 되어있고 목적지만 말하면 자동적으로 달리는 차였다. 문승주원사가 그를 위해 승용차의 조종체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넣어주었다는것을 남만우가 알려면 아직 시간이 흘러야 했다. 놀라움과 신기함, 호기심을 안고 남만우는 선듯 승용차에 올랐다.

《남만우박사가 아주 대답하군요.》

창가에서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바라보며 정순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도 너처럼 혈기가 왕성한 30대의 젊은이가 아니냐.》

아버지의 말에 공감인듯 머리를 끄덕이던 정순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온몸이 긴장해졌다. 딸의 표정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낀 원사가 묻는듯 한 시선으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데다가 자기의 행적을 장악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는 경우 남만우박사가 오해하고 불만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스쳐 지나갈수 있는것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다. 원사는 침착한 어조로 딸을 안심시켰다.

《그건 나도 생각해본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선택한 방안이 사람의 사회적숙성인 자주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하였고 박사의 지적능력을 계발시키고 자존심을 존중해주는것이므로 크게 걱정할것은 없다고 본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군요. 이제 남만우박사가 찾는 곳이 어딜가요?》

《이미 난 승용차가 박사를 식당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다음부터는 그의 의향대로 움직이게 될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난 정순은 단호하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리라곤 안심할수 없어요. 의혹과 호기심에도 한계가 있는 것만큼 현실파악이 깊어짐에 따라 박사가 고독감과 열등감을 느낄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아버지진 보안기관에 박사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의 생명안전에 대해 의뢰하세요. 그리고 그가 나타날수 있는 곳들을 예측하고 사전통보를 하여 친절하게 대하도록 해주세요. 나는 그와 직접 대화할 때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대답을 그의 지적수준에 맞게 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겠어요.》

《찬성이다.》

사소한 빈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순의 제안에 원사는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딸애를 책임자로 선정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두사람은 즉시 자기 할바를 하기 시작했다.

원사는 해당기관들에 남만우박사에 대한 자료들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친절한 봉사를 해줄데 대하여 의뢰했다. 정순은 컴퓨터를 마주하고 남만우박사와의 대화시에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과 답변에

대한 모의시험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6

2층로대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승용차는 느린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방을 나선 순간부터 승용차라. 이러다가는 발바닥에 털이 나겠는걸.)

너무도 놀라운 광경앞에 남만우는 자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자였음을 잊어버렸다. 승용차가 수림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본래의 형식을 보존하면서 증축된 옥류관이며 대동강건너편에 준비하게 일떠선 초고층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것이다.

(이거 정말 내가 꿈세계에 있는것이 아니야.)

남만우는 믿어지지 않아 자기의 허벅다리를 꼬집었다. 짜릿한 아픔이 느껴졌다. 놀라움과 의혹, 경탄이 엇갈리는 속에 자기의 생각을 정돈해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옥류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었다. 옥류관옆의 지하주차장에서도 자동승강기를 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저런 지하주차장까지 새로 생겼군.)

남만위의 입에서는 편이어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만일 그가 옥류관의 지하에 꾸려진 수중식사실을 보았다더라면 자기가 동화속의 룡궁에 왔다고 생각하였을것이다.

어느새 옥류관은 지나가고 차창밖으로는 천지개벽한 평양의 거리들이 흘러가고있었다.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평양의 새 모습이였다.

《다 왔습니다.》 거리풍경에 정신이 팔렸던 남만우는 승용차의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서야 차가 멎어선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승용차가 달려온 로정이 문승주원사가 그의 현실과악을 위해 특별히 설정한것임을 아직은 알수 없었다. 차에서 내려서니 어느 한 건물앞이였다.

(담당의사가 여기에 있는가?)

한시바빠 담당의사를 만나 모든 사연을 묻고싶어 남만우는 건물의 현관을 보지도 않고 정문을 통과했다. 그가 홀에 들어서서는 순간 정면에 설치된 매대비슷한 설비에서 경쾌한 음악이 울리는것과 동시에 《어서 오십시오. <4계절식당>을 찾아오신 남만우선생을 환영합니다.》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4계절식당》이라니? 게다가 내 이름까지 알고...)

이곳이 자기의 담당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짐작했던 남만우는 어리둥절해졌다. 설사 식당이라고 해도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수 있으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식사를 한단 말인가? 그가 되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상냥한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선생님, 왼쪽통로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을 치료한 문승주원사는 선생님에게 특별봉사를 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남만우는 이때에야 비로소 담당의사의 이름이 문승주이며 원사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배고픔을 느끼고있던지라 그는 원사가 자기를 세심히 돌봐준다는 사실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왼쪽통로로 들어가니 4개의 식사실이 있었다. 식당의 명칭 그대로 매 식사실은 4계절의 특징들을 하나씩 가지고있었다.

남만우는 한여름의 시원한 수림속을 형상한 식사실로 들어갔다. 그가 의자에 앉는 순간 식탁 웃면의 액정판이 켜지더니 요리안내표가 현시되었다.

(식당이 아주 현대적이군.)

내심 탄복하며 남만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짚었다. 그가 식탁에서 손을 내리우기 바쁘게 요리안내표가 사라지고 권고문이 나타났다.

《선생님의 건강상태로 보아 찻죽과 잉어탕을 드시는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건강상태를 알고 그에 알맞는 음식들을 권고하기까지 하니 남만우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조금전에 식당의 왼쪽통로를 통과할 때 통로입구의 신체검사기가 자기의 몸상태를 검사한것을 알리 없는 남만우는 이것도 자기의 《담당의사》인 문승주원사의 세심한 통보에 의한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원사를 만나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봉사원이 오면 우선 문승주원사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있는데 잠시후 나타난것은 뜻밖에도 음식들을 실은 자동밀차였다. 음식들은 자동적으로 식탁에 배렬되었다.

(이거 사람을 만나기가 무척 힘들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지능시대인 오늘날 사람은 지능로동에만 참가하고 다른 부차적인것들은 로봇트가 맡아한다는것을 알지 못하는 남만우인지라 그의 실망과 오해는 당연한것이였다. 《4계절식당》에도 높은 요리기술을 소유한 2명의 요리사가 있을뿐이였다.

남만위의 실망과 오해도 성의가 깃든 음식들에서 풍기는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냄새로 하여 붉은이 녹두트 스프르 사라져버렸다.

몇분후 식사를 끝낸 그가 수저를 식탁우에 놓자 알림문이 나타났다.

《식사가 끝났으면 식당홀에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문승주원사가 곧 도착합니다.》

구미에 맞는 식사를 한데다가 마침내 《담당의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하여 남만우는 앞에 사람이 있길라도 한듯 《고맙소.》하고 말했다. 그가 식당홀로 나섰을 때 첫눈에도 부녀간이

라는것이 알리는 두사람이 식당에 들어섰다.

(이 사람들은 지각생이로군.)

남만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식당에 들어선 두 사람이 자기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했던것이 오히려 옳았음을 깨달으며 그는 마주 인사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담당의사》가 오지 않는가 하여 출입문 쪽을 살폈다. 이때 방금 온 두사람가운데서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한테로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내가 문승주입니다. 그리고 이 애는 나의 딸이고 력사학자인 문정순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세사람은 원사의 제의에 따라 식당홀에 놓여있는 의자에 가앉았다.

7

원사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했으나 너무도 놀라운 사실들이었으므로 하여 남만우는 머리가 땡해졌다.

(그러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인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였다. 6년동안 세계는 얼마나 큰 변혁을 이룩하였던가. 인류의 의식개조와 번영,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때 인간의 지능과 그것의 사회적여정도에 따라 물질적보상과 봉사가 진행되는 사회, 수립화된 사막들...

우리의 조국은 또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는가. 지능정보처리기인 빛량자컴퓨터와 조작체계《고려》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했다는 사실, 세계가 보유한 두개의 종합위성가운데서 하나는 우리 나라가 쏘올린 《광명성 ××호》라는 사실...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현실과 머리속에서 그려보던 지능사회를 직접 보고있다고 생각하니 남만우는 크나큰 환희와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얼마후 생각들이 정돈됨에 따라 자신의 처지가 돌이켜지며 불안감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격세감, 현대사회의 지능수준과 생활방식에 비한 자신의 지능과 생활방식의 열등감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저도 모르게 남만우는 피로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심리변화를 지켜보던 정순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을 이겨내는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조치에 따라 이제부터 나와 우리 아버지가 6개월간 선생에 대한 지능회복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학습후에는 남만우선생도 오늘의 지능사회에 적극 진출하게 될것입니다.》

정순의 말에 감동된 남만우는 자신을 질책했다.

(6년동안 나를 치료하여 소생시켜준 조국의 은

덕을 망각하다니. 내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될번 했구나. 이제부터 학습에 열중하자. 그것이 조국의 은덕에 대한 보답의 첫걸음, 오늘의 지능사회진출의 첫걸음으로 될것이다.)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고 남만우는 원사와 정순에게 절절히 부탁하였다.

《하루빨리 내게 6년을 앞당겨주십시오.》

《우리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결심이 확고한 남만우를 보니 원사와 정순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가 제일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던것이다.

원사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갈 곳이 있는데 우리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세사람은 식당을 나서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원사는 옆에 앉은 남만우에게 물었다.

《참, 내 남만우선생한테 부탁할것이 있는데 들어주겠습니까?》

남만우는 어리둥절해졌다. 초학도나 다름없는 자기에게 부탁할것이 있다니. 그야말로 가물에 단비가 내린 격이라 그는 제격 응답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야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남만우의 적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어 원사는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나는 수면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가능성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선생의 방조가 필요합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이때 뒤좌석에 앉아 두사람의 대화를 듣고있던 정순이 끼여들었다.

《이제 보니 아버지가 꽤 영큼하군요? 어째서 책임자인 나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는가요?》

《허허허, 내가 영큼하다구. 그러니 내가 낡은 사상의 소유자라는건데 고쳐야지. 그럼 우리 세사람의 공동연구로 하자는것을 제기한다.》

《진작 그랬어야지요.》

원사와 그의 딸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남만우는 아연함을 금할수 없었다. 아무리 딸이라고 하여도 아버지의 착상을 공동연구하자고 하다니? 더우기 원사쪽에서는 오히려 미안해하다니? 이런 의문은 그가 지능사회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리해하게 되었을 때 풀리게 되었다.

자기의 생각에 움해있던 남만우는 정순이가 찾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남만우선생, 저기 앞쪽을 보세요.》

남만우는 정순이 가리킨 곳에 눈길을 주었다.

그의 시야에 안겨든것은 자기의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보통문이었다. 출퇴근길에 무심히 보고 지나던 보통문을 6년만에 다시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보통문의 맞은편 장대재기슭에 자리잡았던 자기의 일터 국제문제연구소며 보통강상류에 자리잡은 북새거리의 정든 집, 퇴근길에 거닐던 보통강유보도가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허나 지금은 보통문을 보면서도 방향을 가려보기 힘들다. 이제 와서 평양의 옛모습을 찾으려는 자신이 어리석어 남만우는 쓰겁게 웃었다.

이때 문승주원사가 조심히 그에게 물었다.

《남만우선생, 이제는 가족들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요?》

어안이 병병해진 남만우는 자기가 잘못 들었는가 하여 원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원사의 진중한 표정을 보자 그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사실 6년동안에 이룩된 기적이라 아니할수 없는 현실앞에 어리둥절해진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감감 잊고있던 자신이었던것이다. 그의 가슴은 놀라움과 기쁨, 감격으로 하여 세차게 뿔뿔기 시작했다.

원사는 흥분한 남만우에게 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 아까는 선생에게 더 큰 충격을 주면 안되겠기에 말하지 않았습시다. 지금 우리는 선생의 부인과 가족들이 기다리고있는 집으로 가고있습니다.》

남만우는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어느새 그의 눈가에 맑은 물방울이 맺혔다.

8

평양을 떠난 초전도자기부상식렬차는 시속 500키로미터로 달리고있었다.

남만우는 지금 국가의 배려로 가족들과 함께 마전의 해수욕장으로 가고있었다. 문승주원사와 정순이도 그들일행에 속해있었다.

창밖으로는 산과 들, 거리와 마을이 흘러가고있었다. 남만우는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들을 설명해주는 안해의 얼굴만 바라보고있었다. 6년세월이 흘러갔어도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안해였다. 하건만 6년세월의 흔적인듯 대리석을 다듬은듯 매끈하던 이마와 볼에는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윤기흐르던 검은 머리채에 흰머리카락이 섞여있다. 옆에 앉은 안해를 바라보느라니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사무쳐와 저도 모르게 눈앞이 흐릿해졌다. 6년세월의식없는 자기를 기대감을 안고 찾아왔다가 또 기대감을 안고 돌아가곤 했을 안해였다. 길떠난 사람의 고생보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고생이 더 크

다고 그동안 안해가 흘린 마음속의 눈물은 그 얼마이라. ...

남편의 시선을 느낀 안해가 남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만 보세요. 이제부터는 매일 보게 될텐데...》

《아니, 그런 소리 마오. 솔직히 말해서 당신과 조국앞에 미안하고 죄스럽기 그지없소. 6년동안 조국앞에 해놓은 일도 없고 당신에겐 마음고생만 시켰으니 말ियो.》

《나야 고생한게 뭐 있어요. 정말이지 나라에서는 당신을 위해 큰 품을 들였어요.》

남만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현실과 자신의 현재상태를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생각할수록 사경에 처했던 자신을 6년간의 치료끝에 소생시켜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쳐왔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자니 《현대문맹자》나 다름없는 자신이 돌이켜져 괴롭기 그지없었다.

잠시후 남만우는 굳센 의지가 엿보이는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며 절절하게 말했다.

《여보, 지난날은 물론 오늘날에도 시대의 문맹자, 락오자가 되어가지고는 조국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구만. 내 기어이 6개월간의 집중교육을 앞당겨 끝내고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치겠소.》

《난 당신을 믿어요.》

두사람은 다정히 두손을 맞잡고 오래도록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떨어질수 없는 그들이었다.

경구, 격언

- 《녀인의 눈물은 얼음밀을 흐르는 강물과 같아 남들은 보지 못한다》
- 《젊은 이불은 초저녁엔 좋으나 새벽에는 춥다》
- 《보슬비는 쓸쓸하나 처마끝에 방울을 매단다》
- 《나쁜 놈의 배속을 도려내고 착한 마음 넣어줄순 없는가》
- 《그리워도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다》
-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 《귀족의 문간에는 어중이떠중이뿐이다》
- 《끓는 국에 데인 입은 김치국을 보고도 분다》
- 《가난하고 천하다고 서러워말라. 대신 너에게는 정직이 있다》

내가가꽃땅

박 영 숙

금 별

잔디푸른 긴 수로꼭
열매주렁진 파원길 걸을 때면
산촌에 바친 그 자옥 어려와
나에게 맡기고간 아버지의 금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쓸어보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추억의 샘은 솟아올라라
관리위원장이 영웅이 되었다고
온 농장이 떠들썩하던 날
아버지의 금별을 가슴에 달아보며
이웃들앞에서
마치도 내가 영웅이 된듯이 빼기던 일이...

그 시절
팔밖에 없었던 우리 집에선
내가 아들이기도 하였지
쌍태머리 흔들며 사내애들을 휘여잡을 때면
저게 아들이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서운한 눈빛을 철들며 알았거니

알수 있었던가
조합에 오신 수령님의 가르치심 받들고
물길도 새로 짜고 저수지 언제도 쌓던
그 술한 로동일들이 금별에 스며있는줄
산기슭 나무등걸 뽐아버리고
새 파원을 일구던 그 진한 땀들이
금별에 어려있는줄

그 시절의 내 나이는 너무 어렸다
수령님 펼치신 농촌테제를 받들어
고향땅을 가꿔온 그 마음 깨닫기엔
허나 이 땅에 새겨가는 삶의 나이와 함께
그 뜻을 깨우쳐주는 금별
내 가슴속에 언제나 안고 살거니

진정 아버지의 금별이라고
이 딸에게도 명예로 빛나는것이라
산촌에 력력한 아버지의 자옥우에
내 걸음 빈포기처럼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 금별 오히려 빛을 잃게 되려니

철없던 그 시절
제것처럼 제것처럼
금별메달 달고 이웃들앞에서 빼기던 일...
그러나 이제는
그 금별메달 두손으로 받들기도마냥 무겁다

아, 아버지
나에게 금별을 넘겨준것 아니었다
수령님품속에서 받아안은 자기의 삶 이어가라고
장군님 빛내가시는 선군의 대지를 가꿔가라고
아버지는 명예아닌 뜨거운 당부를
이 딸에게 남겨놓았구나!

아버지는 이 별에 서 있어라!

하루일 마치고 마을길 들어서며
풀 한단이라도 거름무지에 더 었을 때면
별에 흘린 땀알들이 아까워
이삭주머니 차고
한이삭 두이삭 소중히 주어갈 때면

이 별에서 수령님 뜻을 앞장서 받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듯
마을사람들이 날보고 저마다 하던 말
—관리위원장 딸이 아버지를 닮을것 같아

때아닌 폭우로 수로꼭이 흔들릴 때
한몫 그대로 모래가마니 되어
물에 뛰어들 때에도
마을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
—관리위원장 딸이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거던

한줌의 비료가 귀해
포전길에 흘린 비료를 쓸어모을 때도
한뼘기 땅도 묵일세라
밤낮으로 밭을 갈고 진거름낼 때에도
마을사람들이 뜨겁게 하던 말
—관리위원장 딸이
아버지를 신통히도 닮았어

그럴수록 이 땅을 걸구며
수령님 뜻을 어긴적 없는 아버지처럼
장군님 뜻을 꽃피가며
양어장도 꾸리고
소형발전소도 세울 때
마을사람들이 더 정답게 외우던 말

—정말 그 아버지에 그 딸이야

아, 농장에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흙물묻은 나의 손 꼭 잡아주시며
이제는 농장의 주주가 되라고
나를 보니 눈빛에서 수령님을 마중나오던
그 아버지를 만난것만 같다 하실 때
어찌하여 그 품에 얼굴 묻고말았던가

푸른 산촌이여 물어보자

정녕 아버지는 이 벌에 없는가
그 숨결처럼 버이삭은 설레이고
그 마음처럼 과일은 저리도 향기로운데...

아 어버이장군님의 그 믿음속에
아버지는 이 땅에 빈자리 남겨놓지 않았어라
우리 장군님을 쌀로 받드는
이 딸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서있어
오늘도 아버지는 이 벌에 서있어라!

내가가꿀땅

풍요한 이 가을날
이삭물결 흥치는 두렁길에 나서면
어데론가 자꾸만 걸고만싶다
선군의 이 시대가 펼쳐준 새 마을길에 들어서면
왜선지 깊은 생각에 묻히고만싶다

어떻게 전번된 이 산촌인가
산골 폐기밭이 천리벌로 이어진
그 땀들이 깃들어있는 내가 가꿀 땅아
영웅아버지가 썼던 그 자리에 이 딸을 세워준
장군님 그 믿음으로 안고사는 내가 가꿀 땅아

철부지였던탓에
협동조합이 무어지던 그 나날에 내 홀린 땀은
없다
그때문인가 이랑이랑에 뿌리던 피와 땀
앞선 세대의 그 수고로움 그 헌신앞에서
나는 이삭처럼 고개를 숙이고만싶다

돌밭까지 일구어 논을 풀던
아버지 어머니세대들
그네들이 다져놓은 협동의 터전에서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첫걸음인듯싶구나

우리 수령님 다 가꿔주신 이 산촌
우리 장군님 선군의 대지로 지켜주시는 이 산촌
하여 애오라지
성스러운 사명만이 기다리는 내 가꿀 땅아
보답의 길만이 남아있는 내 가꿀 땅아

어제날 값이 없던 아버지의 인생이
수령님사랑속에 영웅으로 꽃폈듯이
행복만을 안고자란 평범한 이내 삶도
우리 장군님의 믿음속에 여기서 열매맺으려니

걸고만싶구나 걸고만싶구나
기쁨도 고난도 땅과 함께 나누며
대지에서 이삭으로 수령님을 받들어간
그네들처럼 살리라
자옥마다 의지로 불타는 내 가꿀 땅아

선군시대의 숨결이 흐르는 이 대지우에
삶의 순간순간 씨앗처럼 묻으며
우리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또하나 시대의 금별을 떼땀이 지닐
이 딸의 맹세 식지 않을
아아 내가 가꿔야 할 땅아!

상식

인재의 능력평가기준

지난 시기에는 고급한 과학기술인재가 소유해야 할 능력을 높은 지식과 컴퓨터기술, 외국어 등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재 다음의 3가지로 전환되어 심화되고있다.

첫째로, 인재는 높은 정보처리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사물현상들과 정보들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선택하고 이러한 정보를 종합, 분석, 비교하여 가장 앞선 수준을 보장하거나 통가하며 자체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전략을 세워 실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로, 경쟁능력과 협동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지난 시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하고있으며 인재의 경쟁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관건적인 요인으로 된다. 한편 주관적인 판념, 자존심과 독단적인 요소가 많이 지배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한 첨단과학기술 파제는 연구기간이 길면서도 성공률이 낮은 반면에 인재들의 집체적인 협동에 의거하면 어려운 연구과제도 최단기간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인재들이 집체적인 협조, 협동능력을 소유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고있다.

셋째로, 몇가지 속성학습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한 과학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비하는 시간비율을 보면 정보수집 및 분석이 50%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현시기 과학기술정보량이 방대한 규모로 급속히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인재는 이러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최단기간내에 빨리 보고 리해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철학적 형상

오 춘 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작가들이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성이 있는 명작들, 혁명적인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기를 바랍니다.》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성이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선군시대 인간형상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며 명작창작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오늘 선군시대 인간들의 생활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비할 바없이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정신력은 무한대하며 강렬한것으로 특징된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들의 풍만한 생활속에서 발휘되는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사상정신적특질, 무한대한 정신력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사상미학적감화력이 크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생활이 빈곤하면 인간형상이 메마르게 되고 기쁨진 화폭을 창조할수 없으며 철학적의미도 깊이있게 밝힐수 없다. 단편소설인 경우에도 생활을 진실하게, 풍만하게 그려야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을 선명하게, 생동하게 매력적으로 드러낼수 있으며 그 생활과 인간의 운명속에 담겨진 철학적진리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시대, 선군시대 인간들의 철학적형상만을 언급해보려고 한다.

단편소설 《가시오갈피》 [김홍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8(2009)년 3호]는 강한 정신력을 지닌 선군시대 인간형상을 비교적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성전에서 자기 한몸 아낌없이 통채로 내대는 일군, 어머니조국,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과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하고있는 선군시대 인간의 성격적특질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단편소설의 적은 용량을 가지고 주인공의 성격을 생활적으로 특색있게 형상할수 있는 《가시오갈피》에 대한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통하여 어머니조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형성되고 심화발전되었으며 조국을 위해 바치는 강의한 정신력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어떻게 발휘되고있는가 하

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면서 철학성을 심도있게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에서 강의한 정신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 하는것을 운명적으로 연결된 어머니와 조국과의 관계속에서 특징적으로 개성화하여 보여주고있다.

해방전 조국을 빼앗겼을 때 자식 넷을 낳았지만 하나는 굶어죽고 둘은 홍역을 앓다가 죽었으며 또 하나는 오막살이에 눕혀놓고 발일 나간 사이에 뱀한테 물려죽어 자식복이 없다고 한탄하며 단산을 결심한 어머니,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고 받드는 길이 곧 가정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가꾸는 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조국을 결사수호하기 위해 전선으로 탄원해 나가게 되자 후대를 위해 다시 낳게 된 다섯번째 아이, 잘 자라던 그가 갑자기 앓기 시작하여 가시오갈피를 손으로 꺾어다 달여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하였지만 병은 더 심해져 죽음이 경각에 이른다. 미제의 세균탄피해를 받은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은혜로운 긴급조치에 의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소생한 아이, 그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가시오갈피》인것이다.

전선에 나간 아버지가 전사하여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보육원으로 일하는 탁아소에서 학교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란 그는 그 누가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온몸지 않은 딸이라도 할라치면 뽕을 세우고 사납게 대들며 가시를 곤두세우다가도 엄마가 앞으면 효성이 무척 지극하다. 어머니는 그에게 있어서 하늘이고 땅이며 이 세상 모든것이다. 홀로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여 인민군대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망설이는 아들을 시라소니같은 자식으로 키웠다고 아들과 자신에게 회초리매를 안기는 어머니. 소설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이 군사복무시절에 신성한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의 열정으로 승화되게 형상하고있다. 대대정찰참모로서 강 건너편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자리표제원을 측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일부 군인들이 강을 건너지 않고 교차측지방방법으로 측정하려고 하자 그는 《우리가 사소한 제원편차라도 내서 적들을 명중하지 못하면 살아남은 그놈들때문에 귀중한 조국과 우리 인민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는걸 모르는가. 자기 어머니를 해치려는 원쑤가 앞에 있다면 동무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놈을 살려둔채 피해서 돌아가겠는가.》라고 준절히 타이르며 어머니조국을 해치려는자들은 주저없이 무자비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견결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을 심어주는것이다.

인민군대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그는 군사임무수행중 산탄에서 굴러내리는 돌을 한몸으로 막아 부대군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부상당하며 치료를 받고 제대되어 고향 광산으로 돌아오지만 나라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하고 하루 세끼 밥이나 축내며 숨이나 쉬고있다고 하여 살아있다고 말할수 없으며 죽은 목숨이나 같다고 하면서 불편한 몸이지만 산밭을 타고다니며 광물탐측일을 맡아하는것이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광산부지배인이 된 그는 《고난의 행군》시기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책임지고 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여러가지 조건을 타발하는 일군들에게 광산을 살리자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며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만이 할수 있다는 대답이 그의 심장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서 모두가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원썬들은 절대로 어머니의 생활을 다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원썬들에게 곤두세우는 그의 마음속 《가시》이며 한집안 살림살이를 걸머진 어머니가 힘에 부쳐할 때 자식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어린 힘이나마 부축하면 한결 험한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한뭉씩 말아나선다면 나라가 걸머진 짐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다는것이 그의 생활신조이다.

《조국은 너한테도, 너를 낳은 이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란다. 나라의 은덕으로 너는 두번다시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자랐고 나 또한 자식을 낳아키우는 락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고있단다. 너는 이 에미를 위해선 손가락을 베였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한몸을 통채로 바쳐야 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이 말을 그는 한생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와 조국을 하나로 생각한다. 어머니이자 조국이며 조국을 지키는 길이 곧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이 그의 마음속에 무쇠처럼 굳세게 자리잡고 있는것이다.

석동굴에서 품위높은 광맥지질단서를 잡고 굴진을 진행하던 광산일군들이 자재와 로력을 더 보내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밀 때 병원에 입원해있던 최명식지배인은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강성대국의 대문은 앉아서 기다린다고 저절로 열리지 않으며 그 누가 열어주지도 않는다, 오직 제힘을 믿고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우리들자신의 손으로 열어제껴야 한다고 불려일으키며 마침내 성공의 날을 앞당기는것이다.

작품은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인물관계를 매

우 간명하게 주인공인 최명식지배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웃에서 함께 살아왔고 군사복무도 한부대에서 한 탐측과장 김성문, 세 인물을 생활적으로 밀접히 련결시켜놓고 가시오갈피 생활세부를 중요계기마다 반복심화시키면서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밝히고있다. 인물관계는 단순하지만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바쳐진 생활은 다양하며 폭이 넓고 깊이가 있다. 주인공의 운명에서 성격적특질이 드러날수 있는 극적인 계기들을 옹기 선택하여 세부묘사를 주면서 주인공의 강한 정신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고화되었으며 높이 발휘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철학적깊이가 있게 형상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한뭉을 말아나선 선군시대 인간전형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이 작품은 현실적으로도 의의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철학성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작가는 새롭게 발견한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심어놓고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워야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수 있다.

단편소설 《뿌리와 열매》 [최상기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8(2009)년 1호]는 실한 뿌리들이 깊이 내려야 알찬 열매가 무겁게 실린다는 철학적인 종자를 심어놓고 혁명적신념과 배짱을 가진 선군시대 인간의 성격적특질을 형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배짱, 강의한 의지를 가진 선군시대 인간의 전형적특질을 신념이 확고치 못하고 의지가 허약한 사람들과의 심각한 사상적대결과 투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당이 밝힌 새로운 과학농법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배심을 가진 주인공인 작업반 김용범기술원과 신념이 확고치 못하여 주저하고 동요하는 조성덕작업반장, 새로운 논벼재배법의 우월성을 믿지 않고 아무런 과학적담보도 없이 무작정 높은 수확만을 바라며 주관과 독단을 부리는 오영순관리위원장을 대치시켜놓고 심각한 대결로 극성을 부여하고있다. 작품은 인물들의 극적인 대결속에서 뿌리가 억세지 못할 때 열매는 허약해지고 이 땅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만 뿌리가 깊이, 억세게 내린 곳에는 언제나 알찬 열매가 실린다는 생활철학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과학농법의 시대 농사는 철저히 과학적인 농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과학적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김용범기술원은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의 우월성은 식물체본성의 요구로부터 뿌리가 깊이 뻗어야 땅속의 갖가지 미량원소들까지 빠짐없이 섭취하여 벼대를 든든하게 하고 열매를 충실히 여물게 한다는 과학적원리에 기초하여 《7》재배법을 도입하기 위해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이다. 그것은 이 재배법이 로력과 영농자재를

적게 들이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실리적인 재배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성덕작업반장은 지난 기간 물, 비료, 전기, 각종 영농자재를 넉넉히 보장받는 조건에서 배부르게 농사를 지어온 탓으로 낡은 농사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농사법도입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동의해나서는것이다. 처음에 새로운 재배법을 도입하였을 때 초기작황이 너무도 황량하여 농사를 망쳤다고 하면서 오영순관리위원장은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자육이 깃든 신성한 땅에 《상처》를 입혔다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새로운 재배법도입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하지만 기술원은 새로운 재배법의 우월성을 과학적신념으로 체득하였기에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자리에서도 당당히 맞서며 수확계절에 새 농사법을 받아들인 포전의 천알당 질량과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것을 실물로 확증한다.

새해농사대책안을 토의할 때 조성덕작업반에서는 기술원의 주장대로 어벌이 크게 새로운 재배법도입면적을 지난해보다 몇십배 더 늘일것을 계획한다. 과학적신념이 허약한 작업반장은 너무 벅차다고 주저하지만 기술원은 농사를 짓는건 우리자신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책임지고 하자고 주장하며 눈치를 보고 주저하며 새로운 재배법의 우월성을 믿지 않는 작업반장을 타매하는것이다.

신념이 굳센 주인공은 담력과 배짱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것이다. 관리위원장은 새해농사대책안을 밀어던지며 관리위원회를 우롱한다고 펄쩍 뛰지만 알곡수확을 높일수 있는 과학적방도를 찾지 못하고 주관적욕망만 앞세울뿐이다. 씨뿌리기가 끝나고 눈에 물을 잡았을 때 관리위원장은 씨앗들이 싹도 터보지 못하고 썩어나게 한다고 당장 논물을 빼라고 지시한다.

새로운 재배법에 대한 확신이 희박한 작업반장은 그의 지시에 응하지만 기술원의 안해는 과학농법의 우월성을 확고히 믿고있기때문에 논물을 뽑지 못하게 막아나서며 군에 회의갔던 기술원은 밤새 눈에 다시 물을 잡는것으로 관리위원장과 작업반장에게 도전해나서는것이다. 당이 밝혀준 과학농법대로 농사를 짓는가 못 짓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과학기술적문제가 아니라 당의 방침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사상정치적문제이며 당의 의도대로 하면 된다는 신념과 의지에 관한 문제로 형상을 심화시키고있다.

늦봄에 새로운 재배법을 도입한 포전의 논벼상태를 돌아본 관리위원장은 작업반장과 기술원에게 더는 이 땅을 동무들에게 맡길수 없다고 사업정지처벌을 주며 쇠보습을 단 프락프르를 끌어다 갈아엎고 종전의 방법대로 다시 농사를 짓자고 자기의 주관을 내려먹이려 한다. 하지만 기술원은 당의 의도에 대한 절대적믿음을 가지고 작업반농사는 새로운 과학농법대로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

고 하겠다고 단호히 막아나서는것이다.

작품은 혁명적신념과 배짱이 있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을 신념이 허약한 인간들과의 첨예한 사상정치적대결속에서 예리하게 형상함으로써 극적인 견인력을 가지고 작품의 철학적심도를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이와 함께 첫 부분에서 가을철 《뿌리와 열매운동회》, 마감부분에서 경기총화와 함께 진행되는 작업반별 야유회 생활세부를 다채롭게 그려보임으로써 웃음과 랑만이 흘러넘치는 선군시대 농장원들의 다정다감한 생활을 풍만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철학적형상,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들의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단편소설 《재령처녀》[동의희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8(2009)년 1호]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 선군시대 애국농민을 형상하려 하였지만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새로운 높이에서 사상예술적수준이 있게 형상하지 못하고있다.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는 선군시대 인간의 사상정신적품모가 뚜렷이 안겨오지 않는다. 주인공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개성화하기 위한 인간관계설정이 인위적이고 생활적인 진실감이 없으며 인상깊은 세부묘사가 주어져있지 않다.

주인공인 제대군인처녀작업반장이 김제원농민의 애국의 넋이 깃든 포전의 흙을 개량하기 위해 집합에 들어가지고 농업대학 기숙사호실에 가져가고 농업과학원 연구사부부가 주변농장에서 땅세척제를 연구한다는 사실과 사건, 농업대학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모내기때에 조직하고 대학생들의 실습지과견과 실습지도를 교원이 아니라 학급장이 하는 사건, 주인공이 연구사가 연구한 세척제로 땅을 개량하여 농사를 잘 지어 애국미를 바쳤다는 이야기, 작업반장은 후에 읍주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되고 학급반장은 그의 남편이 되어 군인민위원회 일군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생활론리, 성격론리에 따른것이 아니라 작가가 인위적으로 꾸몄다는 느낌밖에 주지 않는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들의 형상을 선군혁명문학사에 기록될 명작으로 창작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져진 무한대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돌격전의 앞장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형상을 명작으로 창작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어머니 — 이 부름앞에 외 1편

김진주

잠시라도 못 보면
살수 없는듯
이른아침 잠에서 깨어나도
늦은밤 집에 들어서도
제일먼저 찾는 그 이름 어머니 —

어머니 — 이 부름을
내 얼마나 많이도 들었던가
때없이 찾는 아이들앞에
이제는 습관되고도 남으련만
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니
생각이 많아지더라
마음이 무거워지더라

정말 내가 어머니이던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그것만으로
어머니 — 이 이름을
그리도 쉽게 날마다 레사로이 들으며
내가 어머니임을 뿔뿔이 말할수 있던가

자식은 부모를 닮고
부모의 한생은 자식의 한생에 비끼더라
나의 품에 안아
내 젖을 먹여 키운 나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티가 묻은 나의 생을
그대로 닮는다면 내 어이 어머니라 말하랴

단 한순간도 단 한결음도
헛디딜수 없구나
때로 힘겨워 주저앉았다가도
나약해진 내 모습 보며 애들이 나약함을 닮을가봐

일을 해도 성실하게 참되게 하고싶고
말을 해도 진실한 말을 하고싶어라
거짓과 위선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삶을 자식들앞에 보이고싶어라

헐치 않아라
어머니라 불리우는 순간순간을
자식들의 거울이 되게 산다는것은
허나 어머니 — 이 부름앞에
내 부끄럽지 않게 서고싶어

깊은 한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쉴수 없으랴
강냉이 한이랑이라도 더 알뜰히 김매게 되고
거름 한무지라도 더 내어
자식들이 물려받을 이 땅을 더 살찌우고싶어라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
그 애들이 살게 될 이 땅을 더 풍요하게 하고싶어라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삶이 그대로
아이들의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세찬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억센 의지로 될 때
고향앞에 조국앞에
당당히 한몫을 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리

이 세상 가장 큰 헌신과 진정을 다 합친
이 세상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을 다 합친
어머니 — 이 부름앞에
내 언제나 부끄럽지 않게 서리라
아름다운 삶으로 뿔뿔이 서리라

어머니의 눈빛

세월은 흘러
어머니슬하를 떠난지 오래여도
내 잊을수 없으랴
언제나 정이 흘러넘치던 어머니의 그 눈빛
언제나 사랑이 출렁이던 어머니의 그 눈빛

가없이 푸르른 저 하늘에 비기랴
그 끝을 모르는 대양에 비기랴
나에게 온 세상으로 비껴들던
아, 어머니의 그 깊고 그윽한 눈빛

지금도 눈앞에 선하구나
유치원시절

빨간 별을 타온 나를 파스한 품에 꼭 안아주던
어머니의 웃는 그 눈빛이
놀음에 정신팔려 늦게 들어온 밤
배고플세라 내 입에 별식을 넣어주던
어머니의 자애깊은 그 눈빛이

전호가의 한밤이면
밤하늘의 별빛에 다정히 어려오고
혼련의 힘든 행군길 내 뒤떨어질 때면
조용히 내 마음속에 찾아와 따뜻이 힘을 주던
어머니의 그 눈빛

내 한생 잊을수 없으랴

기쁘면 기뻐서 빛나던 그 눈빛
 숙태우면 속이 타 그늘지던 그 눈빛
 그 눈빛은
 내 인생의 먼먼 길에
 자욱자욱 헛디딜세라 빛이 되어주고
 걸음걸음 떠질세라 힘이 되었나니

진정 어머니의 그 눈빛 있었기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속에

창조의 한밤을 지낼수 있었고
 아름다운 희망에 넘쳐
 맘껏 삶의 나래를 펼칠수 있었나니

오늘도 나의 이 심장에
 한생 식지 않을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며
 조국앞에 말없이 나를 떠밀어주는
 어머니의 그 눈빛
 어머니의 그 눈빛

나의 대답

김 정 삼

천만마디 말로써도 다 노래할수 없는것
 조국이라 하였건만
 단 한마디에 담을수 있는것 또한 조국임을
 축복받은 나의 삶은 웨치고있다

한가슴에 아침해살 함뻑 받아안으며
 환희로이 들어서는 대학등교길
 인민대학습당의 대리석층계를 내려
 수양버들 휘늘어진 대동강반을 거닐 때도
 심장속에 후더이 일어서는 그 메아리

아, 조국이어
 얼마나 크나큰 은혜에 목메이는 내 삶이더나
 북방의 공장마을 평범한 로동청년을
 그대는 얼마나 높은 행복의 절정에 받들어 세웠
 느냐

눈앞엔 꽃향기 날리는 넓은 교정길
 사랑의 품인양 나를 부르고
 머리들면 희망의 나래 한껏 펼치라고
 배움의 창가들이 하늘가에 웃고있는 이 땅

깊어지는 생각이어
 돈이 인간의 운명을 저울질하고

그앞에서 인간의 자유가 울고있는
 저 지경밖에서 받아안은 이 삶이었다면
 꿈조차 꿀수 없는 오늘의 이 영광

천만마디 말로써도 다 담을수 없는
 한생을 노래해도 다 담을수 없는
 이 땅의 공민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더더욱 알수 없는 사무친 이 심정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을
 높은 대학의 강의실에 앉혀주고
 해빛밝은 그 창가를 지켜
 어버이장군님
 췌기밥과 쪽잡으로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오, 신성한 내 조국의 품이어
 그 무엇과도 아니 바꿀 내 운명의 요람이어

누구든 우리 조국에 대해 알고싶어한다면
 이 심장은 단 한마디로 웨치리라
 이 나라 아들딸들의 자욱마다 울려오는
 행복의 노래소리를 들으라고
 영원한 나의 조국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들으라고

조선속담

고집, 억지

- 길로 가라니까 메로 간다
- 닭의 고집
- 덕석이 멍석이라고 우긴다
- ※ 덕석—추울 때 소잔등에 썩워주는 짚으로
만든 물건
- 쟁반이 팡주리같이 길고 깊다고 우긴다

- 딱딱하기는 삼년 묵은 물박달나무같다
- 팔 고쳐주니 다리 부러졌다 한다
- 외나무다리에서 발맞추라고 한다
- 송아지 천자 가르치듯
- 바늘구멍으로 코끼리를 몰라(려) 한다
- 단잠을 달지 앓다고 말(을) 한다
- 내 노랑병아리만 내라고 한다
- 남의 술에 삼십리 간다
- 애동호박 삼년을 삶아도 이발도 안 들어간다

《은하수》외 1편

강 문 혁

이젠 별들이 나하고 말을 해요
 눈같이 하이얀 비누에
 파아란 상표가 붙은 《은하수》
 주는 정 아는듯 사랑을 속삭여요
 비누포장공 나에게

서툴기만 했어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눈엔 익고 손엔 설어
 불합격된 제품을 부여안고
 혼자 울기도 했어요

일숨씨 날랜 언니들처럼
 언제면 척척 보란듯이 해제낄까
 속상해하는 내 어깨우에 놓인것은
 반장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고
 《은하수》 비누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은
 내 마음속에 별이 돋게 했어요

고생도 많이 한 우리 인민이기에
 하늘의 별도 따주고싶으신
 어버이 그 사랑이 비껴흐르는 《은하수》엔
 가장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여야 했어요
 가장 순결한 땀이 깃들어야 했어요

뿔다 사라지는 자연의 별이 아닌
 사람들의 맘속에 지지 않는 별

사랑의 은하수여야 했기에
 《은하수》 비누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웃음이 나의 웃음이었고
 꽃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랑의 비누향기가 나의 행복이었어요

인젠 내 마음 다 아는듯
 상표우에 새겨진 별무리들이
 생긋 웃으며 나하고 친하자 말을 해요
 그럴 때면 밤하늘의 별들도
 수집음인듯 시샘인듯
 글썽 조용히 사라지는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흘러온 보람찬 나날에
 난 어엿한 고급기능공이 되었어요
 인민들이 《은하수》 비누를 좋아한다시며
 우리 장군님 것처럼 기뻐하시었을 땐
 《은하수》를 부여안고 말을 했어요
 —이 나라 집집에 흘러갈 《은하수》야
 너를 영영 지지 않게 할테야!...

아! 내 조국의 푸르른 하늘아래
 영광의 일터에 뿌리 내리고
 사랑의 《은하수》와 청춘을
 한운명으로 잇고 살 보람찬 그 길에서
 난 언제나 《은하수처녀》로 꽃필래요!

백두는 곱어 본다

떠나노라 백두여
 성스런 항일의 친구들이여
 렬차는 출발신호를 울리는데
 내 마음 천고밀림을 불안고
 너를 바라보며
 눈길을 떼지 못하노라

잇고선 못살
 삶의 피줄기런듯
 지금도 차창너머로 어려온다
 선렬들이 새긴 나무의 글발들이...
 귀가에 쟁쟁히 들린다
 전장마다 드높던 항일의 총성이...

너는 정녕 혁명의 교단이였다
 우리 대학생답사의 낮과 밤이
 투사들의 피더운 숨결을 느끼며
 그 넋을 삶의 자양으로 가슴 벽차게 받아안던

혁명수업의 귀중한 나날이였다

내 배낭속 깊은 곳엔
 가볍지 않은 한줌 흙 소중히 싸있고
 순풍에 돛 달고선 백두의 행군길 못 간다고
 이 몸을 깨우치던 산상의 눈보라가
 스승의 목소리인듯 가슴을 흔드나니

백두여! 내 만약
 폭풍치는 혁명의 길에 쓰러진다면
 배낭속의 한줌 흙, 수첩속의 시편이
 이 몸을 산악처럼 일떠서게 하리
 내 만약 과학탐구의 먼길에서 멀미 한다면
 백두의 이깔이
 등허리를 후려치리라

백두는 사랑으로 뜨거워도
 믿음의 배반자는 가차없이 징벌하리니

백두의 강의에 귀기울이지 않는자
 천길 치욕의 나락에 덩굴었고
 백두의 적기기를 생의 행진곡으로 새길 때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승리자의 웃음 지었나니

잊지 않으리라
 백두의 신념, 백두의 믿음을
 변치 않으리라
 그대앞에 다진 삶의 선서를
 그 어떤 지변에도 그대의 목소리만은 가려들고

그 어떤 역풍에도 그대의 붉은기만을 펴력이는
 그대의 충직한 제자로 생을 빛내리라

오! 백두는 굽어본다
 출발의 기적소리 명령처럼 울렸거니
 성스러운 백두의 강의에
 혁명가의 최우등졸업증으로 대답하리라
 우리의 수업은 끝나지 않았다!
 백두의 강의는 끝나지 않았다!

작가일화

무엄한 독자와 대범한 작가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 제1부가 출판되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기 바쁘게 그들에게서 편지가 비발치듯 날아왔다. 자기들의 독후감을 올려보내며 밑에는 명희와 영기의 관계를 어떻게 하렵니까 하는 불같은 질문을 해왔다.

어느날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당시)의 한 학생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는 작가가 앞으로 마영기와 배명희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결속하게 될것이라는 자기의 예상을 피력하여왔다.

2부의 시작에는 고향마을 신안동으로 들어서는 배명희가 등장한다. 그가 언덕에 올라 불빛이 반짝이는 신안동마을을 내려다보니 마을에선 토지개혁의 승리를 경축하는 요란한 농악소리가 울려온다.

명희는 굳게 마음 먹고 되돌아온 길이지만 마을로 정작 들어서자니 발걸음이 떼여지지 않는다. 그토록 안타까이 붙잡던 마영기의 진정을 물리치고 아버지 배덕수를 따라나섰던 자기의 행실이 몇몇치 못했고 또 그와 결합될수도 없는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생각하면 선뜻 마을로 들어설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어데론가 정처없이 떠나간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었다.

어느날 야전군의소에는 무공을 세우고 사경에 처한 한 인민군소대장이 담가에 실려왔다. 배명희 간호장을 비롯한 군의소사람들은 이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 경황이 없다. 수술을 끝내고난 다음 배명희간호장은 그의 침대에서 떠나지 못한다. 지금 의식이 없이 조용히 누워있는 그가 바로 어제날의 그 열렬하던 마영기였던것이다.

배명희는 신안동마을고개에서 돌아선 다음 강원도지방의 어느 제사공장에 들어가 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 전선으로 환원해나온것이다.

명희는 오때에도 잊지 못하던 그를 여기서 만나게 되어 그 기쁨은 참으로 컸다. 명희는 마영기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한다. 자기의 피를 뽑아 그의 몸에 넣어주기도 한다.

며칠후 마영기는 의식을 차리고 명희를 알아본다. 후에 영기와와 담화에서 명희는 그에게 다섯살난 딸애가 있고 무던한 처가 있다는것도 알게 된다.

어느날 야전군의소가 적들의 폭격을 맞게 된다. 명희는 중환자들을 방공호로 업어나른다. 폭탄이 터지고 기총소사가 비발치듯 하는 속에서 명희는 간난신고를 해서 부상병들을 하나둘 업어내왔다.

어느덧 명희는 마영기를 등에 업고 방공호로 달린다. 그러다가 마주 내려오는 비행기를 보며 등에 업었던 영기를 내려놓고 자기 몸으로 덮었다.

쿵튀듯 하는 한줄기의 기총소사가 지나갔다.

배명희는 등에 총알을 맞고 더는 일어나질 못했다. 그래서 마영기는 구원되었지만 명희는 그를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다.

...

그 대학생은 편지에서 작가가 반드시 명희의 운명을 이렇게 해결할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말 무엄하기 짝이 없는 독자였다. 이제 겨우 문학의 초입에 들어선 일개 학생이 어떻게 대가의 형상세계에 제멋대로 뛰어들어 감히 구상단계에 있는 인물들의 운명을 론단할수 있는가.

하지만 천세봉은 대범한 작가였다. 문학을 끝없이 사랑하는 작가에게는 초학도의 대담성과 당돌함이 오히려 기특하게 여겨졌고 학생의 문학적열정과 미래를 아껴주고싶었다.

천세봉은 앞으로 《대하는 흐른다》의 제2부에서 주인공들의 운명을 《무엄》한 독자의 《예언》대로 쓰리라 결심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의 속편을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하여 한마디 해달라는 중앙방송의 요청에 천세봉은 주저없이 그 학생의 편지를 그대로 공개하는것으로 인사말과 대답을 대신하였다.

김 학

나래를 퍼덕이라



김 경 일

시내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벗어나면 나지막한 야산기슭에 명미가 다니는 구두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전문학교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하고 아버지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이 공장 기술준비실에 배치된지도 벌써 몇해가 잘된다.

준비실엔 처녀설계원이 셋인데 명미보다 한살 두살 차례로 아래인 두 처녀는 도안을 그리거나 신율기초본지를 뜨면서도 가끔 총각들을 저울대에 올리곤 했다.

《명미언니,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기술파에 새로 온 기사 봤어요? 이름이 뭐라드라...》

참새 벼알 쪼아가듯 다른 처녀가 나꾸어줬다.

《강철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굴이 훨씬게 사색형이구...》

명미의 불우물가에 랭소가 스쳤다.

《남잔 렵이 날라롭구 좀 갱핏해야 표준이란 다.》

《아, 지배인동지처럼요. ... 언닌 아버지와 비슷치 않으면 죄다 표준이하예요?》

《지배인동지가 외형이야 뭐... 기술이 높으니 그렇지.》

《이 애들이 정말!...》

명미가 딱딱한 합성수지신골을 집어들자 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덴갑을 했다.

그리고는 모두 깔깔 웃어댔다.

사실 중년시기부터 공장의 가장 손꼽히는 기술자로 존경을 받고있는 아버지께 대해 명미는 남다른 긍지를 품고산다. 아버지의 침착하고 도고한 성격이며 지어는 예리하고 가느스름한 눈매조차 명미에게 자랑과 긍지의 원인으로 되었다. 지배인 정민 역시 외동딸에게 기울이는 정이 참으로 극진

했다. 아침마다 정찬 담소를 나누며 출근하는 부녀의 모습은 팔 가진 아버지들이나 아버지 모신 딸들의 시새움과 부러움을 자아내곤 했다. ...

명미는 새로 뜬 부분품형지를 가지고 철운 기사를 찾아갔다. 방이 비어있어 2층에 있는 제화 직장에까지 올라갔다.

규모있게 가로세로 천정을 지나간 하얀 배풍판들에서 바람 흐르는 소리가 시원스레 들려왔다. 신발교연마기며 진공가류기가 고르롭게 진동하는 드넓은 작업장에 파란 작업복을 입은 처녀들이 자동흐름선을 따라 주런히 마주앉아 갑피며 창을 비릇한 구두부분품들을 날렵하게 조립하고있었다.

급속랭동장치를 지난 완성품이 쉼없이 신골과 분리되는 탈형기앞에서 직장장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철운이 보였다.

형지를 받아들고 돌아서던 철운이 문득 명미의 발치를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신발에 무엇이 묻었나싶어 명미도 얼른 살펴보았다. 굵높은 밤색구두가 먼지 한점 없이 자르르 윤기를 흘리고있었다.

《왜 그러세요, 기사동무?》

《신고있는 구두가 우리 공장 제품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아니, 그지요.》

그가 싱긋 웃음을 보였다.

명미는 은근히 부아가 났다.

(싱검둥이같으니...)

저도 모르게 눈에 힘을 주고 별이 쏘듯 콧 내쏘았다.

《기사동무처럼 꼭 제 공장 신발을 신어야만 맞인가요?》

철운이 의아쩍게 눈을 치켰다.
 《난 좋게 생각했는데요. 설계자들이 고급신발을 많이 신어봐야 그 특성을 잘 파악할수 있지 않을까요?》
 명미는 뒤늦게야 속으로 얼마나 하며 허를 깨물었다. 부끄러워 금시 얼굴이 발트해졌다. 사실이냐 뭐 그때문에 좋은 신발을 신었을까, 공장구두는 아직 어쩐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방긋이 웃어보였다.
 며칠 지나 철운이 추가설계포치를 위해 준비실에 들렀다. 실장과 새 설계방향을 토의하고난 철운이 명미가 그리고있는 신발도안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확실히 미술을 전공한 솜씨가 다르군요. 광선처리를 해주니 한결 살아나는게 보기 좋구만.》
 사실 그것은 효과를 노려서라기보다 명미의 단순한 습관에서였다.
 묘사하는 사물과 빛은 뗄수 없는 두 요소인지라 학교에서 속사하던 버릇대로 명미는 빛에 따른 약간의 명암을 주었을뿐이었다. 그런데도 철운이의 소박한 찬사가 명미의 마음을 흥그럽게 했다.
 얼핏 마주친 눈빛도 이날엔 유난히 그윽해보였다. ...
 그날 저녁 하던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늦게야 퇴근길에 오른 명미는 공교롭게도 철운과 정문앞에서 마주쳤다.
 쑥스러운대로 어둡서던 저녁길을 함께 걸었다.
 아직은 서머한지라 몇마디에 화제는 동이 났으나 명미는 은근한 즐거움을 느꼈다. 며칠전만 해도 제가 동무들앞에서 그에 대해 코웃음을 치던것을 까맣게 잊고...
 집앞에서 그와 헤어져 얼굴에 애써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담고 집에 들어서던 명미는 문앞에서 우뚝 서버렸다.
 한발 먼저 들어온듯 한 아버지는 세면장에서 세면을 하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볶으며 큰 목소리로 양념치듯 명미 자기에 대한 불만을 하소하고있었던것이였다.
 《두구보라요. 애 버릇을 싹 고쳐놓질 않나. 그게 뭐예요. 마흔에 첫 아이 본 사람처럼.》
 꺾꺾 웃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 견본합평회때 보니까 우리 명미 솜씨도 꽤 좋더구만, 괜히 욕박지를가. 허허...》
 《겉멋이 들었어요. 신장에 구두가 몇켤렌가 좀 보라요. 그중에 제 공장 신발은 하나도 없더군요.》
 더는 참지 못하고 명미는 전실이 떠나갈듯 《음!-》하고 배 아픈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라는 어머니쪽을 스쳐보며 명미는 짐짓 뽀로통해서 시까슬렀다.
 《아, 이 집에선 저녁마다 외동딸 험담으로 웃

음쑥을 피우셨군요. 기막혀.》
 어머니가 웃음을 깨물고 숟가락을 권 손을 흔들었다.
 《저 계집애 말하는 본때 좀 봐. 〈이 집〉이 뭐냐, 남의 집 말하듯.》
 《딸이 하루종일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다 오는데 어머니 뭐예요?》
 《에그- 저는 신지도 않는 신발 밤낮 설계해선 뭘해.》
 아버지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와 제때에 중재해나섰다.
 《그만하지, 그러단 또 저녁에 밥 한그릇이 남겠소.》
 한편이라든 두눈을 찡긋해보이는 아버지를 보고서야 명미는 다소 속이 풀렸다.
 다음날 아침출근길에 느닷없이 아버지가 명미에게 물었다.
 《네 신발이 보기엔 좋구나. 편한건 어떠냐?》
 명미는 어리둥절하여 잠시 머뭇거렸다.
 《그다지 편하진 않아요. 뒤축이 조이구 새끼발가락도 좀...》
 《그럼 신지 말게지.》
 명미는 미안한 기색을 지어보였다.
 《그대신 댁시가 있지 않나요. 색깔도 곱구...》
 그리고는 이내 장난기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 고향 거리풍경을 위해서두 이쯤한 불편이야 뭐...》
 아버지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그림자마냥 스쳐지났다.
 《흠, 핑계가 그럴듯하구나. ... 참 잊저녁 같이 퇴근하던 청년이 누구냐?》
 명미의 얼굴은 금시 활짝 붉어졌다.
 《아니 그저 우연히...》
 《글쎄 누구냐.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명미는 공연히 쿵쿵 헛기침을 토했다.
 《철운기사동무 있지 않나요, 기술파에...》
 《내 어쩐지... 혼썰을 내야지.》
 명미는 기겁하여 손을 내저었다.
 《그런게 아니예요, 아버지!... 알고보니 생각이 깊구 영민한 동무예요.》
 《대학졸업생이야 거의다 그렇지.》
 《말도 없구.》
 《그럼 땡어리냐?》
 그만에야 분이 치밀어 명미는 발을 굴렀다.
 《에이! 아버지하군 말 안해요!》

즐겁고 보람찬 나날들이 흘렀다.
 공장에서 도안이나 설계토론으로 마주설 기회가 많아 명미는 철운과 인츰 친숙해졌다.
 하루는 재래식골짜기음신골의 기술혁신문제로 정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철운이 웃음조로

말했다.

《명미동문 지배인동지와 꼭 한가지 비슷한 점이 있소.》

《그게 뭡데요?》

명미는 호기심을 반짝이며 물었다.

《자기를 확신하는 초연한 눈빛... 당당해서 참 보기가 좋소.》

명미는 귀여운 불우물에 차랑차랑 미소를 채웠다.

《아이참... 기사동무에게 그런 자부심이 없나요?》

《자부심보다는 의문이 더 많지.》

그는 하나하나 꼽아내려갔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명미는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정말 물음표생산기지로군요. ... 지나친 자기학대가 아니예요?》

한편으론 철운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채롭게도 여겨졌다.

스스로 제기하는 그런 물음들이 때로는 삶을 가다듬고 생활과 사업을 추동하는 채찍으로도 될수 있는것이다. 자기의 능력이나 창조물에 의문과 불만을 느낄수 있는 사람은 더 좋은것을, 더 많은것을 창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명미는 믿고싶었다.

그러나 스스로 엮은 채찍으로 자신의 삶을 부단히 재촉해야만 꼭 재능과 실력의 소유자로 되는것인가?

명미로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것처럼 숨가쁜 사색이나 과중한 의문에 별로 지쳐본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자기의 삶이 저 하늘빛처럼 푸르고 창창하리라것을 명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

푸른 잎이 무성한 구내의 수삼나무가지사이로 즐겁게 지저귀며 새들이 날아에는 여름날이었다.

공장에 와서 처음 달라붙은 새 접착제연구를 끝낸 철운이 축하의 박수갈채에 물렸다. 그가 고심 끝에 제조해낸 풀이 종전에 쓰던 풀보다 생산원가가 낮으면서도 접착세기는 더 큰것으로 평가된것이다.

명미는 제가 성공하기나 한듯 기뻐으나 그런 기분을 다른 처녀들이 알아챌세라 짐짓 아닌보살했다.

마침 철운이 준비실에 들어섰다.

창턱엔 오늘 아침에 꺾어온 싱싱한 생화목음이 꽃병에 꽂혀있었다. 명미는 얼른 손을 뻗쳐 그중 빨간 장미 한송이를 뽑아 진지한 표정으로 철운에게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처녀들이 곁에서 입을 싸쥐었다.

철운은 얼굴에 꽃을 받아들고 얼굴을 붉혔다.

《뭘 주춤거려요, 첫 출발이 멋진데.》

《내가 너무 서두르게 아닐가? 더 심화시켜봤으면...》

《또 물음표, 도간도간 감탄부호도 좀 치세요. 성공했다! 만세! 오늘은 좀 쉬자! 호호...》

세 처녀는 즐겁게 웃음을 터쳤다.

그러나 생활은 향기와 웃음으로만 엮어지는 꽃다발이 아닌듯 했다.

도무지 깊이를 알수 없는 철운의 사색의 물결에 거품처럼 떠오르는 의문들은 점차 명미의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 의문부호들이 때로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 명미에게도 갈구리마냥 날아들었던것이다.

기술과에서 조직한 설계합평회때였다.

기술준비실을 담당하 철운이 합평회를 지도했다.

명미는 품들여 완성한 너단화의 새 형태도안과 기초설계를 합평회에 내놓았다.

도면을 검토하던 철운이 문득 고개를 쳐들었다.

《명미동무, 이 설계 전달에 제작한 견본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소? 띠장식을 제외하면...》

명미의 두볼에 발갛한 홍조가 떠올랐다.

《저, 갑피에서 주름모양도 달리 하느라고 했는데...》

철운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다른 설계원들의 도면에서도 몇가지 결함을 지적하고나서 그는 신중히 말했다.

《설계가 구태의연하면 견본제작은 헛수고로 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높은 생산수자에 만족하여 우린 제 형에 겨워하고있지요. 명미동무.》

명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갑피와 내피의 늪음톨차이가 열답니까?》

《?!...》

잠시 대답을 기다리던 철운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재질마다 늪음톨이 다른 조건에서 과학적으로 타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접착면적을 결정하고 창 의 접착강도에 영향을 주는데 설계에선 무시되고 있습니다. 부단히 새 기술을 습득하고 탐구해야겠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머리속의 지식도 같지요. 쉽없이 갈아넣고 보충하지 않으면 부식되기 마련입니다. ...》

명미는 등골이 오싹했다. 꼭 자기를 겨누고 쏘는 화살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사가 뒤틀렸으나 겨우 참아냈다.

(어디 보자! 나를 무슨 꼴로 만드느거람. ...)

합평회가 끝난 후 사출반건물앞에서 철운이를 따라잡았다. 새초롬한 눈길로 철운이를 마주보며 또박또박 씹어 말했다.

《저하고 말 좀 해요! 날 망신시켜놓구선 맘이 편해요?》

철운은 더듬는듯 한 눈빛으로 찬찬히 명미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새것이라고 매번 왕청같은걸 내놓으면 생산공정이 혼란되는건 어찌겠어요? 그래서 이불깃 보고 발 퍼란 소리도 있잖아요?!》

《물론 생산성도 고려해야지. 하지만 제품의 질과 맵시는 그보다 더 중요한게 아닐가?》

불쑥 철운이 손을 쳐들어 푸르른 창공을 가리켰다. 구름 한점 없이 높푸른 하늘에 수리개 한마리가 까마득히 높이 떠서 날고있었다.

《좀 보오, 저 담찬 기상… 명미동문 날개를 접고 날아오르는 새를 본적이 있소? 그런 새는 세상에 없소. 또 하늘을 날던 새도 날개깃을 멈추면 오래 건디지 못하지. 돌덩이처럼 곤두박힐테니까. …》

《?!…》

《우리에게도 날개는 있소. 힘껏 퍼덕이지 못할 뿐이요. 분명 우리 공장은 앉아몽개고있소. 더우기 난 준비실분위기가 거슬리요. 너무 적막하고 태평하단 말이요.》

《그럼 복이라도 등등 쳐야 되겠어요?》

지그시 명미를 바라보던 철운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문득 돌아서서 나직이 뇌였다.

《복소린 매 사람의 심장에서 쿵쿵 울려야지.》

가버렸다. 명미는 더욱더 기분이 거슬렸다.

공장이 앉아몽개다니! 그에겐 활력에 넘친 공장의 갖가지 동음소리가 억센 나래의 푸득임소리로 가슴뿌듯하게 감수되지 않는단 말인가. …

리상과 현실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는것이다.

리상이 높은건 좋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할때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한갓 공상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명미는 상서롭지 못한 그 어떤 불협화음을 뚜렷이 감촉했다.

왜 저렇가, 본래 저런 사람이였을가?... 명미는 불안스러웠다.

다음달 설계합평회에서 철운은 새 도안들에 몰들어 부결을 놓았다.

이미전에 그는 설계원들이 채색도안을 그릴것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매 사람이 합평회에서 자기의 도안과 설계의 혁신성을 리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증명하도록 했다. 마치 논문집필자가 자기 논문을 변론하듯이... 그런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것이 없었다.

명미도 도안채색은 통과되었으나 부분품설계에서 걸려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첫 단계에서부터 경난을 겪었다. 설계원들이 언제 붓을 쥐고 조색작업을 해보았겠는가. 그리고 말이 새

설계이지 그식이 장식이었던지라 새것의 증명이란 대개가 몇마디 불멘 소리로 웅얼거리는것으로 그치고말았다.

급기야 이상와류가 일었다. 기술과의 설계승인이 따르지 않으면 견본제작에 착수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지배인이며 책임기사가 참가하는 월견본품평회날자가 빠득빠득 다가왔다. 기술과의 나들문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목마르게 새 견본을 기다리는 각 단위의 공정검사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찬물에 단죄 박히듯 겨우내기로 뛰어들어와 끓었으나 철운은 거둬 완강하게 채설계를 요구했다.

여러건의 설계가 겨우 합의되어 견본제작에 들어갔다.

명미의 설계는 맨 나중에야 겨우 통과되어 그는 토라질대로 토라졌다.

품평회가 있기 전날 저녁 어느때없이 명미는 퇴근차림으로 아버지방에 들렀다.

글을 쓰던 아버지가 눈결에 스쳐보며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웬일이냐?》

명미는 책상 한끝에 다가서서 의자에 주저앉으며 시름겨운 한숨을 내그었다.

《가슴이 막 답답해요. 재만 가득 찬것 같구. …》

《새과란게 락업흥내는... 설계문제가 복잡했다던데 혼이 좀 났나?》

그러니 아버지는 그동안의 사연을 죄다 알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까닭없이 약이 오른 명미가 목소리에 날을 세웠다.

《누가 나를 혼내요? 오히려 그 동무가 나한테 혼나지 않나 보라요.》

《그만해라!》

아버지가 뜻밖에도 나직하나 엄한 어조로 말끝을 베었다.

《헛된 자존심은 백해무익한거야. 허심하게 배울 땐 배우고 머리를 숙일 땐 숙여야지. 언젠 추어올리지 못해 안달이더니...》

웬일인지 철운에 대한 미묘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둔하는 아버지의 말이 싫지 않았다.

실은 아버지에게 제가 만든 견본을 선보이고 미리 지지를 얻어놓고싶었는데 코만 떤운셈이였다. 하긴 뭐 아버지가 사람들의 면전에서 딸을 망신시키기야 할가?

다음날 오후 다섯켄테의 각이한 남녀구두견본품이 품평회에 제출되었다.

지배인이며 책임기사가 매 제품을 깐깐히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말쑥 많았던 자기의 녀단화를 집어들때 명미는 저으기 긴장되어 숨을 죽였다. 다행히

아버지는 제작상특성보다는 매 부분품의 재질에 신경을 쓰는듯 했다.

《구두창에 아직 기포의 흔적이 있구만. 경도도 고르롭지 못하구, 원인이 뭐요?》

철운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직이 대답했다.

《발포제와 연화제의 섞임비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출시 가스모임점과 노즐의 불일치현상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상현상이 왜 자주 일어나는가 따져봤소?》

《관찰해보았는데 기대공들이 표준조작의 기술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불량사출률이 높았습니다.》

아버지가 알릴가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중요하지. 분쇄한 원료의 분말정도와 낡은 창을 재생한 원료에 섞인 불순물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소. 분사조건이 최상일 때라야 가스모임점이 안정해지는거요.》

지적된 문제를 수첩에 적어넣는 철운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명미는 그제야 마음의 긴장을 풀었다.

아버지가 건본의 일부 결함들을 더 지적하고나서 모임을 결속하려는데 문득 철운이 다시 일어섰다.

《지배인동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아버지는 유심히 철운을 바라보았다.

《어서 말하오.》

《지배인동지, 공장은 이미 생산정상화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타성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신지 않는 낡은 형의 신발을 만들어놓고도 생산계획을 수행했다고 만족해하고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새 세기입니다. 우리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신발들을 생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란한 기계의 동음속에서 졸음을 청하고있단 말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위안처럼 해로운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놀랍다는듯 두눈을 치켜올렸다. 한동안 포기포기 해쳐보는듯 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그시 철운의 얼굴을 응시했다. 저런 눈초리앞에선 뽕뽕 주물러다진 담력을 자랑삼는 사람이라 해도 자제력을 유지하기가 조련치 않을것이다.

그래도 철운의 몸가짐은 침착했다.

《그래서?》

《품종확대와 계획초과수행의 줄달음속에서 기술은 답보하고있습니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자만도취해있는 사람들, 지난 시기와 오늘을 대비하며 환성을 올리는 사람들, 혁신자들의 그늘 밑에서 유유히 안정을 즐기는 사람들...》

《동무, 무슨 왕칭같은 소리요?》

미간을 잔뜩 찌프린 책임기사의 돌발적인 웨침 소리에 설계원들이 와들쭉 놀랐다.

무게있는 손짓으로 말없이 책임기사를 제지하고 난 아버지가 무겁게 자리를 일었다. 생각깊은 안색으로 오락가락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동무의 견해가 일리는 있소. 우리 공장 제품이 질이나 땀사에서 뒤떨어지고있는건 사실이지. 특히 청년들속에서 우리 구두의 수요가 높지 못한걸 난 부끄럽게 생각하오. ...》

장내엔 숨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멀리 재단반에서 형칼로 부분품형지를 찍어내는 소리가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을 토막치듯 간간이 들려왔다.

《그러나 공장실태야 내가 좀더 잘 알겠지. 우선 기술진영확대문제, 설비현대화문제. ... 우린 시급히 굵은 너구두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건 뒤급 사출설비가 없는 불가능하오. 그뿐이요? 혼합건조기조립과 탈류공정개선, 로력문제... 형편은 이렇소. 게다가 지표별계획은 국가의 법이거던. 누구나 몇뿔의 부담을 걸머지고있는데 여기에 동무의 그 경종을 꼭 울려야겠소?...》

철운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물론 하품을 참지 못하거나 그늘 밑에서 다리 췌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현상과는 투쟁해야지. 아무튼 이 모든걸 발전단계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리해하는게 옳지 않겠소? 겨우 뒤뚱뒤뚱 걷는 애한테 중주먹을 쥐고 뛰라면 뛰겠소? 넘어져 무릎이나 깨기 쉽지. ...》

명미는 두주먹에 쥔 손수건을 꼬깃거리며 쉽없이 되뇌었다.

(미웁쟁이, 바보!... 저러단 이제 아버지의 눈박에 나지 않나봐. ...)

함께 퇴근길을 걸으며 명미는 시까슬렀다.

《사람이 생활에서 성공하자면 내밀성도 있어야 하지만 주변도 좀 봐야 하는거예요. 그렇게 제 주장만 주장이라고 고집하다간 머리가 터지겠어요. ... 제발 머리를 좀 식히세요.》

여느때같으면 명미의 해학적인 말솜씨에 쉽게 어울렸을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뇌였다.

《지배인동지가 그런 마음속 고충과 부담을 안고있는줄은...》

명미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웠다. 사람이 생활에서 자신의 탈선을 즉시에 깨닫고 항로를 바로정하기가 말처럼 용이한 일이 아니다.

잠시 구름에 가리웠던 밝은 달이 별많은 밤하늘 뿐이 아닌 명미의 마음에도 그윽한 빛을 뿌렸다.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아버지께겐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철운은 애써 싱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명미동무. 내 더 기운을 내서 힘껏 일할테니 두고보오. 어쨌든 내 목표는 우리 공장 구두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거요. 우리 함께 날개를 힘껏 푸덕여봅시다.》

그야말로 동문서답격이었다. 자그마한 지방공장

에서 높은 수준이라니 담도 이만저만 큰셈이 아니다. 포부는 큰데 그걸 실현하기는 조런치 않은 것이다.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진다.

명미는 맥이 풀리고 서글퍼졌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불만인가. 공장의 오늘을 위해서 아버지가 애면글면 바쳐온 품이 얼마인지 그가 몰라서일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자주 공장에 드나든 명미는 너무도 많은 사연들을 목격해왔다. 오래전 공장은 단 한대의 천신발형타기를 밀천삼아 첫 시제품을 뽑아냈다. 시련을 헤치고 몇해후엔 10여종의 구두제품들이 계열생산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오늘은 여러동의 새 건물들이 일떠서고 수십여종의 생산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져 많은 제품들이 짹짹 쏟아지고있다.

그러니 어찌 헤쳐온 시련의 고비고비들을 뒤돌아보며 오늘의 벅차고 경쾌한 현실앞에서 날마다 새라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않을수 있으랴. 물론 이 모든 변혁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에 비해 설계나 제품의 질적수준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무작정 이 점을 질시하며 눈을 찌프린다면 오늘을 땀흘려 가꾸어온 많은 사람들의 한생이 서글퍼지게 될것이다.

정말 철운이 현실에 착실히 발을 붙이지 못하고 헛된 공상으로 자신도 남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일까?...

이미 명미의 근심과 조바심을 휘감기 시작한 의혹의 년출이 앞날엔 어디까지 얼키설키 뻗어오르게 될지. ...

한낮의 별은 별스레 켜글켜글하면서 저녁엔 소슬한 기운이 스며드는 가을이었다.

어느날 저녁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전실에서 신발을 벗다가 얼굴에 놀란 빛을 띄웠다. 분명히 공장제품인 까만 너단화가 발길에 슬쳤던것이다.

《네 신발이냐?》

서류가방을 받아주는 명미에게 미심쩍게 묻는 말이였다.

《그럼요.》

《허... 우리 맴시쟁이가 셈들었군.》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였다.

명미는 아버지가 더 따져물을것 같아 얼른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왜선지 얼굴이 달아올랐다. 실은 철운이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남들이 만든 고급신을 신고 그의 앞에 나서기가 이즈음에 와서 별스레 거북스러웠다. 언제인가는 좋은 뜻으로 해석해주었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보니 며칠이 멀다하게 바뀌신는 구두를 그가 찬찬히 내려다볼 때마다 저절로 얼굴이 뜨끈해지곤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결심품고 신었던것인데 공교롭게도 하루종일 철운의 눈에 뜨일만큼 마주설 기회가 없었다.

저녁에 함께 퇴근했으나 어두웠던지라 아버지에게 먼저 선을 보이고만것이다.

차라리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말로는 결땃만을 따르는 명미의 처신을 두고 아버지가 은근히 서글퍼한다지 않는가.

지금처럼 여러가지 구두를 썩썩 만들어내기까지 아버지의 머리칼인들 얼마나 세였으랴.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의 인생이 비낀 창조물에 때없이 코웃음을 치곤 했으니. ...

방에 들어와 앉은 아버지가 문득 물었다.

《요새도 철운이와 그냥 티각거리냐?》

명미는 쑥스럽게 얼굴을 붉혔다.

《티각거리긴요. ...》

《그럼 좋구, 확실히 쉽잖은 젊은이다. 그 나이에 사색하는 품이 여간치 많거든. 언젠가 그가 하던 말이 자꾸 귀속을 맴도는게 이상하다. 그때 날 보던 눈빛이 맘에 들더구나, 깊어보이는게. ...》

명미의 가슴은 돌연히 뛴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이처럼 애정답아 누군가를 칭찬해본적이 별로 없었던것이다.

그럼 그때 철운이 아버지에게 실망을 끼친게 아니었던 말인가!

숨가빠 엇갈리는 기쁨과 의문이 생생히 내비쳐 어룡진 그의 얼굴을 아버지는 다소 비웃음을 띤 표정으로 흘겨보았다.

《하지만 지내 조금하고 일면적인데도 있어. 생활엔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기마련인데... 하긴 제가 품들여 꾸린 집에서 사는 사람과 정서가 같을수는 없지. 남이 꾸려놓은 집에 살림을 편셈이니 이것저것 거슬릴수밖에. 공장에 손때를 묻히느라 나이지겠지. ...》

명미는 아버지의 말이 속속들이 공감되고 리해되였다.

정말 그럴것이다. 언제인가는 공장에 대한 애착심이 따뜻하게 마음을 녹여 오늘날의 엇드레질을 다소 부끄럽게 돌이켜보게 될것이다.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요즘 철운이가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있더구나, 오늘도 그래. ... 뭐가 해낼 젊은이야. ...》

명미는 놀랐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집앞에서 헤어졌던것이다.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 몰래 전화로 공장을 찾았다. 아닐세라 접수에선 철운기사가 다시 돌아와 사무실로 들어갔다는것이였다.

더 따져볼나위도 없었다. 명미를 바래주고는 헐금씩금 되돌아간것이다. 오늘뿐이 아닐것이다.

(대체 무엇때문일까? 집에 가는듯이 나를 속여넘기고 혼자서 몰래 뭘 하는걸까?...)

답을 찾을길 없는 의문들이 덩굴풀마냥 엉크러졌다.

실사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있는 발포제와 연화제때문이라 해도 자기를 감쪽같이 얼려넘긴것이 노여웠다.

다음날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명미는 방에 남아 있었다.

초조하게 도안지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창밖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 뒤마당을 가로질러 기술과쪽으로 다가갔다. 창문밑에 이른 명미는 벽돌을 두장이나 고이고서야 간신히 방안동정을 엿볼수 있었다.

컴퓨터에 마주앉아 마우스와 건반조종에 열중하고있는 철운의 모습이 보였다.

잠시 화면쪽에 눈길을 주었던 명미는 하마트면 벽돌장우에서 굴러날뻔 했다. 몇달전 합평회때 말썽을 일으켰던 자기의 도안이 고급한 공간도형으로 현시되어있는데 형태에서 보다 완성감이 났다. 그동안 철운이 모지름을 쓴 결과이리라.

(그래서였구나! 난 그런줄도 모르고... 왜 말한마디 못해. 우리 집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이슬같이 촉촉한 밤안개가 불밝은 창밑에 차분히 내려앉았다. ...

명미가 방에 들어서자 철운이 성큼 놀라 일어섰다. 《아니, 어떻게...》

명미는 애써 그의 시선을 예돌아 컴퓨터앞으로 다가갔다.

묵묵히 마우스를 움직여 목록창을 열고 설계화일들을 선택했다.

명미의 도안뿐이 아니었다.

년령과 계절에 따르는 각이한 구두도안설계가 차례로 바뀌었다.

더러는 아직 미완성이었으나 고심의 흔적이 력력했다.

도안이 전문인 자기로서도 감탄할수밖에 없었다.

까실해진 얼굴의 살갓과 몰라보게 꺼진 두볼이 새삼스레 마음을 허뵈었다. 홀연 코마루가 시큰해지고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명미는 쯤쨌게 고개를 돌려 눈물빛을 숨기며 짐짓 명랑스럽게 시까슬렀다.

《이거됐군요, 날 따돌린 이유가. 우릴 모두 <실업자> 로 만들셈이예요?》

철운이 멋지게 뒤더수기를 매만졌다.

《시험삼아 해보는중이요. 설계의 정보화가 어느정도 가능하겠는지. ... 역시 내 전공분야는 고분자화학이니 3차원화상처리가 애를 먹이누만. ...》

명미는 할 말을 잊고 망연히 서있었다. 딱히 영문을 알수 없는 외로움이 마음의 기슭을 하염없이 적셨다.

늘 곁에 있던 누군가의 숨결과 체취를 포근히 느끼다가 불현듯 돌아보고 자기 혼자임을 깨닫는

순간의 그 섬찍하고 싸늘한 적막감. ...

가끔 어깨 나란히 저녁길을 걸을 때마다 철운의 마음은 항상 이곳에 남아있었을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일부러 느릿느릿 걸음을 지체하기도 하고 장난삼아 다른 거리를 예돌아가기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명미는 자신에 대한 마음쓰린 혐오를 느꼈다.

이때 철운이 뒤늦게야 명미의 신발에 시선을 멈추었다.

《구두가 달라졌구만!》

그의 나직한 탄성이었다.

명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쓸쓸히 미소했다.

《뭐 좋아서 신은건 아니구요. 동무가 하도 실망에 찬 눈빛으로 강박을 하니 어디 별수 있어요? 그러다가 동무와 의를 상하면 어떡해요.》

철운은 기막힌 한숨을 내뿜었다.

《그 가뜰스한 마음에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 어쨌든 신은바엔 이렇게 하는게 어떨소?》

그는 두툼한 책 한권을 서랍에서 꺼내 펼쳐보였다. 뜻밖에도 구두착용시의 관찰기록부였다.

명미는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갔다.

신발을 리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이상현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과 그 원인들이 분석되어 적혀있었다.

철운이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파악한 특성들을 잘 연구해보자구, 다른 동무들도 함께.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모두의 날개로 될수 있소, 마음껏 창공을 날수 있는. ... 원인을 분석하고 사색하느라하면 설계나 제작상의 오류가 꼭 밝혀질거요.》

명미는 폐지마다 빼곡이 박아쓴 관찰일지를 놀랍게 번져보았다.

《몸이 건디겠어요?... 연화제연구랑 실험이랑은 어느 짬에 해요? 거기에다 3차원설계까지... 혼자서 꽤 벅하겠어요. ...》

철운의 얼굴빛이 눈에 뜨이게 어두워졌다.

《혼자라는건 무슨 뜻이요? 명미동문 이 공장기술자가 아니요? 또 다른 동무들은?... 말이 난김에 힘든 말 하나 할가? 언제부터 꼭 하고싶었됐소. 제발 이젠 좀 잠에서 깨어나오.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란 말이요!》

명미는 소스라치게 놀라 두눈을 비껴뗐다.

《뭐, 뭐예요?... 아버지?! ...》

철운은 입술을 깨물며 괴롭게 시선을 떨구었다. 침묵, 정적, 고요한 창밖의 추녀끝에서 똑똑이 슬비 듣는 소리...

《...난 지배인동지를 모교의 선배로 존경하오. 내가 쉽게 따를수 없는 능력과 자질, 기술에도 탄복하고. 그런데 그 기술이 헛되이 파묻혀있소. 눈앞의 생산실적에만 쫓기위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있단 말이요.》

철운은 스스로 도리머리를 저으며 숨차게 말을 이었다.

《물론 지배인동지의 어깨에 많은 짐이 실려있는것만은 사실이요. 설비현대화, 현행생산, 후방사업… 실무에 밝고 사업작풍이 좋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있고… 하지만, 하지만…》

명미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어나올듯 풀떡거렸다.

한결 자제하는듯 한 철운의 목소리가 다시 귀청을 허뻛다.

《그런데다 동무까지 그 그늘 밑에 앉아 매미타령을 부르고있소. 우리한테 새 기술이, 탐구와 열정이 바로 날개요. 그 날개를 접고 쉬쉬쉬염 걸어가서 달을텐 인생의 낭떠러지뿐이요. …》

피나게 깨문 명미의 입술이 건잡을수없이 떨렸다. (동무가… 동무가 어쩔!…)

끝끝내 노염에 사무친 명미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차올랐다.

철운이 언제 말을 끝내고 언제 방을 나갔는지 명미는 의식하지 못했다.

상처입고 피흘리는 자존심의 유일한 부르짖음인 처녀의 눈물은 방울방울 흘러내려 애꿎은 옷깃에 점점이 얼룩을 지웠다. …

아침부터 비를 함뿍 머금은 암흑색의 매지구름이 가을하늘을 서슬스럽게 층층 덮었다. 눅눅한 바람이 갈개치며 나무아지들을 흔들어 황진 이파리들을 쥐어뿌렸다.

새들도 불안스럽게 울어대며 덤불숲가로 사라져갔다.

오후부터 후둑후둑 비꽃이 날리더니 이어 뽕안비발이 쏟아져내렸다.

명미는 연필을 멈추고 비살치는 창문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한그루의 백양나무가 드설레이며 괴롭게 몸을 뒤치고있었다.

(저 나무와 내 처지가 다르게 무엇인가. 어쩌서 내가 이 지경에 이른걸까. 산들바람에 푸른 잎이 춤추던 시절… 걸음마다 삶의 희열로 즐겁고 신명나던 그 시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

명미는 자기의 착잡한 상념속에 떠도는 의문들에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새에 철운을 닮아가고있었던것이다.

또다시 그날의 수치와 오욕이 되살아난다. 그리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존엄과 자기의 자존심을 오리오리 헤뜨리고 밟기던 그 예리한 칼날이 살갗에 와닿는듯싶었다.

《제발 이젠 잠에서 깨어나오. … 설사 과거엔 훨훨 날았다 해도 땀흘려 퍼덕이지 않으면 그 날개에 강직이 온다는걸 왜 모르오?!…》

(정말 내가 그런 인간이 되었을까? 그의 말대로

언젠가는 영영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게 아닐까?…)

명미는 때없이 쓰라린 배반감에 가슴 들먹이며 《아버지를 모욕한 그런 사람 내 인생에도 필요 없어. 잊어버릴테야.》 하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곤 했으나 철운의 준절한 부르짖음은 알뜰게도 그냥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그의 가슴속 심연에서 떨기치는 가장 혹심한 격랑은 결코 철운에 대한 분노도 환멸도 배신감도 아니었다.

참을수 없는 괴로움은 다름아닌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대해 간직해온 긍지와 신뢰에 점차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그것이였다.

아무리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고 귀를 막아 부정하려 해도 철운의 팽혹한 절규속엔 그 어떤 진실이 있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인생을 바쳐 가꾸어온것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열매가 아니었던 말인가요?

자랑차게 걸어온 자신의 과거에 어느새 현혹되어 지난날의 진취적인 열정과 모태김마저 어느덧 세월의 락엽속에 묻혀버렸단 말인가요?

대답해주세요, 아버지!…

아, 차라리 그날의 그 저녁을 무심히 지나쳐갔더라면! 정말 그랬으면 오늘처럼 가슴 허비는 괴로움도 없었을가? 이르나늦으나 언제인가는 반드시 겪게 될 운명의 계기점이 아니었을가?…

자기를 미궁에 빠뜨린 철운에 대한 야속함, 아버지에게 대한 쓰라린 원민, 자신에 대한 혐오… 무엇이라 딱히 이름지을수 없이 얽히고 감긴 번거로움속에서 명미는 오래도록 시간을 잊고있었다.

누군가가 후닥닥 뛰어드는 서슬에 명미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준비실처녀였다.

《명미언니! 큰일났어요!》

온몸을 비둘에 휘적신 그가 다급히 웨쳤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사고쳤어요, 철운기사동지가!…》

찰나에 심장이 쏘아들었다. 연기처럼 휘감겨 돌던 상념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솟구치듯 뛰쳐일어난 명미는 갈리게 부르짖었다.

《어떻게? 어딜 다쳤니?》

《아니예요, 언니. 몸을 다친게 아니예요. 그가 조제한 발포제로 사출한 구두창이 모두…》

명미는 긴장이 풀려 온몸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이 일을 어쩔 좋아, 어쩌면!…

이 뜻하지 않은 실패는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실험단계에서는 사출된 구두창의 당김세기며 구부림전달성이 기술지도서의 기준수치에 이른것으로 확인되었었는데 지배인이 며칠 경공업성회의에 간 사이 뜻밖에도 사달이 난것이다.

적지 않은 완성제품들이 불합격으로 검사되어

월계획수행이 힘들게 되었다.

사고심의에서는 것처럼 짧은 기간내에 철운이 새롭게 연구개발한 발포제와 연화제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이 여러 각도에서 심중히 분석되었다. 사람들속에서는 철운의 자고자대와 공명심이 일을 쳤다느니, 지내 조급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쉬쉬 떠돌았다.

명미는 거의나 사색이 되어 홀로 가슴을 부여잡고 까맣게 속을 태웠다.

금방 출장길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려고 황황히 뛰어갔다가는 방에서 울리는 열기편 목소리에 기가 질려 맥없이 돌아서곤 했다.

그러다가 한번 사무실복도에서 딱 마주쳤다.

명미는 혼연한 안색을 지으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유심히 자기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웅심깊은 눈빛을 보자 그만 얼굴을 싸쥐며 어깨를 들먹거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명미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였다.

명미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아버지, ... 그 동무의 일이 어떻게 될가요?...》

아버지가 나직이 한숨을 내그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 그런데 너 이 꼴이 뭐냐. 얼빠진 모양으로 싸다니지 말고 네 일이 나 착실히 해라.》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명미의 볼을 훔쳐주더니 손에 쥐여주고 가버렸다.

지배인이며 책임기사가 참가한 기술인군모임에서도 철운의 사고가 다시금 총화되었다.

명미는 시종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결론이 될지. ...

퍼그나 지쳐보이는 아버지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중년의 책임기사가 많이 발언했다.

《무엇보다 저의 불찰입니다. 지배인동지가 오신 다음에 최종시험을 결심하자구 끝까지 막았어야 하는데 철운동무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철운이 결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제가 빚어낸 일입니다. 책벌이든 처벌이든 제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험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책임기사가 안타까운듯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철운동무, 이 마당이 재시험을 운운할데요? 성공의 담보도 없는터에...》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니라 해도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하고 기어이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 공장은 합성가죽이나 창재료를 거의 외부에 의존하고있습니다. 이 의존심이야말로 우리 공장 제품의 질을 올리는데 주되는 방해로 되고있습니다.》

새 발포제와 연화제연구는 우리자체의 힘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기 위한 첫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실패의 원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

장내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무언의 긍정, 반신반의, 회오와 자책...

마침내 지배인이 무겁게 자리를 일었다. 각이한 의미를 담은 시선들이 일시에 지배인의 얼굴을 향했다.

《내 보기엔 저 철운동무에겐 재능이 있습니다, 남다른 재능이. ...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것은 그의 열정과 피타는 몸부림입니다.》

열정과 몸부림... 난 최근에 와서 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동무의 성공과 실패에서 제자신을 돌이켜보게도 됩니다. ...》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귀를 기울였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난 지금 오랜 기술자로서, 지배인으로서 몹시 괴롭습니다. 저 동무의 실패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하여 괴롭습니다.》

이 실패의 고배는 이미 썩 오래전에 다름아닌 내가 마셔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난 그 실패를 에돌아왔습니다. 결국 나때문에 우리 공장은 뒤로 후퇴한셈입니다.

그 과거를 뒤돌아보니 괴롭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쳐들어 앞날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동무와 같이 완강한 투지와 열정을 지닌 새 세대 기술자들이 당당히 나를 앞서 달려나가고있기때문입니다.

뒤늦게야 나도 자신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동무의 실패에 우리 위축되거나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 마음과 지혜를 합쳐 실패를 디디고 래일의 성공을 이루어냅시다!》

가슴치는 격정에 못이겨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삼시에 온 장내에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차넘쳤다.

명미는 팔굽에 얼굴을 묻고 기쁨에 겨워, 행복과 자랑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돋보이고 훌륭해보이는지 아버지 아세요? 고마워요, 아버지.

전 지금껏 아버지의 딸이면서도 아버지의 진정한 딸이 아니였어요. 믿어주세요. 조금도 망설임없이 아버지가 자기의 한생을 넘겨줄 자랑스러운 딸이, 시대의 참된 딸이 되겠어요. ...)

또다시 나날들이 흘렀다. 탐구의 나날들, 희열과 랑만의 나날들. ...

철운은 마침내 발포제와 연화제연구를 끝내고 가장 리상적인 배합비율을 찾아내고야말았다.

별빛 찬란한 밤길.

하얗게 뻗어간 인적드문 유보도길을 그들은 어깨 나란히 걸었다.

문득 명미가 장난기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철운을 돌아보았다.

《이제야 생각났어요. 내가 동무한테 꼭 이길수 있는 한가지가.》

《그게 뭔데?》

《달리기! 옛날에 내가 학교기록을 돌파한 선수였다는걸 모르지요?》

철운이 미심쩍게 웃었다.

《나한테 당해낼가? 이래봐도 난 신입병사시절에 벌써 무장강행군에서 분대장감사까지 받은 사람ियो.》

《어디 좀 보자요, 그 분대장감사가 〈공정〉했는지. …》

륜환선유보도길을 말짱 돌기로 결정하고 둘은 달음질치기 시작했다.

통삼아 달리는듯마는듯 하던 철운이 그야말로 새처럼 날아가는 명미를 보고서는 승벽심이 동한 모양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차츰 명미가 뒤떨어졌다.

명미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젖먹은 힘까지 다해

철운의 뒤를 따라 내달았다. 숨이 턱에 닿을무렵 공교롭게도 명미가 그만 보도가녀둘에 걸쳐어 비명을 지르며 그만 풀썩 주저앉았다.

깜짝 놀란 철운이 황급히 되돌아 뛰어왔다.

《다쳤소? 좀 보자구. 글썽 기록을 돌파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했더니…》

《아이, 아파라. …》

불빛이 환한 가로등밑에서 명미는 피가 진 무릎을 감싸쥐고 아픔을 못이겨 눈물을 흘렸다.

어린애처럼 부끄러움도 있고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명미는 부축하려는 철운의 손을 뿌리쳤다.

아픔속에서도 명미는 구두를 벗어두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어 명미는 흐느낌을 삼키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철운에게 내밀었다.

《부름테니 적어줘요. … 5분동안 포장길을 달렸음, 앞코 월형선심부분 변형 없다, … 중창의 탄력 좋았다, … 뒤굽높이 0.1 낮출것, 아이 아파. …》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측 우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창조적재능은 리조시기에 와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15세기에 비내림측정기구로서 창안제작된 측우기는 리조시기 우리 민족의 창조적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원래 천문학과 기상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비가 내린 량을 측정하여 생산과 활동에 적극 리용하여왔다. 그러나 측우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강수량을 비가 온 후 비물이 땅속에 스며든 깊이를 재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비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라는것은 토질에 따라 다를수 있었고 같은 토질에서도 땅의 높고낮음에 따라 그리고 마른 땅인가, 습한 땅인가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비가 내린 절대량을 정확히 알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 선조들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1441년에 과학적인 비내림량측정기구인 측우기를 발명하게 된것이다.

당시에 창안제작된 측우기는 높이 약 40cm,

직경 약 16cm의 쇠로 만든 둥근 통모양으로 생긴것으로서 대우에 올려놓고 비물을 받아 그 량을 재게 되어있었다. 이후 측우기는 중앙과 지방의 관청마당안에 설치되였는데 중앙에서는 철이나 동으로, 지방에서는 자기나 질그릇으로 만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개인 시간, 그동안의 비내림량을 측정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제도가 세워졌다.

측우기에 의한 비내림량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방법과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창안하고 도입한것이다.

유럽에서 천문기상학자로 널리 알려져있는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가 기구를 가지고 비물의 깊이를 측정한것은 1639년이였으며 측우기를 전국적범위에서 설치하고 비내림량을 중앙에서 장악하는 제도를 세운것은 그보다도 훨씬 후의 일로서 우리 나라에서 창안리용한 측우기는 유럽에서 발명한 측우기보다 200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높은 창조적재능으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과학문화유산들을 창조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주 성 철

어머니는 병사와 환전호에 산다

김 선 화

우리 집 바람벽에...

우리 집 바람벽에 증서 한장
어머니품에 남은 너의 모습인가
이 새벽
고개너머 병사들을 찾아떠나며
뜨겁게 어루쓸어본다
아들아 너의 입대증

화려한 장식은 없어도
자자구구 줄줄이 뜻깊은 글발
볼수록 하많은 생각을 불러내며
이 마음 붙잡고 놓지를 앓누나

이 한장 증서를 남겨놓고
어미품을 떠난지도 어언 몇몇해
한줄두줄 늘어가는 령장의 무게를
이 증서앞에서 가늠해보며
어머니는
네가 걸은 복무의 낮과 밤을
함께 달렸다

어찌 그저 한장
병사의 입대만을 보증하는 증서이라
때로 이 어미가
주저앉으려 하면
때로 이 어미가
너 하나 생각에만 움해있다면
병사의 어머니임을 자각케 해준
말없는 채찍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증서가
소중히 걸려있는 집들에선
자기라는 부끄러운 세계가 사라진다
이 증서가
소중히 걸려진 그날부터 어머니들은
조국이란 크나한 지붕아래서
아들과 함께 복무의 길 걷는다

아, 조선인민군 입대증!
이는 조국보위초소에 선 아들의 삶이
영웅의 삶으로 빛나길 바라며
아들과 한전호에 사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속 입대증이거니

아들아, 노을이 반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타오르는 강철전선에
또 하루 새날이 밝는다
숫구치는 새힘, 뿜어오르는 열정
아마도 입대증 여기서 셈쉴는것이리
이 아침 전호가에서 새날을 맞는 널 찾아가듯
발걸음도 성큼 원군길 오르니

아, 울려오누나
즈렁즈렁 메아리쳐오누나
이 마음 언제나 함께 서있는
저기 저 최전연고지
최고사령관기 펄럭이는 곳에서
병사 너의 우렁찬 목소리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복무함!
복무함!

적 성

동네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두들 인사처럼 하는 말
아들을 군대에 보냈으니
걱정이 없겠다네

걱정이 없겠다니
그게 그게 무슨 소리
걱정이 없다면 무슨 어머닐가
병사의 어머니가 되면
정말 걱정이 없어질가

거리에 나서면 저도 모르게
군복입은 모습부터 눈에 띄우고
군대라면 무작정 뒤따라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야 돌아서는
퇴근길엔 문열기에 앞서 가슴 두근두근
우편함부터 더듬는 이진 뭇가

땀젖은 군복
내 손으로 빨아 말려주고싶고
하늘땅 얼어붙는 강추위때면
이 어미 온몸이 불똥이 되어

서리불린 전호가에 놓이고싶은
이건 무얼가

아들아 너 혹시 앓지 않는지
새벽잠은 꿀잠이라 투정질하던 버릇이 남아
안개 자욱한 보초소에서
순간이나마 깜박 졸지는 않는지

마음에 아프게 살아날 때도 있다
강병이 한알두알 세여먹던 《고난의 행군》의 그 나날
돌아앉으면 또 한그릇 조겨댄다는 그 시절에
한번 실컷 먹여보지 못한 찌릿함
그래서 그래서
남들보다 좁은것만 같은 가슴
제포레들보다 어쩐지 작은것만 같은 키

오, 삶과 죽음 적아 총창 맞부딪는 곳
초긴장 날카로운 대결점에서
아들아, 너 혹시
마음의 탕개 늦춘적 없느냐
너 혹시
전우들의 짐이 된적 없느냐
돌격전의 앞장에서 물러선적은 없느냐

걱정이 없지 않다
병사의 어머니도
걱정이 더 많다 병사의 어머니는!
병사, 순간순간의 너의 삶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었기에
이 어미도 그 삶을 대신할수 없기에

아 내 사랑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참말로
장군님의 기쁨 어머니의 자랑
일당백 영웅병사 못될가보아
그리고... 그리고 이 어미가
그 영웅병사의 어머니답게 못살가보아
마음속 한구석에 늘
걱정을 안고 산다

아들아, 어머니는 너를 믿는다

씩씩하고 날파람있는 우리 초소병사들
일숨씨도 인정미도 하나같은 그들속에
최전연병사 너를 세워볼 때면
가슴속에 밀물처럼 차오르는
이건?!
이건 분명 믿음이다

아들아 너는

전기로의 동음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백양나무아래 자란 강선의 아들
크레용 쓰는 법을 배운 첫날에 너는 그랬지
큰 책상만 한 아버지의 설게도 뒤면에
널 감싸안아 키워준 고향의 쇠물노을을

봉쇄의 검은 구름 밀려올 때 '
너 주먹을 부르쥐고 선언했지
미제, 네놈들을 통채로 날려보낼
강철폭탄을 만들겠노라고
오 귀에 쟁쟁 눈에 삼삼타
열두살 너의 갈린 목소리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너의 주먹을
덧감아 짜악 그러잡던 그 밤

정녕 잊을수 없다
선군사에 길이 남을 판문점의 아침
소리없이 삼키는 눈물의 《만세!》로
결사옹위성벽을 쌓았다던 상급생형님의 편지를
채색 못한 미완성유화앞에 놓고
삶의 좌표를 정하던 그날
근엄하던 네 눈빛

아들아, 너는 이렇게
파철수폐를 끌고 즐겨찾던 구내길을
리수복영웅의 열다섯발자국에 이어놓고
용해공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영상 우러러
아침저녁 오르던 길을
길영조영웅의 최후의 향로에 잇고
조국의 최전방에 병사의 첫자욱을 찍은
강선의 아들

그래서 이 어미 가슴
절반은 노상 걱정으로 타도
절반은 저도 몰래
믿음! 믿음으로 평온해지는가부다
아니아니
한해두해 슬며시 걱정을 밀어내며
믿음! 믿음으로 그득히 차오르는가부다

노을, 백양나무, 미완성유화...
잃을수 없는
빼앗길수는 더욱 없는
소중한 모든것을 지켜
서슬푸른 총대를 굳게 틀어진
아들아 너를 이 어미는 믿는다

어머니의 믿음은
너를 안아키운 강선의 믿음
아들아, 부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거라
그러면, 그러면 고향은
영웅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강성대국불노을로 감싸안을거다
아들아, 믿는다 어머니는 너를 믿는다

서약

물랐구나
아들아
총천 병사 네앞에서
이렇게도 부끄럽게
이 어미를 반성하게 될줄은

가슴속엔 똑똑
아직도 자책의 눈물이 떨어진다
동지달 강추위에 생각도 깊이
강선을 찾아주신 장군님
초고전력전기로뿐이라
우리 용해공식당에도 들리셨겠지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던가
꿈같은 그 시각
갖가지 음식들과 과일들 구색맞춰 차려놓고
아버지앞에 칭찬을 바라는 철부지마냥
행주치마 비다듬으며 이제나저제나...

그런데
그런데
기뻐하실줄 알았던
아버이 우리 장군님
나무라시는 음성이 가슴을 칠줄이야
이 추운 방에선
아무리 높은 식사카로리도
순간에 령으로 떨어지겠다시는 그 말씀

카로리!
식사칸 온도!
령!
아, 그것은
단순한 영양학적징표
줍고 더움을 나타내는
수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피를 주고
숨결을 준
어머니만이 가슴아피 꾸짖는
사랑의 질책이었다

아들아
언 땅에 배를 붙이고
너 밤을 새울 때

강행군의 극한점을
너 힘겹게 넘을 때
이 땅의 평화를 지켜
너 심장을 내댈 때

아 서슴없이 내대는
병사의 그 심장과 나누었던 약속
그 약속을
내 좀 더 무겁게 안고 살았더라면
진정 이 일터를 전호로 생각했더라면
우리 장군님 순간에 알아보신
용해공식당 싸늘한 그 온도
내 가슴에도 아프게, 아프게 마쳐왔을걸

아니 아니
아들아 고백하건대
장군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이 어민 미처 따를수 없었구나
다심하면서도 위대하고
살뜰하면서도 엄하신
장군님사랑의 그 열도를
이 세상 어느 어머니들
따라설수 있었겠느냐

아, 장군님 지퍼주신
인간사랑의 뜨거운 불길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로 타오르고
이 가슴엔
꺼질줄 모르는 가책의 불덩어리
이글이글 뒤탈기는데

서리꽃 하얗게 핀 창가에선
망울터친 진달래가 봄을 부르고
두터운 문발을 스적이며 감도는
아버이 입김같이 후더운 온풍
깜박이며 속삭이는 수자식온도계는
톡톡 이 심장에 새겨준다
인생의 새로운 철리틀!

약속!
오로지 장군님의 기쁨만이 되자고
병사와 어머니가 심장으로 나눈 약속!
그것은 선서처럼
오, 군기앞에 다진 병사의 선서처럼
피땀 바쳐 목숨바쳐 지켜야 하는
서약! 서약이라고!

기다리는 마음

초소로 떠나기 전날 밤
달도 참 밝았지

용해공아빠트 현판앞에
아들아 너와 함께 심은 백양나무
소소리 높이 자란 그 아지에
까치가 등지를 틀었구나
이 아침도 반가웁게 짹짹—
아들아 너 무슨 새 소식 보냈느냐

너도 언제인가는
바로 이 나무아래로
가슴에 훈장 메달 걸렁이면서
의젓하게 걸어오겠지
그러면
너무 기빠 목이 콕 멘 이 어미 먼저
까각까 까치들이 널 반겨주겠지

너 두고 떠나간 화첩이며 화구들
꿈꿨던 너를 잊을수 없어
책상위에 차곡차곡 그날처럼 놓여있고
《로동자박사》로 소문난 아버지 벌써
공장대학생인 용해공 너와
전기로앞에서 구수히 태울
《제강》담배맛을 꿈꾸고있단다

웃집 금훤
원 처녀가 담도 크지
초고전력전기로 시동을
저혼자 해제끼고도 그저 새물새물
술한 기자들앞에서 했다는 대답도 그저
—하면 됩니다!

하도 기특하고
하도 욕심나
너와 나란히 세워보며
이 어머니도 은근히 그 비결을 물었더니
아니 글썽 순식간에 짜리뭇으로 물드는 얼굴
속삭이는 목소린 또 얼마나 정차던지

종구나
봄물오른 아지를 끄당겨
살뭇이 입술에 대어보며
끝없이 날으는 꿈하늘...
그 하늘은 아득히 푸르고푸른데
아 가슴치며 들려오는 저 소리는

오호, 한해두해 손꼽으며
이 어미는 무엇을 기다려왔던가
제대배낭 메고 돌아올 아들
손주 등을 두드리며 웃음꽃 필 저녁
너 곱게 채색한 노을 비낀 백양나무

아니 할 생각이었던가
아니 날을 꿈하늘이었던가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침략의 무리들이 꿈틀거리는 한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도는 한
버려야 할 기다림이었는데
잊어야 할 봄이었는데

결코
이 어머니의 기다림은 결코
한가정 작은 행복의 요람이 아니어늘
아들아 어머니 기다릴터이다
제대병사로 고향에 돌아올 네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할 평화의 노을을!
그 노을을 안고올 영웅병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세상에 태어나 이 말밖에는
더 배운 말 없는듯
병사의 어머니는
목메여, 목이 메여 아뢰입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는 원군길에 수고 많았다고
분에 넘친 감사를 보내주시더니
꿈과 꿈의 편속입니까
오늘은 불쑥 이 어미앞에
아들을 세워주신 아버지장군님

아, 꿈아닌 생시라고 말을 해다오
아들아, 노을아, 백양나무아

조선인민군 전초병열성자대회!
영광넘친 대회장에 불러주신 장군님
고향땅에 타오른 대고조의 불길 안아보라고
밤낮을 잊은 어미에게 더 큰 힘 되라고
최전연모범병사 널 보내주셨다고

어디 한번 안아보자 안겨보자
어쩔 이렇게 림름해졌을가
쩍 벌어진 어깨
담벽같은 가슴
그우에 번쩍이는 훈장, 빛나는 메달
아, 내 낳아 키운 아들같지 않구나

아, 장군님
무릎꿇고 열백번 절을 드린들

이 몸이 백이 되고 천이 되어
원군길 만리, 혁신의 길 천만리 뛰고편들
키워주신 이 은정
배풀어주신 이 은혜
어이 다 보답하리까

나의 병사, 나의 아들딸들이 기다린다고
지치는 차바퀴 몸소 미시며
툭아오르신 설령 몇몇굽이입니까
헤치신 파도, 뚫고가신 폭풍우, 눈보라...
아 그 길에서 새우신 밤 열마입니까
이 땅 천리만리 아니 가보신 곳 있나이까

그렇게 찾고찾으시여선
제 만져보지 못한 아들의 잠자리
추울세라 더울세라 살피주시고
숨웃이며 숨신의 바늘구멍자리까지
헤아려 보살피 마음 쓰시고
보초근무 마치고 돌아올 때면
기다려 기다려
가마목에 파근한 밥 차려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사랑

그렇게 찾고찾으시여선
펄펄나는 일당백용사가 되라
손잡고 큰 믿음 안겨주시고
훈련모습 일일이 보여주시며
날개를 달아주고
담력을 키워주신
하늘같은 바다같은 아버지사랑

아버이 그 사랑
한 어미 좁은 치마폭에 안겨있던
이 나라 아들딸모두를
조국이 자랑하는 어엿한 영웅병사로 키우셨고
아버이 그 사랑
이 땅 수백만 어머니들 가슴가슴에
뜨거운 열풍이 되어 흘러흐르나니

아 고마움에 목메는 마음 터쳐
우러러우러러 맹세를 드립니다

그 열풍으로 심장을 끓이고
그 열풍으로 온몸을 불태우며
사랑하렵니다
장군님병사모두를 제 아들처럼
바치렵니다
아낌없이 한껏 장군님 아들딸들에게
진정 장군님처럼
병사들과 한전호에 숨결을 잇고

아 그래도 그래도
가슴속에 그냥 고패치는
어찌할수 없어 그냥그냥 터져나오는 아뢰임
세상에 나서 이 말밖에는
정녕 이 말밖에는 배운 말 없는듯

고맙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 식

짐승의 폐를 씻는 방법

폐는 호흡기관으로서 그안에는 먼지와 함께 각종 균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또한 폐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있기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폐의 결면만 씻어서는 피와 혼합된 불순물들을 없앨수 없다.

폐를 깨끗이 씻자면 폐와 련결된 기관을 수

도꼭지에 대고 물을 씌넣으면 폐가 불어난다. 충분히 불어난 다음 수도꼭지를 떼면 자체의 압력에 의하여 수축되면서 안에 들어간 물과 함께 피거품들이 밖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번 씻으면 폐가 흰색으로 변한다. 이것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다시 한번 찬물에 씻어 리용한다.

닭고기 삶는 법

목은 닭은 암수를 막론하고 앵두나무가지를 넣고 삶으면 즉시에 무른다.

목은 닭은 삶을 때 찹쌀이나 매화나무열매를 넣으면 빨리 무른다.

우리 나라 중세 풍자소설 유산에 대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은 풍부한 고전문학유산을 남기였다. 그 가운데는 우리 인민의 기지와 창작적재능이 잘 반영되어있는 풍자소설유산도 적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풍자문학도 발전시켜야 한다.》

풍자문학은 사멸해가는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과 인간이 지닌 아름답고 숭고한것, 진실한것과 대치되는 저속하고 비도덕적이며 속물적인것을 날카로운 웃음을 무기로 하여 예리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 중세풍자소설은 세나라시기의 예술산문인 《구토설》(《거부기와 토끼이야기》)과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예술산문인 《화왕계》(《꽃왕의 충고》) 등에서 보여준 풍자적수법을 계승활용하여 리규보(1169—1241)의 예술산문 《게으름병을 조롱한다》에서 그 발생기를 맞이하였다고 할수 있다.

《게으름병을 조롱한다》는 아무 말도 하는것이 없이 놀고먹는 봉건량반들의 기생충적생활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라태와 무위무능, 부화타락 등을 야유조소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게으름병에 걸린 거사이다. 작품은 주인공과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거사가 자기의 게으름병에 대하여 고백하는 일인칭서술형식을 취하고있다. 이야기의 첫부분에서 거사는 자기가 지금 게으름병에 걸려 아무런 변통도 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터발 한페기가 있어 풀이 우거졌지만 귀찮아서 손을 대지 못하고 천권의 책이 있어 종이 먹어도 읽지 않으며 머리털이 흐트러져도 빗기가 싫다. 몸이 가려워도 게을러서 치료하지 않고 남을 대하여 반가이 웃는것도 싫다. 남과 함께 뛰는것도 귀찮고 입을 벌려 말하기도 싫으며 발로 걷기도 싫다. 걸음마다 일마다 다 귀찮으니 이러한 병은 어떤 방법으로 고칠수 있는가.》

작품의 이야기는 다음부분에서 거사의 《병》 증세를 듣고간 손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산놀이, 술놀이 가자고 청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내가 오래동안 거사의 조롱한 웃음과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더니 지금이 바로 늦은봄입니다. 새도 동산에서 우짖고 날씨는 화창하여 온갖 꽃들이 곱게 피었습니다.

내가 좋은 술이 있어 바야흐로 술개미가 뜨고 향기가 방안에 찼으며 익은 기운이 술독에 가득하니 내가 혼자 마시기는 아깝고 청할이란 선생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집에 시종드는 계집애가 있어서 시숙의 노래도 능하고 피리도 불며 호쟁도 탈줄 아니 이것도 역시 혼자서 들을수 없어 선생을 기다립니다.》

거사는 술과 계집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게으름병을 똑 떼고 어서 가자고 서두르더니 급기야 허리띠를 조이고 신발을 찾아신고 더딜세라 밖으로 내닫는다.

작품의 이야기는 찾아온 손님이 바빠 서두르는 거사의 앞에 척 막아나서며 《량심을 짚는 도끼로는 녀자가 첫째요, 내장을 상하게 하는 약은 술을 가리킨다 하는데 선생은 오직 이 두가지에 대하여서는 게으름병이 언제 풀렸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출입을 분주히 하시니 선생이 이로부터 량심을 잃고 몸을 망치고말것이 두렵나이다.》라고 조소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이와 같이 거사의 게으름병에 대한 고백과 그의 더럽고 추악한 생활리념을 적발폭로하는 손님의 이야기와 겉과 속이 다른 거사의 추악한 행동을 통하여 당대 봉건통치배들의 무위도식과 부패한 생활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고있다.

작품은 발생 초기 고전소설로서의 풍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풍자소설의 발생기를 대표할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야기도 일관하게 펼쳐져있고 사건의 기승전결도 보장되고있으며 풍자적주인공의 성격도 개성적이다.

15—17세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 중세문학은 우수한 풍자산문들과 풍자소설들을 적지 않게 남기였다.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에 나오는 《풍산수의 계산방법》, 《신씨의 허풍》, 《순가락보다 사발이 더 좋다》, 《스님 속인 상좌》를 거쳐 16세기 립제(1549—1587)의 중편의인소설 《서옥설》(《재판받는 쥐》), 《화사》(《꽃력사》)의 강한 풍자적형상수법에 이어 17세기 류몽인(1558—1628)의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단편풍자소설 《야서구혼》(《들쥐의 혼인》), 리수광(1563—1628)의 《지봉류설》에 실려있는 《황생의 망상》, 허균(1589—1618)의 《남궁선

생전》, 홍우원(1605-1687)의 《백흑난》, 박문빈(1622-1700)의 《축빈설》(《가난을 쫓는 이야기》), 박두세(1650-?)의 《요로원야화기》(《요로원의 밤이야기》) 기타 《상변군사》, 《가소로운 〈절부정문〉》, 《포쇄별감》, 《그림으로 맞은 사위》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단편풍자소설들이다.

우리 나라 중세풍자소설은 18-19세기 전반기에 들어와 전면적인 개화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풍자소설 안서우(1712-1791)의 《금강탄유록》과 리이순(1754-1832)의 《화왕전》, 박지원(1737-1805)의 《량반

전》과 《호질》(《범의 꾸중》) 등 단편풍자소설들과 구전설화에 기초한 중편풍자소설들인 《홍부전》과 《배비장전》, 《장끼전》 등이 있다. 이밖에 특색있는 단편소설들인 작가불명의 《오유란전》, 《리춘풍전》, 《리홍전》, 《축관장》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결같이 몰락해가는 봉건통치배들의 악랄한 착취와 부패타락한 도덕생활, 봉건도덕이 미치는 악영향 등을 풍자회극적인 형상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나라 중세소설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 설 화

작가일화

산산쪼각난 벽계수의 허세

리조 전기의 녀류음악가, 시인이었던 황진이(1516-?). 그가 생존해있던 당시 서울에는 벽계수라고 하는 왕의 친척이 있었다. 벽계수는 그 사람됨이 아주 교만하였다.

어느날 벽계수와 그 친구들이 모여앉아 한담을 하던중에 화제가 문득 송도명기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황진이의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명기를 한번 만나보면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말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교만한 벽계수만은 입가에 조소를 띠우며 황진이를 이리저리 헐뜯고나서 자기는 그 어떤 미인앞에서도 눈섭 한오리 까딱 앓노라고 흰소리를 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벽계수가 황진이를 직접 만나 증명해야 인정하겠노라고 증구난방으로 떠들었다.

벽계수는 이에 꽤히 웅했다.

(그까짓 한낱 기생이 뭐라고...)

벽계수는 곧 하늘소에 몸을 싣고 개경을 향해 호기있게 길을 떠났다. 별빛 총총한 밤, 그는 거들먹거리며 하늘소를 몰아 개경어구의 산모퉁이를 돌아들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랑랑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황진이였다. 황진이는 벽계수가 온다는것을 알고 기다리고있던중이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말아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여간들 어찌리

벽계수는 맑고 랑랑하게 울리는 목소리의 입자

가 황진이임을 곧 알아차렸다. 그것은 《청산리벽계수》는 푸른 산의 맑은 물을 의미하는 동시에 곧 자기인 벽계수를 가리키는 말이였고 《명월이 만공산》은 밝은 달빛이 온 산에 찻다는 의미와 함께 황진이를 가리키는 말이였기때문이였다.

황진이가 오만한 벽계수와 자기자신을 넘두에 두고 지은 시조의 뜻을 풀이해보면 대체로 《그대 벽계수여, 함부로 장담말라, 한번 실수하면 사나이체면을 유지하기 어려우리니 한번 와서 만나 보라》는것이였다.

벽계수는 황진이가 부른 시조의 깊은 의미를 새겨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냥 하늘소를 몰아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생각하였다.

(세상에 이렇듯 재간있는 아녀자도 있단 말인가. 자연의 풍치를 교훈적으로 그대로 노래하는척 하면서도 이렇게 묘하게 시구를 꾸미고 거기에 깊은 의미까지 심어놓다니...)

문득 벽계수의 눈앞에 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달빛아래 조용히 서있는 녀인의 모습은 벽계수가 이제껏 본적 없는 황홀한 미인이였고 그의 심장이 통채로 녹아내리게 하는 하늘나라의 선녀였다.

황진이의 아름다운 자태에 끌리어 넋을 잃고 쳐다보던 벽계수는 자기가 하늘소우에 올라앉은 몸이라는것도 잊고 허둥거리다가 그만 나뻗어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벽계수의 허세도 진창에 덩굴어 산산쪼각이 났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황진이의 시적재능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속에서 더 크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기를 알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자신도 창작에서 자기가 살고있는 사회의 정치제도, 정치적인념을 반영하며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한다.》

사람들은 오늘도 작가가 창작한 수많은 소설들 중에서 최대의 걸작으로 되고있는 《아큐정전》(1921년)을 창작한 소설가 로신(1881-1936년)을 잘 알고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알라!》는 그의 말의 진리를 다름아닌 로신의 작품들에서 찾고있다.

《후에 와서 나는 우리의 일부 사람들의 용모에 대해서도 차차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신기한 사건에 부닥치거나 화려하게 차린 여인을 볼 때마다 또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들을 때면 아래턱이 천천히 내려오고 나중에는 입까지 헤벌여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정신속에 무슨 기관이 부족한듯 한감을 주어 그야말로 보기 딱하였다.》

이것은 예리한 필봉으로 자기 인민의 심장을 두드린 중국프로레타리아작가 로신의 말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중국인민은 여전히 중세기적몽매와 암흑속에서 헤매이고있었다. 제국주의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잠자는 중국》에 덤벼들어 저들의 원료원천지, 잉여상품판매시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때까지도 중세기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와 《유구한 문화》를 떠들면서 헛된 망상에 빠져있었다.

로신은 예리한 수술칼로 자기 인민의 이 정신적병집을 해부하였으며 각성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작가는 대중의 각성을 투쟁의 시작으로 리해하였다.

로신(본명 주수인)은 1881년 9월에 정갈성 소흥현성의 몰락한 봉건관리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7살때 고향을 떠난 작가는 남경에 가서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과학의 기초지식습득에 열중하였다. 1902년 일본으로 건너간 작가는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중국인민들을 구원하려는 제반의 포부가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보다 절박한것은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병집을 고치는것이라는것을 인식한 로신은 문학을 대중의식개변의 수단으로 보고 문학의 길로 방향을 돌리었다.

일본 류학중이었던 초기 작가인 뿌슈쾰, 페르몬도브, 바이론, 뽀뽀피 등 세계 진보적작가들의 작품을 번역소개하였다.

1909년 귀국후 작가는 고향에서 교원생활을 하

였으며 신해혁명후에는 북경대학, 북경여자사범대학(당시) 교수로 있었다.

1919년 《5.4운동》은 로신의 생애에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1918년 4월 작가는 잡지 《신청년》에 첫 단편소설 《미친 사람의 일기》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을 발표하여 작가는 《5.4신문학운동》의 출발을 알리였으며 용약 이 운동의 선구자로 되었다.

반동군벌당국은 로신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의 문필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아오이대학, 광둥중산대학 등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었다.

1927년부터 작가는 새로운 투쟁무대를 찾아 상해로 나왔으며 1936년 생의 말년까지 여기에서 보냈다.

상해에서 작가는 1930년 3월에 조직된 《중국좌익작가련맹》결성에 참가하였으며 총 9천 600여편에 달하는 수많은 잡문들을 발표하여 부르주아문인들의 반동적궤변을 짓부시고 대중의 각성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의 백색테로속에서 부르주아어용문인들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려나가던 작가는 1936년 10월 5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자기를 알라!》. 작가는 이 말을 자기의 작품들에서 반영하기에 애썼기에 창작되는 그의 작품들은 당시 중국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세계유모아

이제 연구해서 알려주지

국장이 글을 멋부리며 갈겨쓰기를 좋아하였다. 어느날 그는 문건을 작성하면서 한바탕 갈겨써놓고 타자수더러 타자를 치라고 하였다. 그런데 타자수는 모를 글자가 너무 많아서 타자를 다 치지 못한채 국장에게로 문건을 들고갔다.

국장자신도 그 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가 쓴 글을 모른다고 할수가 없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를 글자가 있으면 벌써 와서 물어볼것이지 내가 제일 바쁠 때 찾아올진 뭐요? 내가 연구해보고 알려주겠소!》

로 신 과 의 언 쟁

1925년 8월 베이징대학 도서관의 한 구석진 방에서는 로신, 모순, 구추백, 운대영, 장광자(1901-1931년)등 작가들의 열기띤 논쟁이 벌어지고있었다. 논점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시급히 창조해야 할 《혁명문학》의 묘사대상, 작가의 세제관, 창작방법에 관한 문제였다.

론쟁이 어지간히 고조에 달했을무렵 모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중국에는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농민들, 두터운 깃속에 목을 사리고 고민과 영탄으로 세월을 보내는 소부르조아지식인들, 미친개처럼 물고뜯기를 즐기는 군벌들이 다수를 이루고있소. 그러니 이러한 추물들을 들추어내고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 녀성들, 아이들과 도시들에서 착취 당하는 산업군중을 마땅히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하오.》

적지 않은 작가들이 머리를 끄떡여 모순의 말에 수긍을 표시했다.

이번에는 로신이 일어났다. 로신의 말은 언제나 해학적이고 기지가 있어 모두들 새로운 흥미를 느끼며 귀를 강구었다. 로신은 정색하여 말마디를 이어나갔다.

《모순선생의 주장에 저도 공감합니다. ... 그러나 보다 더 긴박한 문제는 그들을 각성시키는것이라고 봅니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로신의 문학적 명성도 명성이라니와 그의 말은 언제나 사리정연하고 정확하여 한번 듣고는 반문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때였다. 멀끔한 양복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스무댓살가량의 젊은 청년이 일어섰다.

《저 청년은 누구요?》

《글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럴만도 한것이 그는 모

스크바류학을 마치고 얼마전에 중국에 돌아온 장광자였다. 구추백의 소개로 상해대학 교수로 된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모스크바류학을 마치고 돌아온 장광자선생이요.》 누군가가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장광자는 좌중을 내려다보더니 손세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다. 일단 흥분되면 자기를 건잡지 못하는 그였다.

《혁명문학에서 농민들이나 소자산계급,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혁명문학은 마땅히 프롤레타리아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혁명적인 계급만을 말입니다. 이자 농민들이나 소부르조아지식인들까지 그려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소부르조아작가들만이 할수 있는 주장입니다.》

《원, 저런.》

《아니, 로신선생을 보고 소부르조아작가라니?》

《어에서 저런 좌경파가 굴러들었나?》

사람들이 일시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로신이 다부산자를 찢히고 담배물주리를 뽑아들며 태연하게 한마디 했다.

《장광자선생, 모스크바물을 너무 통채로 마셨구만. 로씨야라면 어떻게 몰라도 여긴 로씨야가 아니라 중국이요.》

《하하하...》

긴장하던 분위기는 로신의 한마디말에 멧모르는 헛내기에 대한 폭소로 번져졌다.

이날 로신이 던진 한마디의 말은 장광자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자신의 좌경적오류를 깨달은 장광자는 그후 중국의 현실을 깊이 연구하고 중편소설 《소년방랑자》, 단편소설 《압록강가에서》 등 중국의 현실과 결부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독자들의 열렬한 호평을 받았다.

상 식

《작은풀 정탐》

최근 《작은풀 정탐》이라는 극소형정탐기제가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 정탐기제는 비행기로 산과 들에 뿌려진다. 겉보기에 작은 풀처럼 생긴 이 기제는 약한 바람에도 가볍게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리는 잎은 풀이 아니라 극소형촬영기와 수감기이다.

《작은풀 정탐》은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

고 주위환경을 관찰할수 있으며 외부세계의 진동을 측정할수 있다. 이것은 《곤충병사》보다도 더 쓸모가 있다고 한다.

이 정탐기제는 들판의 전장에서 상대측의 땅크, 포의 위치를 탐지하고 비행기의 공중비행과 상대측부대의 행군경로를 알아내어 정찰정보를 자기의 지휘부에 전송한다.

조우의 《소매치기》

첫 작품인 희곡 《퇴우》로써 일약 문단에 신진 극작가로 등장한 조우(1910. 9-)는 기분이 뚝뚝 따사 당장 날것만 같았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대학에서 착실하게 연극을 공부한 것이 은을 낸 것이다. 그것도 재학중에 발표되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극장으로 쏠어들었다. 그리고 찬탄했다. 《참 재미있군, 재미있어!》, 《작가가 재간이 있군.》

희곡 《퇴우》의 열파가 베이징을 들었다 놓던 어느날 로사가 찾아왔다. 베이징의 청화대학에서 연극공부를 시작한 이래 드문히 만나 각근한 가르침을 받으며 문학의 눈을 떠우던 스승이었다.

《마침내 하나 내놓았군. 그런데 그게 뭐가?》
힐난하듯 묻는 로사의 말에 조우는 한순간 어안이 빙빙 돌았다. 찬양이나 축하의 말을 기대했었는데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로사가 계속했다.

《자네 같은 〈소매치기〉 군은 처음 보네. 자세가 틀렸어. 처음부터 〈소매치기〉에 맛을 들여선 안되지.》

《〈소매치기〉라니?!》

잠시후 자기를 수습한 조우는 격한 심정에 스승 앞이라는 것도 잊고 이렇게 단마디로 반문했다.

《그래 자네 〈소매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 자네가 썼다는 〈퇴우〉를 보게. 유럽 작가들의 극작술을 따먹었다는 게 분명히 알려지던.》

그제야 조우는 로사의 말 뜻을 알아차렸다. 조우가 희곡 《퇴우》를 창작하면서 유럽의 이름있는

작가들의 극작술을 도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유럽 연극에 매혹되었던 조우는 그 모든 우수한 극작술을 집대성한 훌륭한 작품을 쓰고 싶었다. 그리하여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 끝에 그럴듯한 소재를 찾아내고 극성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극성을, 인간관계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까라마조브 형제》에 나오는 인간관계를, 성격은 체호프의 희곡들에 나오는 《량면성》을 가진 2중적 성격을, 시간과 장소는 유럽의 고전주의 3일치법을 모방하여 썼던 것이다.

그리고 제판에 폐재를 올리며 상연에 제출했다. 기대대로 성공도 하였다. 지나온 창작의 날을 더듬어보던 조우의 머리속에 불현듯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소설가인 줄로만 알았던 로사 선생이 극문학에 이렇게까지 정통하다니? 생각할수록 스승의 박식에 머리가 수그러졌다. 로사의 말이 귀청을 때렸다.

《그렇듯하게 모방은 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네. 어쨌든 창작가에게 있어서 모방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게.》

이날 로사의 말은 조우의 가슴속에 뿌리깊은 응어리로 새겨졌다. 《소매치기》의 루명을 벗기 위해 조우는 그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여 1941년 희곡 《탈피》를 창작하면서부터는 《민족적 사실주의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새로운 모습으로 문단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우의 모방습기는 그후 작가들속에서 하나의 일화로 전해져 창작에서 나타난 그럴듯한 모방을 두고 작가들은 《조우의 소매치기》라고 즐겨부르곤 하였다.